



국가별 유의 사항

미국 지역



- 01 워싱턴 DC (공통사항 포함) 30
- 02 뉴욕 38
- 03 로스앤젤레스 44
- 04 보스턴 50
- 05 샌프란시스코 56
- 06 시애틀 60
- 07 시카고 66
- 08 애틀랜타 72
- 09 호놀룰루 78
- 10 휴스턴 84



현지 치안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9·11 사태 이후 국토안보부 창설 및 각종 국내외 대테러 태세 강화로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계가 매우 삼엄한 상황이다. 테러 공격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되는 공항, 항만, 대도시 공공시설, 주요 정부 청사 등에 출입할 때에는 각종 보안 검색이 실시되고 있다.
- 워싱턴 DC 지역은 주미국 대사관 관할 지역인 D.C.,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 연방 정부 건물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9·11일 사태 이후 테러 대비에 대한 경계가 잘 정착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미국은 연방, 주(州), 시별로 사법 질서가 매우 잘 정착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개인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어 있어 각종 총기 사건이 빈번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행 지역의 치안 상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 대도시(LA,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는 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도시의 위험 지역을 사전에 확인해 둔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며, 각 경찰국마다 한인 통역 안내가 제공되고 있다.
- 워싱턴 DC는 크게 NW(북서), SW(남서), NE(동북), SE(동남) 행정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NW가 안전한 편이며 SE는 각종 범죄 등 위험요소가 많다.
-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므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2005년 8월 미국 남부(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지역에 태풍 '카트리나'가 강타하여 2,500여 명의 사상자와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2007년 10월 방화로 인한 대형 화재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 인근 3천여 에이커가 전소되어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 최근 총기 사고로는 2007년 4월 버지니아텍 총기 난사 사건(33명 사망), 2007년 8월 뉴저지 사건(3명 사망), 2008년 2월 루이지애나텍 총기 사건(3명 사망), 2008년 2월 노던일리노이 대학 총기 사건(6명 사망) 등이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이용한 사기사건

- 미국 방문 또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언어 소통의 문제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득, 비자 변경 등의 사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책]

- 운전면허 취득이나 비자 변경 등의 업무는 지역 한인회, 봉사센터, 또는 변호사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례 2] 음주운전으로 추방당하는 일 발생

- 한국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지만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운전할 때 술을 마시지 않고 술병 마개만 개봉되어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

[대책]

- 술을 마셨을 경우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 귀가가 최선이다. 자동차 좌석에는 어떠한 술병도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술을 구입했다면 반드시 트렁크에 넣어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

- **버스**
 - 일반요금은 \$1.35이고 2시간 이내에 환승할 때에는 무료이다. 환승표(Transfer Ticket)는 운전기사에게 요구하면 된다.
 - 스마트트립카드는 \$1.25에 온라인 또는 지하철역에서 구입하면 된다.
- **지하철**
 - 일반요금은 최저 \$1.65~최고 \$4.50이며 거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지하철 이용 후 버스로 환승할 경우 0.45센트 추가 요금을 지불한 후 이용하면 된다. 환승표 기계는 지하철역에 배치되어 있다.
- **택시**
 - 마일제가 적용되는데 기본료 \$4, 1마일당 \$1.5의 요금이 부가된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 큰 수하물을 이동할 경우 별도로 \$2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 추가 인원이 승차하면 1인당 \$1.5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 팁은 1인당 \$1이 적당하다.
- 출퇴근 시간에는 \$1의 추가요금이 붙는다.

● **여행자에게 유용한 교통패스 정보**

-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트립카드 혹은 다양한 종류의 할인권을 온라인(www.wmata.com)으로 구매할 수 있다(Bus : Weekly Pass \$11, Metro : One Day Pass \$7.8).

도로교통

- 운전할 경우 항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차량등록증과 보험 서류는 차량에 비치해 놓아야 한다.
- 스쿨버스가 'STOP' 사인을 보내면 좌우 모든 차들은 정지해야 한다.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일 경우 반대편 차선의 차들도 정지해야 한다.
- 워싱턴 DC 부근 지역에는 출퇴근 시간에 출입이 제한되거나 2명 이상이 탄 차량(HOV : high-occupancy vehicle)만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가 많으므로 도로표지판을 유심히 살핀다.

기후

- 벚꽃이 피는 봄과 공기가 맑은 가을철이 최적의 관광 시기이다.
- 여름은 비교적 덥고 습기가 많으며 겨울은 추위가 심한 편이다.

자연재해

- 대서양에 인접한 미 동남부 지역(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조지아 등)에는 매년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태풍 피해 가능성이 있다.
- 로키산맥 동쪽의 중서부 지역(콜로라도,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남부 지역(테네시, 미주리, 아칸소, 앨라배마, 미시시피)에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토네이도 피해 가능성이 있다.
- 버지니아 내륙 지역으로 근래 잦은 토네이도의 생성으로 이재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한인 밀집지역은 아직 피해사항이 없다.
- 한국인들의 주요 거주지역이며 관광지이기도 한 캘리포니아주는 간혹 지진 또는 대형 화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관공서 및 박물관 등 방문할 때 주의사항

- 관공서나 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할 때 대부분의 경우 보안 체크를 하게 된다. 보안 담당관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할 경우 보안검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안 담당관의 지시에 잘 따르는 것이 좋다.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관공서에서의 일 처리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느린 편에 속하므로 양국의 업무 처리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대인관계 문화

- **대화 태도** :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화하는 것이 예의이다. 대화 내용 중 특정 종교나 소수민족, 인종이나, 성별과 관계된 차별성 발언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비록 농담이라도 절대 금물이다. 또한 초면에 나이나 가족사항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제스처** : 대화 중 손 전체가 아닌 특정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공장소 등에서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 좋다. 재채기를 하고 나면 “Excuse me”라고 말해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다.
- 직접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이름과 직책 등을 물어서 적어 두도록 한다.

차량 운전 문화

- **‘STOP’ 표지판** : 신호등과는 달리 ‘STOP’이라고 적혀 있는 팔각형의 빨간색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2~3초간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본 후 출발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경찰에게 티켓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 **스쿨버스(노란색)** : 스쿨버스의 정차 시 버스 운전자 옆으로 ‘STOP’사인이 펼쳐지면, 좌우 모든 차들은 정지해야 한다.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일 경우에는 반대편 차선의 차들도 정지해야 한다.
- **긴급 차량** : 경찰차나 소방차, 앰بول런스 등 긴급 차량이 이동할 때에는 차로의 모든 차들이 긴급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해 준 후 정지해야 한다.
- **운전 중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 : 과속 등의 이유로 경찰차가 뒤쪽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계속 뒤따라올 경우에는 차를 갓길에 세운 후 기다려야 한다. 갓길에 세운 후 경찰이 차를 조화하는 동안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때 절대 차에서 내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만약 그럴 경우 경찰은 이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이 다가올 때까지 두 손을 운전대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한다. 경찰이 다가오면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대부분의 경우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 일단 티켓이 발부되면 불만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법원을 통해 항소해야 한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및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미대사관 :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 전화 : (1-202) 939-5600(대사관 대표전화)
 - 팩스 : (1-202) 797-0595
- 미국 지역 총영사관

총영사관	주소	전화/팩스	담당구역
워싱턴DC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T:(202) 939-5654 F:(202) 342-1597	Washington DC, Maryland, Virginia, West Virginia
뉴욕	Main Office : 335 E. 45th St.(4th Fl.)New York, NY 10017 Public Office(Visa Section) : 460 Park Ave. (57th St.) 6th Fl. New York, NY 10022	T:(646) 674-6000 T:(212) 692-9120 F:(646) 674-6023 T:(646) 674-6000 F:(646) 674-6023	Connecticut, Delaware,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샌프란시스코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T:(415) 921-2251 F:(415) 921-5946	Colorado, Northern California, Utah, Wyoming
로스앤젤레스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213) 385-9300 F:(213) 385-1849	Arizona, Nevada, New Mexico, South California
보스턴	One Gateway Center 2nd Fl. Newton, MA 02458	T:(617) 641-2830 F:(617) 641-2831	New Hampshire, Rhode Island, Maine, Massachusetts, Vermont
시카고	NBC Tower Suite 2700455 North City Front Plaza Dr.Chicago, IL 60611	T:(312) 822-9485 F:(312) 822-9849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orth Dakota, Ohio, South Dakota, Wisconsin
시애틀	2033 Sixth Ave., #1125 Seattle, WA 98121	T:(206) 441-1011 F:(206) 441-7912	Idaho, Montana, Oregon, Washington, Alaska
애틀랜타	229 Peachtree St., Suite 5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T:(404) 522-1611 F:(404) 521-3169	Alabama, Florida, Georgia, North Carolina, Puerto Rico, South Carolina, Tennessee, Virgin Islands
휴스턴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T:(713) 961-0186 F:(713) 961-3340	Arkansas, Louisiana, Oklahoma, Mississippi, Texas
호놀룰루	2756 Pali Highway Honolulu, HI 96817	T:(808) 595-6109 F:(808) 595-3046	American Samoa, Hawaii
하트나	125C Tun Jose Camacho St., Tamuning, Guam 96913	T:(671) 647-6488 F:(671) 649-1336	Guam, Northern Mariana Islands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30~12:00, 13:30~17:00(국경일 및 미국 공휴일 휴무)



여행 전

- 반드시 방문 목적에 맞는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먼저 인터넷으로 인터넷 예약을 한 후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가서 인터뷰와 지문 채취 절차를 거치면 된다(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 <http://korean.seoul.usembassy.gov>).

미국 도착 전 기내 준비사항

- 공항에 도착하기 전 기내에서 나누어 주는 I-94(출입국기록카드) 양식과 세관신고서를 작성한다.
- I-94는 이민국에서 여행자의 미국 출입국을 기록 관리하는 서류로서, 입국심사할 때 심사관이 이 카드에 여행자의 미국 내 체류 가능 기간을 기재해 준다. 미국을 출국할 때 I-94 카드를 항공사 직원에게 제출해야 출국 사실이 확인되어 불법체류라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 I-94 작성 안내 참고 :

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i-94_instructions/filling_out_i94.xml

- 세관신고서 작성할 때 참고해야 할 반입 금지 품목은 육류, 과일, 채소, 식물, 음식물류, 곤충류, 토양, 농산물류, 총기, 마약류, 도검 등이다.

※ 세관신고서 작성 안내 참고 :

http://www.cbp.gov/xp/cgov/travel/vacation/sample_declaration_form.xml

입국심사

- 입국심사는 미국 첫 기항지에서 이루어지며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입국심사가 시작되면 출입국 기록 카드(I-94), 세관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한다.
- US-VISIT 프로그램에 의해 스캐너에 양쪽 집게손가락을 차례로 올려놓아 지문을 채취한 후 얼굴 사진 촬영을 한다.
- 입국심사관이 미국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 등을 질문하고 여행자의 I-94에 미국 내 체류 가능 기간을 기재하여 돌려주면 입국심사는 끝난다.
- 간혹 여행자 중 자신이 가진 미국 비자의 유형과 방문 목적을 다르게 대답하거나 또는 그 이외의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한다.
- 미국 비자의 유효기간과 미국 내 체류 가능 기간은 개념이 다르다. 5년 유효의 미국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분실에 대비해 여권과 비자, I-94 등 중요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원본과 별도로 보관한다.

※ 이민국 출입국 안내 참고 :

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legally_admitted_to_the_u_s.xml

출국 절차

- 공항 내의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에 가서 여권, 항공권, 미국 출입국카드 I-94를 제출하면 출입국 카드를 떼고 항공기 탑승권을 발급해 준다.
- I-94 제출은 여행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항공사 직원이 이를 회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방접종

- 한국에서 직접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으나, 오염 지역을 통과하여 입국할 경우에는 필요하다.

통관

- 통관은 미국에 처음 도착하는 지점(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행해진다. 입국심사가 끝나면 본인이 타고 온 항공기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벨트 컨베이어에서 수하물을 찾아 세관카운터로 간다.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빨간불, 없으면 파란불이 켜진 카운터로 가서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제출한다.
- 술은 1리터, 담배는 껌련 200개비(10갑), 시가 50개, 파이프 담배 250g, 향수는 2온스 이내인 경우에만 면세가 된다. 20세 이하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술과 담배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 토산품(선물)은 1인당 \$100 이내의 것에 한하며, 미국 체류 기간이 7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과거 6개월 이내에 이와 같은 토산품 반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총액이 \$1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별도의 치료 없이 진료만 받는 데에도 보통 \$100 이상의 비용이 청구된다(워싱턴 DC 지역의 경우).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구입하되 병원마다 취급하는 보험이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응급 상황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예약을 먼저 해야 한다.
- 약은 CVS, Giant, Safeway 등 대형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다. 대형 슈퍼마켓마다 약사가 있기 때문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약사가 약을 조제해 준다. 오버더 카운터(over the counter) 약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데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알레르기약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워싱턴 DC 근교에서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병원 검색 웹사이트
: <http://www.giantdirectory.com>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화재 신고, 앰블런스 신고 : 911

팁 제도

- 미국에서의 모든 서비스 이용에는 팁을 지불해야 한다. 식당과 미용실,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팁은 비용의 15~20%를 지불한다.
- 호텔, 공항에서 짐을 이동해 주는 경우에는 가방당 \$1 정도 지불하면 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3시간(한국이 오후 2시이면, 미국은 새벽 1시)

전력 사용 현황

- 110V

미국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 <http://www.koreaembassy.org>
- 미 연방정부 정보 제공 홈페이지 : <http://www.usa.gov>
- 여행 정보 제공 홈페이지 : <http://www.lonelyplanet.com>
- 외교통상부 안전여행 : <http://www.0404.go.kr>
- 미국 안전여행 : <http://safetravel.dot.gov>

미국 연방 공휴일

날짜	해당 휴무일
1월 1일	New Year's Day
1월 셋째 월요일	Martin Luther King Jr. Day
2월 셋째 월요일	President Day
5월 마지막 월요일	Memorial Day
7월 4일	Independence Day
9월 첫째 월요일	Labor Day
10월 둘째 월요일	Columbus Day
11월 11일	Veteran's Day
11월 넷째 목요일	Thanksgiving Day
12월 25일	Christmas





시차 한국보다 14시간 느림
 화폐단위 USD \$
 총영사관 홈페이지 www.koreanconsulate.org
 뉴욕주정부 홈페이지 www.state.ny.us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2001년 9·11 사태 이후 뉴욕시는 테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정되어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정한 테러 위협 수위 5단계중 두 번째로 높은 High(Orange) Level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다.
- 테러란 예기치 않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테러 발생 시 가족이나 지인과의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플러싱 지역에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 뉴욕 경찰은 공권력이 강하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단 경찰의 지시에 따른다.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는 등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 사안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구금될 수 있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출장차 뉴욕을 방문한 K씨는 맨해튼 웨스턴 호텔 앞을 걸어가던 중 한 명이 옷에 케첩을 뿌려놓고 또 다른 한 명이 접근, 옷에 묻은 케첩을 닦아주며 시선을교란하는 사이에 지갑이 든 가방을 도둑맞았다.
- 맨해튼에 위치한 센츨리리 백화점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고 출입구 검색대를 빠져 나오던 M씨는 경보음이 울려 절도 관련 조사를 받았다. 물건 구입 후 매장을 빠져나오기 전에 구입하지 않은 물건이 가방 안에 들어 있는지 혹은 절도방지 장치가 구입한 물건에서 제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 공항에서 무료 셔틀버스라며 목적지까지 태워 주겠다고 유인하여 차에 태운 뒤



현지 치안 상황

낮선 곳으로 차를 몰고 간 다음 목적지까지 되돌아가려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 금품을 갈취한 후 아무 곳이나 내려놓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항 도착 전에 미리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차편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현지 경찰로부터 역울한 피해를 당할 경우

- 한국의 요리학원 원장인 A씨는 플러싱에서 맨해튼 32가 한인 타운까지 7번 전철을 타고 요리학원에 다녔는데 하루는 전철 매표소 앞에서 무임승차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A씨는 전철 정액권이 있었고 무임승차도 하지 않았기에 연성을 높여 항의하다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구금되었다.

[대책]

- 이러한 사건은 뉴욕 전철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무임승차로 적발되면 경찰은 무임승차한 사람에게 벌금 티켓을 발부한다. 본인이 무임승차를 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티켓에 나와 있는 장소로 본인이 무죄임을 통보하고 법원 출두 날짜를 받아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
- 만약 체포·구금되었을 경우 먼저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체포가 되고 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이나 문서에 대해서는 함부로 답변하거나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는 본인이 서명을 한 문서의 경우,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서명자의 진술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맨해튼 북쪽 할렘가, 브루클린 이스트 지역, 맨해튼 북부 워싱턴하이츠 지역, 브롱스 모리스하이츠 지역,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브센타 지역, 브롱스 유니버시티 하이츠 지역

대중교통

- 대중교통 노선 및 시간 안내 등 자세한 대중교통 이용 현황은 MTA 홈페이지 (<http://www.mta.nyc.ny.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

- 요금 : \$2(일반버스 혹은 고급좌석 버스와 환승 가능)
 - 지불방법 : 전철 카드(Metro Card)를 사용하며, 전철역 매표소나 가까운 잡화점에서 전철 카드(전철과 버스 겸용임)를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는 충전 가능하다. 24시간 운행한다.

버스

- 일반버스(Local)와 고급좌석(Express) 두 종류가 있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 일반버스, 고급좌석, 전철은 환승이 가능하며 일반버스 혹은 전철에서 고급좌석으로 환승할 경우에는 \$3를 더 지불해야 한다.

● **요금**

- 일반버스(Local) : \$2, 고급좌석(Express) : \$5
- 지불방법 : Metro Card나 동전 사용 가능

택시

- 택시(Yellow Cab)가 약 13,000대 이상 운행되고 있어 손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콜택시도 이용할 수 있다.
- 택시 요금은 시간·거리 병산제
 - 기본요금 : \$2.5(Rush Hour에는 \$1 추가 지불)
- 콜택시 요금은 전화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 맨해튼과 플러싱 지역에는 많은 한인 콜택시가 영업 중이다.

도로교통

- 맨해튼 지역은 도로가 넓고 노면 상태가 안 좋으며 일방통행 도로가 많아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한다.
- 갑작스런 끼어들기, 과속, 신호 위반 등 난폭한 운전자가 많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롤러블레이드 등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방어 운전이 필수이다.
- 뉴욕은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되는 곳이지만 대부분의 뉴욕시 경찰관들이 국제면허증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 위반이나 사고 시 국제면허증 소지자를 무면허자로 간주하여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한국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기후

- 뉴욕은 봄과 가을이 한국에 비해 짧고 여름과 겨울이 긴 편이다.
 - 봄은 대체적으로 온화한 날씨로 간혹 급격히 더워지기도 한다.
 - 여름은 30°C를 웃도는 매우 더운 날씨이며 매우 습하다.
 - 가을은 15°C 정도로 쾌적하며 화창한 날씨를 보인다.
 - 겨울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이 많으며 눈이 많이 내린다.

자연재해

- 여름에는 폭우로 인한 물난리가 발생하기도 하며 겨울에는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뉴욕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금융,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로 서 세계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살고 있다. 각 국가, 종교, 인종 간에 민감한 사항을 다룰 때 조심해야 한다.
- 뉴욕시가 테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조치하고 있는 만큼, 테러 관련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 관공서나 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할 때 대부분의 경우 보안 체크를 하게 된다. 보안 담당관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할 경우 보안검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안 담당관의 지시에 잘 따르는 것이 좋다.



긴급 영사 연락망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335 East 45th Street, New York, NY 10017
(민원실 : 460 Park Ave. 6 Floor, New York, NY 10022)
- 전화 : (1-646) 674-6000
- 팩스 : (1-646) 674-6023 / (1-212) 421-3028(민원실)
- 홈페이지 : <http://www.koreanconsulate.org>
- 필라델피아 지역 영사협력원(한승연) 연락처
 - 전화 : (1-215) 760-1325
 - E-mail : syhan@myrealbox.com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6:00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이 필요하다.
- 기내 반입금지 품목으로는 칼, 골프채, 가위, 손톱깎이, 야구방망이, 하키 스틱, 100ml 이상의 모든 종류의 액체, 젤, 스프레이(에어로졸) 등이 있다.
-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유아용 이유식, 우유 혹은 기타 유아용 식품, 액체, 젤, 에어로졸 등은 100ml가 초과되더라도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반드시 보안 검색장에서 검색 요원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 미국 입국 심사가 강화되어 입국 목적과 숙소, 연락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다.
- 2008년 3월 25일부터 뉴욕 JFK 공항은 입국심사 시 외국인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 채취를 시행, 입국 심사 시간이 전보다 더 지체될 수 있다.
- 미국은 출국 심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 출국 시에는 입국심사 때 받은 I-94(세관양식)만 반환하면 된다.

- 의료기관 및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진료비나 약값이 매우 비싼 편이다. 일반적인 1회 병원 진찰료는 보험이 없을 경우 \$100 혹은 그 이상이다.
- 여행 출발 전에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
- 소화제, 감기약 등 기본적인 약품은 일반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항생제, 당뇨약, 혈압약 등을 구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여행 기간 동안 먹을 약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할 때는 911에 연락한다.

비상 응급 전화

- 소방서, 경찰서, 구급차 : 911
- 맨해튼 경찰서 : (1-212) 826-3211
- 뉴욕주 재난 관리국 : (1-518) 292-2200 / <http://www.semo.state.ny.us>
- 테러 관련 긴급전화 : (1-888) NYC-SAFE / (1-888) 692-7233
- 시 정부 프로그램 관련 정보 : 311
- 전화번호 안내 : 411 / 지역번호-555-1212, (1-800) 411-1004(한국어 서비스)

팁 제도

- 레스토랑 :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요금의 10~20%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 점심의 경우 10~15% 정도, 저녁의 경우 15~20% 지불한다.
 - 식당에 따라 6인 이상의 단체 손님의 경우 계산서에 팁이 15% 정도 부과되어 나오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확인 후 지불한다.
- 호텔
 - Bellman : 가방 1개당 \$1 정도 / Doorman : \$1 정도(택시를 잡아줄 경우)
 - Room Maid : 1박당 \$1~2 정도
- 택시 : 요금의 10~15% 정도 지불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4시간(서머타임 실시 기간인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는 -13시간)

전력 사용 현황

- 110V / 60Hz
- 휴대용 가전제품은 110V / 220V 겸용을 가져가야 사용 가능하다.

뉴욕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뉴욕 주정부 : <http://www.nyc.gov>
- 뉴욕경찰(NYPD) <http://home2.nyc.gov/html/nypd/html/home/home.shtml>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미국 | 로스앤젤레스



시차 한국보다 17시간 느림
화폐단위 USD \$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www.koreanconsulatela.org>
로스앤젤레스주정부 홈페이지 www.ci.la.ca.us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테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여 테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왔으며, 미국 국경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경 출입 통제 조치가 강화되었다.
- 테러 공격에 주요 대상으로 간주되는 공항, 항만, 대도시 공공시설, 주요 정부 청사 등에 출입할 때에는 각종 보안 및 검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미국 전 지역에 관한 테러 관련 등 안전 정보 확인은 국토안보부 홈페이지(<http://www.dhs.go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테러 등 국가 긴급 상황에 대한 안내는 <http://www.read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행을 떠나기 전에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www.koreanconsulatela.org>)에서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다양한 인종이 모여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치안 상황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편이나, 총기 소지 및 마약 만연, 경찰력 부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주간 및 야간에 외출할 때 치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한인 여행객은 현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고급 승용차 및 고급 장식품 등을 소지하고 있어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항상 조심한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로스앤젤레스(L.A.) 역사상 최대 규모의 흑인 폭



현지 치안 상황

동이 일어나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4명의 로스 앤젤레스 경찰관이 흑인 운전수를 폭행하는 모습이 TV로 공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인종차별이라고 여긴 흑인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약탈, 방화, 살인, 강간을 저질렀다. 이때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90%가 파괴되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휴대품을 노린 절도

- 한눈에 여행객임이 드러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도 및 절도 범위가 빈발하고 있다.

[대책]

- 여행객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복장은 피한다.
- 가방 등 소지품 보관에 주의한다.
- 홈리스(homeless)의 구걸 행위에 당황하거나 금전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 무장 강도를 만났을 경우 무리하게 대처하지 말고 요구에 응하도록 한다.
- 낯선 사람의 호의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사례 2]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

- 대부분 차량을 이용한 쇼핑이나 여행이 잦기 때문에 여행객이 모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대책]

- 공공장소에서 차 밖에 있을 경우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 공중전화나 주유소를 이용할 때는 밝은 곳이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주차한다.
-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차에서 내리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관공서 등에 옮겨 처리하도록 한다.
- 차창은 가능한 한 손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약간 열거나 닫는다.
- 귀중품이 차창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숙소 열쇠와 차 열쇠는 따로 휴대하도록 한다.
- 승하차 시에는 대로변의 밝은 곳을 택하도록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코리아타운 업소 밀집 지역은 낮에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통행이 많지 않은 밤에는 마약 복용자 등 신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단독 외출은 삼간다. 야간에 음주운전 단속이 철저하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 코리아타운 지역에 지하철이 1996년 7월 개통되고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운행 지역 제한 및 배차 시간의 장시간 소요 등으로 외국 여행객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많다.
- LA 지역은 대중교통 수단이 극히 미미한 편이다.
- 택시는 모두 콜택시 제도이므로 지나가는 택시를 탑승할 수 없다. 기본요금에 1.7마일당 가산요금이 추가된다.
 - 코리아타운까지 요금은 팁을 포함해서 \$7~8이다. 팁은 요금의 15% 정도이다. 탑승자 수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다.
 - 1.7마일당 요금기가 바뀔 때마다 \$0.2 추가된다.
 - 기사 대기 시 45초마다 \$0.2 추가되고, 1시간 대기할 경우 \$20 추가된다.

도로교통

- 갑작스런 끼어들기, 과속, 신호 위반 등 난폭한 운전자가 많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롤러블레이드 등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방어 운전이 필수이다.
- 운전할 때에는 항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차량등록증과 보험 서류는 차량에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한다.
- 앞좌석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 스쿨버스가 '정지 신호등' 을 깜빡이고 있을 때는 양방향 차량 모두 정지해야 한다.

기후

- 로스앤젤레스는 1년 내내 온난하며 기후 변화가 적고 사계가 뚜렷하지 않다. 11~3월을 제외하고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건조하다.
- 봄, 여름과 가을의 온도는 20°C에서 24°C 정도이다. 7월과 8월이 가장 온난하고 겨울철에는 때때로 서리와 폭우가 쏟아진다. 하절기에도 서늘한 편이다.

자연재해

- 한국인들의 주요 거주 지역이며 관광지이기도 한 캘리포니아주는 간혹 지진 또는 대형 화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 과거 여름 홍수와 겨울 태풍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관광사나 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할 때 대부분의 경우 보안 체크를 하게 된다. 보안 담당관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할 경우 보안 검사에 시간 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안 담당관의 지시에 잘 따르는 것이 좋다.
- 관공서에서의 일 처리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느린 편에 속하므로 양국의 업무 처리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긴급 영사 연락망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U.S.A.
- 전화 : (1-213) 385-9300
- 팩스 : (1-213) 385-1849
- E-mail : consul-la@mofat.go.kr
- 당직 전화 : (1-213) 700-1147(평일 야간, 공휴일, 주말)
- 홈페이지 : <http://www.koreanconsulatela.org>

근무 시간

- 월~금 / 09:30~17:00(점심시간 12:00~1:30)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문 목적에 맞는 사증(visa)을 취득해야 하며, 사증은 미 국무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서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사증은 방문 목적에 따라 그 종류와 구비 서류가 달라지며, 신청 절차는 먼저 인터넷으로 인터뷰를 예약한 후 예약된 날짜에 미대사관으로 가서 인터뷰와 지문 채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주한 미대사관의 홈페이지(<http://www.usavisas.org>)에서 사증 취득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문의 전화 02-397-4114).
-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칼, 골프채, 가위, 손톱깎이, 야구방망이, 하키 스틱, 100ml 이상의 모든 종류의 액체, 젤, 스프레이(에어로졸) 등이다.
-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유아용 이유식, 우유 혹은 기타 유아용 식품, 액체, 젤, 에어로졸 등은 100ml가 초과되더라도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반드시 보안 검색장에서 검색 요원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 의료기관 및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진료비나 약값이 매우 비싼 편이다. 일반적인 1회 병원 진찰료는 보험이 없을 경우 \$100 혹은 그 이상이다.
- 여행 출발 전에 한국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
- 소화제, 감기약 등 기본적인 약품은 일반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항생제, 당뇨약, 혈압약 등을 구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여행 기간 동안 먹을 약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할 때는 911에 연락한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 011-800-2100-0404
- 피해 또는 위급 시 경찰 : 911
- 코리아타운 파출소 : (1-213) 237-0569
- LA 한인회 : (1-213) 732-0192
- LA 한국관광공사 : (1-213) 382-3435

팁 제도

- 레스토랑에서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요금의 10~20%(점심 10~15%, 저녁 15~20%)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 호텔이나 공항에서 짐을 이동해 주는 경우에는 보통 가방당 \$1 정도 지불하면 된다.
- 택시는 요금의 15% 정도이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7시간(서머타임 실시 기간인 4월 첫째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는 -16시간)

전력 사용 현황

- 110V / 60Hz
- 휴대용 가전제품은 110V / 220V 겸용을 가져가야 사용 가능하다.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외교통상부 안전여행 : <http://www.0404.go.kr>
- 미국 안전여행 : <http://safetravel.dot.gov>



기타 참고사항

04



미국 | 보스턴



시차 한국보다 14시간 느림
 화폐단위 USD \$
 총영사관 홈페이지 www.kcgboston.org
 보스턴시정부 홈페이지 www.cityofboston.gov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일부지역(Dorchester, Roxbury, Quincy)을 제외하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보스턴 지역은 대부분 치안이 양호한 편이나, 도체스터(Dorchester), 락스버리(Roxbury), 퀸시(Quincy) 등의 지역은 흑인들이 밀집해 있고, 살인 및 강도 등 사건·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곳이므로 야간에 이 지역을 배회하는 것은 위험하다.

대중교통

1) 지하철

- 노선 : 총 5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외곽에서 도심지로 가는 것을 인바운드(inbound), 그 반대를 아웃바운드(outbound)라고 한다.
 - Red Line : Alewife Station - Mattapan Station, Braintree Station
 - ※ JFK / UMass Station에서 Mattapan Station 방향과 Braintree Station 방향으로 나뉜.
 - Orange Line : Oak Grove Station - Forest Hills Station
 - Green Line : Lechmere Station - Kenmore Station
 - B Boston College station
 - C Cleveland Circle Station
 - D Riverside Station



현지
치안 상황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 E Heath Street Station

※ Copley Station에서 B부터 E까지 나뉨.

- Blue Line : Wonderland Station - Bowdoin Station

- Silver Line

· Boylston Street Station - Dudley Square Station

· South Station - Silver Line Way Station

· South Station - Logan Airport Terminal A

- 운행 시간 : 05:00~01:00(각 구간별로 상이하므로 웹사이트 <http://www.mbtta.com>에서 스케줄 확인)

● 운행 요금

- 찰리카드 :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카드인데 가장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로서 1회 승차요금은 \$1,70이다.
- 찰리티켓 : 종이로 제작된 것으로 현금으로 내는 가격(2\$)과 동일하다.

2) 버스

- 전동차와 일반버스 두 종류가 있다.
- 운행 시간 : 06:30~20:00
- 운행 요금 : 찰리카드 : \$1,25 / 찰리티켓 : \$1,5

3) 철도

- 미국 전역을 운행하는 암트랙(Amtrack)이 있다.
- 북미 일부 지역은 캐나다까지 연결되어 있고, 유럽의 유레일패스처럼 기간별 정액권도 판매하고 있다.
- 자세한 정보는 암트랙 한국사무소 웹사이트(<http://www.amtrak.co.kr>)에서 얻을 수 있다.

4) 여행자에게 유용한 교통패스 정보

- 여행자들에게 유용한 대중교통 승차권이 있다. 지하철, 버스 구분 없이 그 기간 내에는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단, 고속버스 및 일부 구간은 제외된다.
- 1개월 패스 : \$59 / 1주일 패스 : \$15 / 1일 패스 : \$9
- 11세 이하 아동은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 무료이다.
-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1회 이용요금이 \$0,60이며, 1개월 패스는 \$20에 구입이 가능하고 맹인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메사추세츠주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대중교통 이용 팁

- 찰리티켓의 경우, 현찰을 지불할 때와 동일한 요금을 내야 한다. 현재 찰리카드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1회 승차 요금이 \$1.7, 찰리티켓으로는 현찰과 동일한 \$2를 지불해야 한다.
- 찰리카드는 한 달 정액제(\$59)도 있다. 1개월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해도 정액제의 금액 외에는 추가요금이 없으나, 찰리티켓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요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

- 도로 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난폭한 운전자가 많다.
- 안전벨트는 운전자 및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시내 주차료는 매우 비싼 편이므로 저렴한 공용주차장이나 가능한 경우 도로주차 이용한다.

기후

- 봄은 한국보다 짧고 4월에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다. 5월 중순이 되면 완전히 봄 날씨를 느낄 수 있지만 일교차가 심한 편이다.
- 여름의 낮 기온은 32°C 전후가 되는 때도 있으나 한국에 비해 습하지 않아 쾌적한 편이며, 열대야 현상도 거의 없다.
- 가을은 9월 초순에 시작되며, 10월경 일명 인디언 서머(Indian Summer)로 불리는 더위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며 그 후에는 아름다운 단풍 시즌이 시작된다.
- 겨울에는 내륙에서 오는 찬 기류의 영향으로 몹시 추우며 눈이 자주 많이 내린다.

자연재해

- 보스턴 지역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겨울철에 대형 눈보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상대방에게 가운데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것은 심한 모욕을 주는 의미이므로 삼간다.
- 택시를 이용할 때 미터기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짐이 많을 경우 요금이 추가되는지 미리 확인해 둔다.
-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버스는 현금 승차도 가능하다.
- 박물관, 미술관, 공항, 도서관 등 각종 공공시설에서는 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곳이 많으므로 미리 확인한다.



기후와 자연재해



긴급 영사 연락망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One Gateway Center Suite #251, 300 Washington St, Newton, MA 02458, USA
- 전화 : (1-617) 641-2830
- 팩스 : (1-617) 641-2831
- E-mail : kcgoston@mofat.go.kr
- 홈페이지 : <http://www.kcgoston.org>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 긴급 시 담당 영사 연락처 : (1-617) 549-0008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우리나라는 미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입국 목적에 해당하는 사증 취득이 필요하다.
- 의약품을 반입할 때는 FDA의 승인을 받은 것만 허용된다.
- 쿠바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은 반입 금지이다.
- 21세 이상일 경우 1인당 담배 200개비, 주류 1리터까지가 면세 대상이며, 그 이상을 반입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모든 식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국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공립 및 사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진료비가 매우 비싸므로 출국 전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둔다.
- CVS, WALGREENS 등 현지 약국에서 기본적인 비상약을 구입할 수 있으나 항생제 및 전문약품을 구입할 때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기타 참고사항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일반), 화재 신고, 응급환자 : 911
- 보스턴 의료센터 : (1-617) 534-5000
- 보스턴 견인센터 : (1-617) 635-3900
- 보스턴 로건공항 : (1-800) 235-6426
- 광역 보스턴 교통국(MBTA) : (1-617) 222-3200
- 독극물 센터 : (1-800) 222-1222
- 여행자 정보 센터 : (1-800) 227-6277
- 메사추세츠주 경찰 : (1-617) 523-1212
- 택시회사 : Metro Cab (1-617) 782-5500 / Boston Cab : (1-617) 536-5010

차량 수리

- C & C Auto Repair : (1-617) 442-1797 / 22 Center Plz., Boston, MA
- N & K Auto Repair : (1-617) 442-2624 / 8 Hawkins St., Boston, MA
- Foreign Car Specialists : (1-617) 427-9416 / 3 Center Plz., Boston, MA
- Garcia's Auto Repair : (1-617) 282-7133 / 528 Washington St., Boston, MA

팁 제도

- 호텔 숙박 시 1인 \$1 정도의 팁을 지불한다. 택시를 불러주고 문을 열어 주었을 때, 보관소에 코트를 맡긴 후 찾을 때, 호텔의 house keeping, 가방 운반시 각각 \$1씩 팁을 지불한다.
- 식당에서는 오찬 시 식대의 15%, 만찬 시 식대의 18%를 지불한다.
- 택시 이용 시 요금의 약 15%의 팁을 지불하며, 각종 고속도로 통행료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4시간(서머타임 실시 기간인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13시간)

전력 사용 현황

- 110V / 60Hz
- 현지에서 한국 전자제품을 사용하려면 110~220V 겸용인 경우 문제가 없으나 220V 전용인 경우 변압기를 사용해야 하나 현지 조달이 어렵다.
- TV와 비디오 방식은 한국과 동일하다.

보스턴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보스턴 시청 : <http://www.cityofboston.gov/visitors/about.asp>
- 보스턴닷컴 : <http://www.boston.com>
- 보스턴의 모든 것 : <http://www.allaboutboston.com>
- 네이버 여행정보 '보스턴편' 참조
- 한국 서점에서 판매하는 《Lonely planet Boston》 편 참조



미국 | 샌프란시스코



시차 한국보다 17시간 느림
 화폐단위 USD \$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usa-sanfrancisco.mofat.go.kr>
 샌프란시스코시정부 홈페이지 www.ci.sf.ca.us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샌프란시스코만 인근 지역은 1906년 대규모 지진으로 3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1989년 지진이 재발하여 60여 명이 사망한 바 있는 잠재적 지진대이다. 연방지질 조사국은 2008년 4월 북가주에서 진도 6.7 이상의 지진이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을 93%라고 공식 발표했다.
- 관계당국에서 미국 내 테러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 샌프란시스코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안전한 지역이지만 2006년 범죄 발생률은 미국 전 지역 평균치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범죄는 주로 밤늦은 시간대에 시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유명관광지, 공항, 호텔 등에서 여권, 현금 등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유리창 파손 후 절취

- 주차 중인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물건을 절취하는 사건이 월평균 250건 이상 빈발하고 있다.

[대책]

- 차량은 항상 대로변의 밝은 곳에 주차한다.
- 귀중품은 트렁크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현지 치안 상황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부(Civic Center)와 인근 지역(Mission, Haight/Ashbury, Potrero Hill, Hunter's Point, Sunnysdale)은 주간에도 주의해야 하는 위험지역이다. 또한 인근 도시인 오�클랜드 시내에서는 야간 외출을 삼간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 버스(Muni Bus) : 24시간 운행하며, 노선지도를 구입하여 운행 경로를 확인해 둔다.
- 지하철(Muni Metro) : 7개 노선이 있으며, 승차 전에 행선지 확인을 꼭 해야 한다.
- 고속전철(BART) : 샌프란시스코와 이스트 베이 연결 교통수단으로서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 택시 : Yellow Cab(415-333-3333), Luxor Cab(415-282-4141), Arrow Cab(415-648-3181), DeSoto Cab(415-970-1300) 등이 운영되고 있다.
 - ※ 기본요금(0.2마일)은 \$3이며 이후 0.2마일당 \$0.45씩 추가된다.

도로교통

- 도로 사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최근 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일부 도로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와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다. 국제면허는 번역본으로만 인정한다.



기후와 자연재해

기후

- 연중 5~25°C 정도의 온화한 기후이긴 하지만 아침·저녁의 기온차가 심한 편이다. 여름에도 저녁에 외출할 경우에는 두꺼운 옷을 준비해야 한다.

자연재해

- 지진 재발 가능성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 샌프란시스코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로서 다양각색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특이한 풍습, 관습도 관대하게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인종이나 성 관련 지나친 농담은 삼가는 것이 좋다.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8년부터 사업장, 식당은 물론 술집에서도 금연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17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동승한 차량에서 흡연할 경우 \$1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3500 Clay st., San Francisco, CA 94118
- 전화 : (1-415) 921-2251
- 팩스 : (1-415) 921-5946



긴급 영사 연락망

- 홈페이지 : <http://usa-sanfrancisco.mofat.go.kr>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영사협력원 연락처

- 콜로라도주 영사협력원 이현주(Alex M. Lee) 연락처
 - 전화 : (1-303) 695-8404 / 팩스 : (1-303) 337-3402
 - E-mail : Alex@ColoradoLawOffice.us
- 입국심사 시 이민담당관의 입국 목적 관련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야 한다. 취득한 비자 종류와 다른 입국 목적을 언급하면 입국이 불가능하다.
- 출국 수속은 항공사가 대행하고 있어 별도의 이민국 출국 절차는 없으며, 입국 시 작성한 I-94 카드를 출국 항공편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병원 치료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사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 약국에서 간단한 감기약 정도는 구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 화재, 경찰, 구급차 : 911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 (1-415) 553-8090
- General Hospital : (1-415) 821-8200

팁 제도

- 소정의 팁을 주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통상 구입 가격의 10~15%를 지급하면 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7시간(서머타임 기간인 4월 첫째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토요일 중에는 -16시간 차이)

전력 사용 현황

- 110V / 60Hz



출입국 시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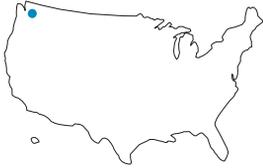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시차 한국보다 17시간 느림
화폐단위 USD \$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usa-seattle.mofat.go.kr>
시애틀시정부 홈페이지 www.cityofseattle.net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시애틀 지역은 전반적으로 치안 상태가 양호한 지역이나,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 야간시간대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서 총기사고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미국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범죄 피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시애틀 다운타운 우범지역에서 신분증, 소지품 도난 및 폭행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가급적 야간에는 출입을 삼간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

- 교통사고, 살인, 강도, 납치 시도 등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책]

- 전화로 911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코리언(Korean)이라고 말하면 한국어 통역을 해 준다.

[사례 2] 여행객의 안전사고

- 최근 들어 골프장 연못에서 실족사하거나 해안가에서 낚시 도중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지
치안 상황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책]

- 낯선 곳에서는 위험한 행동을 삼간다.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있는 곳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다운타운 피어니어 광장(Pioneer Square)과 레이니어가(Rainier Avenue) 인근은 노숙자 및 부랑자들이 모여들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야간에 이 지역 방문은 피한다.

대중교통

● 버스

- 인근 주변 도시들과 시애틀 다운타운 간 버스노선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대략 30분에 1대꼴로 운행되고 있다.
- 요금은 거리별 1구역은 \$1,750이고 2구역은 \$2,250이다.
- 다운타운 내에서는 무임승차(Bus Stop 사인에 표시되어 있음)가 가능하다.

● 지하철

- 시애틀에는 지하철이 없다.

● 택시

- 한국과 달리 도로상에서 택시를 잡는 것은 다운타운 내 호텔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며, 전화로 시간과 장소를 사전 예약해야 한다.
- 기본요금은 \$2,250이고 시애틀 공항과 다운타운 간 요금은 약 \$35이다.

● Street Car

- 다운타운 내 Lake Union역과 Pacific Place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차로서 약 1.6마일을 운행하며 요금은 \$1,750이다.

도로교통

- 남북으로 뻗은 I-5와 동서로 연결된 고속도로(I-90) 외 주요 간선도로(520, 99) 등이 시애틀 외곽지역과 다운타운을 연결하고 있다.
-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고 시애틀 외곽 20km 지점에서 다운타운까지는 약 25~30분 정도 소요된다.
- 다운타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으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간혹 볼 수 있다.

기후

- 태평양에 접한 올림피아(Olympia) 반도와 푸젯사운드(Puget Sound) 내해에 접해 있는 해양성 기후이다.
- 여름은 평균기온이 21°C이며, 거의 비가 오지 않는 화창한 날씨가 지속된다.
- 겨울은 평균기온이 5°C이며 눈은 거의 오지 않고 강우량이 많아 수목이 울창



기후와 자연재해

하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2006년 12월에는 기온이 영하 6°C대로 급강하하고,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다.

자연재해

- 겨울철에는 강풍으로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전기선을 끊어 정전이 되는 경우가 지역에 따라 연평균 2~3회씩 발생한다.
- 시애틀은 제설대책 및 제설장비가 미비해 기온이 내려가고 눈이 많이 내릴 경우에 도로교통이 마비된다.
- 1980년 시애틀에서 160마일(256km) 남쪽에 위치한 세인트헬렌스산의 화산 폭발로 시애틀 인근 지역까지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에 다시 화산활동 재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 문화 외 특별한 현지 관습은 없다.
- 워싱턴주는 다른 주와 비교할 때 가정폭력에 대해 엄격한 법령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방문객들도 현지에서 부인 및 자녀 폭행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 사창가는 없으나 간혹 도로상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춘행위를 단속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량 편승을 원하는 여자의 요청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 2033 6th Ave, Seattle, WA 98121
- 전화 : (1-206) 441-1011/4
- 사건 사고용 비상전화 : (1-866) 788-0404
- 팩스 : (1-206) 441-7912
- E-mail : koreanconsulate@yahoo.com
- 홈페이지 : <http://usa-seattle.mofat.go.kr>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8:30~16:30

비자

- 입국할 때에는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 비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 그 종류와 구비서류가 달라지며 상세한 사항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http://usembassy.state.gov>)를 참조한다.
- 전화 : 02-397-4114

입국 시 유의사항

- 입국할 때는 체류 주소 및 전화번호를 필히 숙지하고, 호텔 체류자는 예약된



긴급 영사
연락망



출입국 시
유의 사항

호텔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9·11 테러 이후 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2004년 1월 5일부터는 US-Visit 프로그램에 의해 공항에서 양손 지문을 채취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동공)을 촬영한다.
- 입국할 때 이민국 심사대에서 받은 체류허가증(I-94 Form)을 분실하면 출국 후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으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고 I-94 Form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 미화 \$10,000 이상 휴대한 경우 반드시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기재,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미화를 반출하다 세관당국에 적발될 경우 회수당할 수 있다.
- 모든 농·축산물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가루제품(인삼, 메춧가루 등)은 마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의료시설 및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으나, 진료비가 매우 비싸고 의료보험 가입 시 의무 대기 기간(대부분 6~9개월)이 있어 가능하면 출국 전 치료 및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한인병원이 많다.
 - 김항식 내과 : (1-206) 533-6181 (1207 N. 200th St. #202, Seattle)
 - 백기완 의원원 : (1-206) 365-4533 (1570 115th St. #16, N, Seattle)
 - 성심의료원(내과) : (1-206) 542-7606 (1306 N. 175th St. #113, Seattle)
 - 이순명 치과 : (1-206) 364-7737 (15013 Aurora Ave. N, Seattle)
 - 흥인표 신경정신과 : (1-206) 587-5747 (901 Boren Ave. #707, Seattle)
- 보험이 없는 경우 의료비용은 한국과 비교할 때 상상을 초월한다.
 - Clinic 일반진료(감기, 몸살 등) : 약 \$200
 - MRI 촬영 : 약 \$2,000
 - 응급실(간단한 치료) : 약 \$500~\$700
 - 치아를 뽑는 경우 : \$100
 - 치과 신경치료 : 약 \$1,000
 - 치과 크라운 : 약 \$1,000



기타 참고사항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모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911에 연락한다.
- 응급의료센터
 - Swedish Hospital : (1-206) 386-6000 (801 Broadway, Seattle)
 - Northwest Hospital : (1-206) 364-0500 (1550 N. 115th, Seattle)
 - Children's Hospital : (1-206) 987-2000 (4800 Sandpoint Way NE, Seattle)

차량 수리

- 오로라 빌리지 오토케어 : (1-206) 542-1250 (20409 Aurora Ave N, Seattle)
- 원스탑 그린우드 종합정비센터 :
(1-206) 706-2778 (8208 Greenwood Ave N, Seattle)

팁 제도

- 식당에서는 음식 값의 15% 정도를 팁으로 지불하는데 뷔페 식당이라면 10% 정도 지불하면 된다. 10명 이상이 고급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18%를 팁으로 계산서에 포함해서 청구하기도 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7시간(여름에는 서머타임제로 대략 4월부터 10월까지 -16시간)

전력사용 현황

- 110V / 50HZ

시애틀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 주시애틀총영사관 : <http://usa-seattle.mofat.go.kr>
- 미국 주요기관
 - 백악관 : <http://www.whitehouse.gov>
 - 국무부 : <http://www.state.gov>
 - 무역대표부 : <http://www.ustr.gov>
 - 상무부 : <http://www.commerce.gov>
 - 워싱턴주 주정부 : <http://www.access.wa.gov>
 - 오레곤주 주정부 : <http://www.oregon.gov>
 - 아이다호주 주정부 : <http://www.state.id.us>
 - 몬타나주 주정부 : <http://www.mt.us>
 - 알래스카주 주정부 : <http://www.state.ak.us>



미국 | 시카고



시차 한국보다 15시간 느림
화폐단위 USD \$
총영사관 홈페이지 www.chicagoconsulate.org
시카고시정부 홈페이지 <http://egov.cityofchicago.org>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전쟁, 내란의 위협은 거의 없다. 1995년 미국 도시 최초로 테러, 마피아 범죄 및 자연재해 등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센터를 설치했으며, 현재 2천여 대 이상의 무인 카메라를 통해 도시 곳곳을 통제하고 있으며 시정부와의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9·11테러 발생 이후 공항에서의 보안 검색이 한층 강화되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1991년 이후 범죄 발생률이 감소 추세이며, 마피아에 대항하여 경찰력을 강화시킨 관계로 현재 미국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전반적인 치안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갱, 마약범죄 등 불안요인이 잔존해 있다.
- 시내 중심가는 치안 상태가 양호하여 안전한 편이나 대로변을 벗어난 뒷골목 및 외곽지대에서는 간혹 소매치기, 절도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시카고에 갓 도착한 한국 유학생이 심야에 대학기숙사 외각의 우범지대를 신분증도 없이 산책을 나갔다가 마약 거래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례가 있다.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학생상담실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아둔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공공장소에서의 소매치기

-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유 없이 사람을 툭 치면서 소매치기를 하거나, 영화



현지 치안 상황

관이나 식당에서 옆자리에 놓아둔 핸드백을 훔쳐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대책]

- 쇼핑을 많이 할 경우 핸드백을 집에 두고 돈, 열쇠, 신용카드를 가급적 속 안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다.
- 영화관에서는 출구가 가까운 자리에 앉고 어두운 구석 자리는 피한다.
-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낯선 사람을 조심하고, 핸드백을 옆자리에 놓지 말고 무릎 위에 놓아둔다. 대화 중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절대 밝히지 않는다.
- 산책을 할 경우 산책로를 미리 파악하고 가능한 한 밝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닌다. 차로 따라오는 경우 반대방향으로 달려간다.
- 밤에 행동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호루라기나 호신용 경보기 등을 소지한다. 자주 다니는 지역 주변의 경찰서와 병원 소재지를 미리 파악해 둔다.
- 버스나 기차를 기다릴 때 어두운 곳은 피하고 승객들이 많은 곳에서 탄다. 가급적 안쪽 좌석에 앉지 말고 복도 쪽 좌석에 앉는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한인 거주지역인 시카고 북부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시카고 남부지역(30번가~140번가)은 강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조심한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1) 전철

- 다운타운에는 고가전철이 달리고 있으며, 동 고가전철에 둘러싸인 동서 5블록, 남북 7블록, 바깥쪽 주위를 포함한 다운타운 일대를 루프(Loop)라고 부른다. 각 전철 노선은 다음과 같다.
 - Blue Line : O'Hare Airport – Forest Park
 - Red Line : Howard – 95th/Dan Ryan
 - Green Line : Harlem/Lake – Ashland/63rd or Cottage Grove
 - Brown : Kimball – Downtown
 - Orange Line : Midway Airport & Downtown
 - Pink Line : 54th/Cermak – Downtown
 - Purple Line : Howard – Downtown
 - 요금은 트랜짓 카드(Transit Card)와 현금 모두 \$20이다.
 - 교통 패스는 30일 Pass \$75, 7일 Pass \$20, 5일 Pass \$18, 1일 Pass \$5이다.
- ※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transitchicago.com>을 참고한다.

2) 버스

- 버스 노선은 약 200개 정도로 동서, 남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노선이 비교적 단순하다.
- 요금은 트랜짓 카드가 \$1,750이고 현금은 \$20이다.
- 급행(Express)이라고 쓰인 노선은 도중에 정차하지 않는 구간이 있으므로 유의한다.

※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transitchicago.com>을 참고한다.

3) 택시

- 호텔 주변이나 시카고 시내에서의 택시 이용은 쉽지만 교외로 나갈 경우 택시 잡기가 어려우므로 출발 전에 미리 택시를 부른다.
- 시내에서 한인타운(Lawrence)까지는 35분 소요에 \$20 정도 나오며 팁 10%는 별도이다.
- 기본요금은 \$2.25, 1마일당 \$1.8가 추가된다.

4) 철도

-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 암트랙(Amtrak)을 이용하면 된다.
 - 메트라(Metra)는 다운타운과 교외의 주택지를 연결하는 근거리 열차로 시카고 근교에 사는 비즈니스맨의 통근 열차이다. 하이드 파크로 연결되는 ME노선, 오크파크로의 CNW-N 노선은 여행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amtrak.com> 및 <http://www.metrarail.com>을 참고한다.

도로교통

- 1871년 대화재 이후 바둑판 모양으로 정비되어 길 찾기도 쉽고 도로도 양호한 편이다.
- 시카고 시내에는 일방통행로가 많으므로 주행할 때 'One Way' 사인에 주의해야 하고 모든 'Stop' 사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해야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되나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
- 법적 운전가능 연령은 만 16세이며, 자동차 대여는 만 25세부터 가능하다.

기후

- 시카고는 'Windy City' 라 불릴 정도로 연중 바람이 강한 것으로 유명한데, 겨울은 매우 춥고 여름은 날씨가 좋은 편이다. 심한 대륙성기후로 서울과 유사하나 미시간 호수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고, 겨울이 길며 눈이 많이 내린다.

자연재해

- 시카고는 태풍, 폭우, 가뭄 등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주재국 국민성, 인사 방법 등 현지 특유의 참고사항은 없다.
- 몸을 건드리고 닿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부딪히면 "Excuse me" 나 "Sorry" 라고 말해야 한다.
-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중서부 지역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띤다.
- 흑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약 36%가 흑인이다.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NBC Tower Suite 2700 455 North City front Plaza Drive Chicago, Illinois 60611
- 전화 : (1-312) 822-9485
- 당직 전화 : (1-312) 371-9239
- 팩스 : 대표 (1-312) 822-9849 / 민원실 (1-312) 822-0413
- E-mail : chicago@mofat.go.kr
- 홈페이지 : <http://www.chicagoconsulate.org>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 여권, 비자 등 민원 접수시간 : 09:30~16:30

영사협력원 연락처

- 영사콜센터 : 800-2100-0404 / 822-3210-040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1-312) 644-4323
- 한국관광공사 : (1-312) 981-1717
- 중소기업진흥공단 : (1-847) 699-0180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주한미국대사관 또는 거주지 관할 미국공관에서 방미 목적에 맞는 사증을 사전에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 입국할 때 발급되는 흰색 출입국카드(I-94)는 출국할 때 제출해야 하므로 여권과 함께 보관한다.
- 전염병 예방접종은 필요 없다.
- 통관
 - 면세제품은 술 1리터, 담배 200개비(10갑), 시가 50개, 파이프 담배 250g, 향수는 2온스 이내 등이다.
 - 동식물, 과일, 채소, 총기, 마약류, 도검 등은 반입 금지이다.
 - 말린 어포류, 김, 고추장, 된장, 김치, 젓갈류는 신고만 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총액이 \$1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 항공사 정보
 - 대한항공 : 예약 (1-800) 438-5000, 공항 (1-773) 686-2730
 - 아시아나항공 : 예약 (1-800) 227-4262, 공항 (1-773) 462-9087

- 치과 치료비가 매우 비싸므로 한국에서 미리 치료를 받고 출발한다.
- 한국 의사가 많아 언어 소통에 불편함은 없다.
- 기본적인 의약품(감기약, 두통해열제, 비타민, 영양제 등)은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이외에는 대부분 처방전이 필요하며, 조제약은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범죄, 화재, 긴급 환자 발생 : 911

차량 수리

- 각 견인차 회사에 연락한 후 각 정비소에서 수리하면 된다.
- 견인차 회사 : New Chicago Towing : (1-312) 623-5504

팁 제도

- 일반적으로 15~20% 팁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 식당 이외에 이·미용원,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도 지불한다.
 - 호텔 포터에게는 짐 1개당 \$1 정도면 적절하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5시간(서머타임인 3월에서 10월 중에는 -14시간)
- 시카고는 미국 중부 표준시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뉴욕(동부 표준시간)보다 1시간 늦고, 로스앤젤레스(서부 표준시간)보다 2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110V / 60Hz
- 한국 전자제품은 110V를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며, 220V 제품인 경우 현지에서 구입하기 어려우므로 승압기와 110V용 플러그 어댑터를 함께 가져와야 한다.

시카고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시카고시 웹사이트 : <http://www.cityofchicago.org>
- 시카고 여행 가이드 위키드래블 : <http://www.wikitravel.org>
- 시카고 한인회 : <http://www.koreachicago.org>

연령 제한

- 법적 흡연 허용 연령은 만 18세, 음주 및 도박 허용 연령은 만 21세이며, 담배나 주류를 구입할 때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나 여권을 요구한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미국 | 애틀랜타



시차 한국보다 14시간 느림
 화폐단위 USD \$
 총영사관 홈페이지 www.koreanconsul.org
 애틀랜타시정부 홈페이지 www.atlantaga.gov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애틀랜타와 마이애미 지역은 아직 대규모 테러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었으나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애틀랜타의 도심 공원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미국 지역 어디서나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 범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애틀랜타나 마이애미의 경우 대도시이자 강력 범죄의 발생 비율도 매우 높은 지역이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한인 여성 M씨는 둘루스의 대형 식품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나왔는데 차에 있던 \$40,000의 현금을 도난당했다.
- 한인 남성 L씨는 둘루스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공사대금으로 차량에 두고 온 \$18,000가 사라졌다.
- 한인 남성 K씨는 둘루스의 한 식당에 약 10분 정도 일을 보고 자동차로 돌아와 보니 차 유리창이 깨져 있었으며 카메라와 랩톱을 도난당했다.
- 폴튼 카운티 존스크릭 지역의 한 고급 주택에 무장 강도가 침입, 일가족을 총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하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현지
치안 상황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 방문 판매원, 학교 갈 시간인데도 밖에서 서성대는 청소년들, 낯선 사람들이 대낮에 가구 등을 트럭에 실을 때, 전자제품 수리공이나 공무원 또는 경찰을 사칭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등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 많다.

[대책]

- 치안 상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나 5분 내에 경찰이 출동할 수 있으므로 911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저녁시간대 도심지의 어두운 곳, 흑인 밀집지역, 주위로부터 격리된 장소 등은 범죄 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출입을 삼간다.

애틀랜타의 대중교통 및 도로교통

- 출퇴근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애틀랜타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곳곳에 교통체증이 심하다.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89만 명이 애틀랜타로 이주, 인구가 5백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정책이 인구증가 속도를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 지하철, 버스

- 전철 운행 구간은 현재 애틀랜타 중심에서 동서남북 약 10마일 정도가 연결되어 있다. 다운타운 Five Points역에서 환승할 수 있고, 북쪽 라인은 Lindbergh Center에서 북동쪽 라인으로 나누어진다.
- 북쪽 라인 종단역은 North Springs, 북동쪽 라인 종단역은 Doraville, 남쪽 라인 종단역은 애틀랜타 Heart Fields Jackson Airport, 동쪽 라인 종단역은 Indian Creek, 서쪽 라인 종단역은 H.E. Holmes이다.
- 메트로는 애틀랜타로부터 약 10마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Fulton and Dekalb counties)을 운행하고 있다.
- 운행시간 및 요금
 - 지하철 : 월요일~금요일(05:00~01:00), 주말 · 공휴일(05:00~00:30)
 - 버스 : 월요일~금요일(05:00~01:30), 주말 · 공휴일(05:00~00:30)
 - 요금 : 편도 \$1.75(6세 이하 무료), 10회권 \$17.5, 7일 이용권(7일 동안 횡수 제한 없음) \$13, 30일 이용권(30일 동안 횡수 제한 없음) \$52.5, Multi-Day Visitor Pass(1~4일 동안 제한 없음) \$8~\$12

● 택시

- 기본요금이 \$2.5이고 0.125마일당 \$0.25씩 추가된다.

● 하츠필드 애틀랜타 국제공항

- 애틀랜타에서 10마일 남쪽에 위치하며 메트로 전철로 직접 비행장(s7)까지 연결되어 있다.
- 전화 : (1-404) 530-6600 / 팩스 : (1-404) 530-6803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대중교통 및 도로교통

- 7개 노선을 운행하는 600여 대가 넘는 메트로버스(Metrobuses), 빠른 운송 수단으로 21마일에 걸쳐서 운행되는 메트로레일(Metrorail), 철도 시스템인 메트로무버(Metromover)로 구성되어 있다.

- Government Center Station
 - 주소 : 111 N.W. 1st St., Miami 33128
 - 전화 : (1-305) 654-6586 / 노선 문의 : (1-305) 375-5771

● 메트로버스(Metrobus)

- 다운타운의 버스터미널이 버스 노선의 출발점이며, 버스 로고, 노선도 함께 파란색과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 일정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미리 시간표를 정부센터역에서 구해 놓는 것이 좋다. 요금은 현금 말고도 토큰이나 메트로패스도 사용할 수 있다. 지폐를 사용하면 거스름돈이 따로 나오지 않으니 미리 잔돈을 준비해 둔다.
- 주소 : Miami-Dade Transit Agency Miami, FL 33166
- 전화 : (1-305) 891-3131 / 운행 : 월~금요일 04:30~02:00
- 요금 : 일반 \$1.25, 익스프레스 버스 \$1.5, 환승 25¢ 추가, 학생과 노약자 60¢, 환승 10¢

● 메트로무버(Metromover)

- 다운타운을 순환하는 모노레일로 다운타운을 한 번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다운타운 전체를 크게 둘러보기가 편해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한다.
- 주요 호텔, 오피스빌딩, 쇼핑지 등 마이애미 다운타운을 순환하는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총 1.9마일에서 4.4마일에 걸쳐 뻗어 있다. 여기에는 북쪽으로 6개 정거장이 포함된 옴니(Omni) 연장선 1.4마일과 남쪽까지 6개 정거장이 포함된 1.1마일 브릭켈(Brickell) 연장선 등도 포함되어 있다. 보통 3분 간격으로 출발하지만 러시아워에는 1분 30초 간격으로 출발한다.
- 주소 : Miami-Dade Transit Agency Miami, FL 33166
- 전화 : (1-305) 884-7560 / 운행 : 매일 06:00~24:00
- 요금 : 일반 25¢, 환승 \$1 추가

● 메트로레일(Metrorail)

- 주로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이는 전차로 다운타운 북쪽에서 히알리(Hialeah)까지, U.S. 1번을 따라 남쪽에서 데이드랜드(Dadeland)까지 운행하고 있어 관광에도 유용하다.
- 비스카야 정원, 코코넛 그로브에 갈 때도 이용할 수 있으며, 러시아워에는 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매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메트로버스로 갈아탈 때는 25¢, 메트로무버로 갈아탈 때는 무료이며, 메트로무버는 정부 센터역이나 브릭켈역에서 갈아탈 수 있다.
- 주소 : Miami-Dade Transit Authority Miami, FL 33166
- 전화 : (1-305) 638-6700 / 운행 : 매일 06:00~24:00
- 요금 : 일반 \$1.25, 환승 25¢, 한 달권 \$60(기차, 버스와 환승 가능)



기후와 자연재해

애틀랜타 기후

- 봄부터 여름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린다. 여름은 꽤 무덥고 겨울은 심한 추위는 없으나 가끔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있다. 애틀랜타의 연평균 기온은 16.2℃, 연강수량은 1,234.7mm로 많은 편이다.

마이애미 플로리다 기후

- 연평균 기온은 약 24℃로 한겨울에도 최저 기온이 1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아열대성 기후이다. 여름은 매우 덥고 습하며 때때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이다.

자연재해

- 마이애미 지역은 해변에 위치하고 있어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애틀랜타 지역은 가끔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08년 3월에는 토네이도가 애틀랜타 도심을 강타하여 CNN 건물, 도심 내 호텔 등의 지붕과 유리창이 파손되고, 조지아주 남서부 지역 주민 6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 인형처럼 생긴 미국 애들이 귀엽게 보인다고 마음대로 만지거나 쓰다듬으면 안 된다. 어린이를 만져보려면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미국인에게 너무 가까이서 친절한 것은 동성연애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동성 간에는 스킨십을 피해야 한다.
- 다른 사람 앞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것은 미국에서 실례이므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Excuse me"라고 말한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229 Peachtree St., Suite 5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 전화 : (1-404) 522-1611~3 / 팩스 : (1-404) 521-3169
- E-mail : atlanta@mofat.go.kr / 홈페이지 : <http://www.koreanconsul.org>
- 긴급 민원 : (1-404) 964-1177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7:00(점심시간 12:00~13:30)
- 여행 경비는 1인당 \$10,000이며 가족 동반인 경우 한 사람이 경비를 모아서 들어올 경우 입수당하므로 각각 나누어 소지하고 신고서에도 정확하게 개별로 기재해야 한다.
- 가족의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은 모두가 동일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 각종 범죄, 화재 발생, 긴급 의료지원 및 모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911에 연락하면 경찰 및 소방대원들이 5~1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한다.
- 경찰서, 소방서, 구급차 : 911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U.S. 연방 보안관 : (1-404) 331-6111 / 연방수사국(FBI) : (1-404) 679-9000

차량 수리

- 자동차 딜러를 통해 새 차를 구입할 경우 3~5년 동안 딜러에서 일체의 수리 및 정비를 담당해 주는 제품 보증기간(Warranty)을 잘 이용한다.
- 열쇠를 두고 차를 잠근 경우 각종 자물쇠를 열어 주는 전문 회사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전화로 연락하면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285 하이웨이 안쪽은 (1-404) 525-4500, I-285 하이웨이 바깥쪽은 (1-770) 339-1616으로 연락하면 된다.
- AAA에 가입한 경우, 신속하게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팁 제도

- 팁은 소비한 비용의 10%, 풀서비스를 해 주는 식당의 경우 점심식사는 10~15%, 저녁식사는 20%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택시를 이용할 때도 10~15%, 호텔에서는 객실 관리원을 위해서 \$1~\$2를 지불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4시간(서머타임 실시 기간엔 서울보다 -13시간)



긴급 영사
연락망



출입국 시
유의 사항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시차 한국보다 19시간 느림
화폐단위 USD \$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usa-honolulu.mofat.go.kr>
호놀룰루시정부 홈페이지 <http://www.co.honolulu,hi.us>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하와이는 세계적 휴양 관광지로서 전쟁, 내란, 테러 등의 위험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으나 지진, 화산 폭발, 태풍 등의 천재지변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6년 10월 빅아일랜드 지역에서 강도 6.8의 지진이 발생했고 2008년 3월에는 화산 폭발로 인해 할레마우마우 화산공원이 임시 폐쇄됐다가 재개장하기도 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비교적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난·절도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한국인 신혼부부가 카일루아 해변에서 여권 및 현금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해변에 놓아둔 채 해수욕을 즐기던 도중 2인조 불량배가 가방을 탈취하여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 와이키키 해변 상점가에서 쇼핑을 하던 일본인 여성 관광객에게 일본어를 구사하는 미국 중년 남성이 접근,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겠다고 유혹하여 금품을 강탈하고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해변에서의 휴대품 절도

- 와이키키 해변, 하나우마 베이, 노스쇼어, 카일루아 해변 등 인기 관광지에서 인



현지 치안 상황

근 불량배들이 해변에 놓아둔 휴대품을 훔쳐 도망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책]

- 해변에 휴대품을 그냥 놓고 물에 들어가지 말고 동반자 중 한 사람이 휴대품 감시를 위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 안전하다.

[사례 2] 물놀이 도중 익사사고

- 수영에 익숙지 못한 관광객이 무리하게 안전구역을 벗어나 해양스포츠를 즐기다 불의의 익사사고를 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대책]

-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들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물놀이를 해야 한다.
- 하나우마 베이 등 유명 관광지에서는 안전수칙 DVD를 시청한 방문객에게만 입장을 허용한다.

대중교통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 버스

- 하와이의 가장 대중적인 버스 시스템인 '더버스(TheBus)'는 시내 각 방면으로 촘촘한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 편리하다.
- 요금은 \$2이며 오전 5시 30분에서 저녁 10시까지 운행한다.
- 버스 번호 1~21번은 호놀룰루 중심부를, 50~58번은 다운타운을 거쳐 호놀룰루 교외지역까지 연장 운행한다. 동일 행선지라도 버스 노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타야 한다(24시간 안내 전화 : (1-808) 848-5555).

● 트롤리

- 전차 모양을 한 트롤리는 오아후섬의 주요 관광지 및 쇼핑센터 등을 안내한다.
- 노선은 10개이며 빨간색 트롤리는 관광지, 노란색 트롤리는 쇼핑센터와 레스토랑, 파란색 트롤리는 바닷가 명소로 각각 다닌다.
- 1회 승차 요금은 \$1이며 운행 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50분까지로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패스 티켓(성인 \$20 / 4~11세 \$10)이 있으면 횡수에 관계없이 탈 수 있다.

● 택시

- 콜택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택시를 부르면 5~10분 내에 호놀룰루 어디에나 도착한다.
- 한국인 택시 회사 : 포니택시 (1-808) 944-8282 / 로얄택시 (1-808) 946-8282

● 렌터카

- 차를 빌리려면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에서 쓰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필요하다.
- 사고를 대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두면 좋다. 요금제 중에 보험이 포함된 패키지가 있으므로 예약할 때 참고한다.

도로교통

- 하와이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으며 우측통행한다. 과속 단속이 매우 엄격한 편이다.
- 스쿨버스가 정차했을 때 후속하던 차, 맞은편에서 오던 차는 모두 정차해야 한다.
- 렌터카가 진입할 수 없거나 4륜구동차만 진입 가능한 도로도 있다.
- 호놀룰루, 특히 와이키키 주변에는 주차 단속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주차 미터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주차는 금물이다.
- 한국운전면허증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지역이지만, 현지 경찰과 면허증의 진위 여부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운전면허증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운전면허증의 영문 번역본을 소지해야 한다.

기후

- 아열대 섬인 하와이는 일 년 내내 우리나라의 초여름과 비슷한 날씨를 보인다.
- 5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 그리고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겨울이지만 두 계절의 기온 차이는 4~5°C 정도이다. 가장 시원한 2월의 평균 기온은 22°C, 여름의 경우 27°C 정도이다.
- 호놀룰루 시내의 연간 강수량은 584mm로 적은 편이며, 저녁에 가끔 스콜이 내린다. 북부 산간지대는 강수량이 4,699mm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

자연재해

- 하와이는 태풍, 폭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지진,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는 가끔 발생한다.
- 연중 날씨가 맑은 하와이에서는 캐주얼하고 간단한 여름옷 차림이면 무난하다.
- 하와이에서 21세 미만의 음주는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술을 구입할 때나 바, 나이트클럽 등에서 술을 마실 때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명기된 신분증(아이디)을 지참해야 한다. 하와이는 해변에서 캔맥주를 마시는 행위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편리하게 되어 있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다.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지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2756 Pali Hwy Honolulu, HI 96817 U.S.A.
- 전화 : (1-808) 595-6109, 6274 / 팩스 : (1-808) 595-3046
- E-mail : consulatehi@mofat.go.kr / 홈페이지 : <http://usa-honolulu.mofat.go.kr>

근무 시간

- 월요일~금요일 / 08:30~16:30
- 긴급 시 영사 연락처
- 여권 담당 : (1-808) 291-1774 / 사건·사고 담당 : (1-808) 282-8453



출입국 시 유의 사항

입국심사

- 미국인이 아닌 일반 관광객 심사대는 왼쪽,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심사대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입국심사 창구에 여권, 항공권, I-94 입출국 카드(입국카드와 출국카드 2매), 세관신고서를 제출한다.
- 돌아갈 비행기표를 보자고 할 수도 있다. 입국심사는 대개 1~2분이면 끝나며 영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짐이 없어졌을 경우 항공사 직원에게 클레임 태그(claim tag)를 보이고 도움을 요청한다.
- **세관신고서 작성**
 - 세관신고서 앞면의 신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지만 뒷면의 경우 개인 물품은 생략해도 되고 선물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 물건들은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기 물품 이외의 기념품이나 선물 - 선물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10,000를 초과하는 현금 및 여행자 수표 <p>※ 신고한다고 해서 과세 등 불이익은 전혀 없으나 만일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하다 적발될 경우 압수, 벌금부과 등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p>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물품, 보석, 화장품, 책, 카메라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 1인당 양주 한 병(1리터 상당), 권련 200개비, 여승연 50개비, 기타 담배 50s(단,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경우는 단속의 대상이 됨), 1리터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리터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구입 가격에 대해 과세한다. - 100달러 미만의 기념품이나 선물 - 향수 2온스 미만
반입 금지 품목	<p>미술품 / 자동차 트레이드마크와 사용자 저작권이 붙은 품목 / 도자기 / 개와 고양이 털, 애완동물 / 마약 및 관련도구 / 무기 / 어류 및 야생동물 / 경기 및 사냥 트로피 / 육류, 목축류, 조류 / 과일 및 야채류(특히 썩) / 식물(뿌리가 붙어 있는 것) / 금 / 약품 / 금지국가에서 들어오는 인스턴트 라면이나 유랑스낵</p> <p>※ 모든 동물이 모두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호놀룰루 국제공항의 검역 절차를 거치면 웬만한 동물은 반입이 가능하다. 특히 맹인안내견과 보호견의 경우 조건에 합당할 경우 별도의 검역절차 없이 입국 가능하다.</p>

출국심사

- 공항 로비에 있는 항공사 카운터에서 항공권과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 카드와 여객기 탑승권(boarding pass)을 받는다. 그런 다음 짐을 맡기고 클레임 태그를 받는다.
- 수하물 검사
체크인을 마치면 수하물 검사를 받는다.

하와이 의료 시설

- 하와이의 의료 여건은 미국 내에서도 매우 우수한 편이다. 퀸스 메디컬 센터는 하와이 최대의 사립병원으로 호놀룰루 다운타운에 자리 잡고 있다.
- 퀸스 메디컬 센터 : (1-808) 538-9011
- 와이키키 긴급치료 클리닉 : (1-808) 597-2860

한국인 의사가 있는 병원

- 대부분의 병원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문을 닫으므로 이후에는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현지 보험이 없는 경우 병원비가 매우 비싸다.
- 종합 의료원(강영신 의학 박사) : (1-808) 955-7117
- 치과(옥순남 치의학 박사) : (1-808) 946-2875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화재, 구급차 : 911
- 해안경비대 : (1-808) 536-4336(해상 조난, 실종 신고)
- 알로하 소사이어티(여행 도중 사고를 당한 관광객을 도와주는 자선봉사 단체) : (1-808) 926-8274

차량 수리(한인업소)

- 오성자동차 : (1-808) 841-2442 / 하이텍자동차종합정비 : (1-808) 843-0848
- 리스자동차수리센터 : (1-808) 597-8857

팁 제도

- 레스토랑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당에서의 팁은 계산서의 15% 정도이다.
- 호텔에서 도어맨 또는 청소원에 대한 팁은 \$1~2이다.
- 택시의 경우는 10% 정도 지불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9시간, 서머타임은 없다.

전력 사용 현황

- 120V / 60HZ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소요시간 15시간
시차 한국보다 15시간 느림
화폐단위 USD \$
총영사관 홈페이지 www.koreahouston.org
휴스턴시정부 홈페이지 <http://www.houstontx.gov>



현지 치안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9·11테러를 겪은 미국 사회는 휴스턴을 포함한 미국 주요 도시에 항상 테러 재발의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한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텍사스는 국경과 가까이 위치하여 이민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휴스턴을 비롯한 텍사스 지역의 강력 범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 작은 규모의 절도 등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살인 등은 매해 5% 증가하고 있다.
- 텍사스 전체의 강력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방법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루이지애나에서 미용 재료상을 운영하던 한인이 10대 3인조 권총 강도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휴스턴에서 식품점을 경영하던 한인이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한국 유학생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와 채팅한 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 교환학생으로 일반 가정에 하숙하던 한국 여학생이 집주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집주인의 협박으로 신고하지 못하던 중 이를 알게 된 친구가 경찰에 고발하여 집주인이 체포되었다.
- 휴스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한인이 주행 중이던 차에 치어 사망했고 2005년 12월 23일 오클라호마 교외 고속도로변을 보행 중이던 한인이 차에 치어 사망하



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운전할 때 주의할 사항

- 텍사스의 인구 증가에 따른 계속된 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접촉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다. 운전 매너도 좋지 않은 편이다.

[대책]

- 방어운전 및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다.
- 작은 다툼이 큰 총기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조건 양보한다.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어 두고, 가급적 불리한 증언은 피하고 경찰과 불필요한 충돌은 피한다.
- 텍사스 지역은 무보험 차량의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보험을 가입할 때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둔다.

[사례 2] 총기 사용

- 텍사스는 다른 주에 비해 총기 사용의 빈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사소한 시비에도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운전 중 다른 차가 추월하게 되면 다툼이 발생하여 총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책]

- 되도록이면 다른 차를 무리하게 추월하지 말고 상대방의 시비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례 3] 쇼핑물에서 빈번한 사례

- 쇼핑 후 쇼핑카트를 제자리에 놓지 않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훼손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대책]

- 대부분의 쇼핑물에는 CCTV가 작동 중이므로 사고나 오해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관계자에게 당당히 대처하면 된다.
- 큰소리로 대응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자칫 위협감을 주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한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1) 휴스턴

● 시내버스(Houston Metro)

- Metro가 휴스턴 전역에 124개의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주말 운행은 불규칙적이다(문의 전화 : (1-713) 635-4000).
- 정액카드인 Q Card를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버스 운행 시간 및 요금은 노선에 따라 상이하므로 웹사이트 <http://www.ridemetro.org>에서 확인한다.

● 택시

- 기본료는 \$4이고 추가 마일당 \$1,87가 추가된다.
- Yellow Cab (1-713) 236-1111 / Taxis Fiesta (1-713) 225-2666 / United Cab (1-713) 699-0000

● 철도(Amtrak)

- 다운타운의 서쪽 끝부분인 902 Washington Ave에 암트랙이 있으며 일주일에 3회 휴스턴에 정차한다(문의 전화 : (1-713) 224-1577).

● 렌터카

- Alamo (1-713) 641-0533 / AVIS (1-713) 641-9300 / Enterprise (1-713) 645-7222 / Hertz (1-713) 941-6821

2) 달라스

● 시내버스(Dallas Area Rapid Transit)

- 시내는 1회 요금이 \$1.5, 지역은 1회 요금이 \$3이다.

● 택시

- 기본료는 \$2,25이며 0.1마일당 \$0.2 추가된다.
- 공항~달라스 시내 약 \$43.6, 공항~포트워스 시내 약 \$46.6
- 달라스 지역 전화 : (1-214) 426-6262
- 포트워스 지역 전화 : (1-817) 426-6262

3) 오스틴

● 시내버스(Capital Metro)

- 오스틴은 텍사스주의 주도로서 타 지역에 비해 요금 할인이 많다.
- 성인 \$0.5, 어린이 \$0.25, 노인은 무료이다.
- 텍사스 대학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무료, 시 공무원도 무료이다.

도로교통

-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인만큼 도로가 넓고 광활하나, 휴스턴이나

달라스 등 텍사스 주요 도시에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고속도로 정체 및 출구 등의 폐쇄가 많다.

- 다른 주에 비해 소형 트럭 차량이 많으므로 난폭 운전 등에 대비해 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2인 이상 동승할 때만 허용되는 카풀 차량 전용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기후

- 휴스턴은 고온다습하며 봄가을이 거의 없는 편이다. 여름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기온은 23~40°C이다.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거의 없다.
- 달라스는 휴스턴보다는 건조하며 겨울은 바람의 영향으로 추운 편이다.

자연재해

-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플로리다 동쪽 280km 부근에서 발생하여 마리아미에 상륙했다. 급격히 1등급 허리케인으로 커진 후 다시 멕시코만으로 빠져 나갔다가 5등급으로 발전하여 재상륙했다.
- 전체 면적의 80%가 해수면보다 낮은 뉴올리언스 지역의 경우 폰차트레인 호수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루이지애나주 사상자가 1만 여명에 달했다.
- 텍사스주에서는 빠른 대피가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 허리케인 대비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문의 전화 : 211, <http://www.houstontx.gov/oem>).
- 자세한 허리케인 대피요령은 주휴스턴총영사관 웹사이트(<http://www.koreahouston.org>)를 참고한다.
- 토네이도는 주로 미국 중부에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1931년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83톤급 객차를 감아 올렸던 사례가 있다.
- 텍사스주는 대표적인 다인종 주로 타 인종에 대해 너그러운 편이며, 구성 면에서 히스패닉 계통 이민자가 대수를 차지하고 있다.
- 스페인어가 통용되고 있고 영어 또한 남부 특유의 사투리로 인해 영어 청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휴스턴 시내 치안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야간에는 단독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Long Point 등 다민족 밀집 지역은 낮에도 조심해야 한다.
- 신용카드는 여행자 수표나 신용카드(Visa, Master, Amex 등)를 사용하여 여행 중 고액의 현금 소지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 1990 Post Oak Blvd, #1250 Husuton, TX 77056
- 전화 : (1-713) 961-0186
- 팩스 : (1-713) 961-3340
- E-mail : con-hu@mofat.go.kr
- 홈페이지 : <http://www.koreahouston.org>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7:00
- **긴급 시 연락망**
 - 민원담당 영사 휴대폰 : (832) 483-6359
 - 영사협력원(달라스) : (1-214) 288-6093



출입국 시 유의 사항

공항 이용

- 미국 3위 규모의 공항인 조지부시국제공항은 휴스턴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약 37km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에서 총영사관까지 거리는 약 42km로 택시요금은 약 \$57이다.
- 허비공항은 주로 국내선 항공편을 위한 공항이며,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약 11,2km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에서 총영사관까지 거리는 약 28km로 택시요금은 약 \$38이다.
- 달라스 DFW공항은 중남부 최대의 물류 중심 공항으로 최근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달라스 시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 9·11 테러 이후 항공기 탑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국제선은 최소한 출발 2시간 반 전, 미국 국내선은 출발 2시간 전에 미리 탑승 수속을 마쳐야 한다.
- 미국 도착 시 입국심사 후 미 이민국 직원이 여권에 붙여 주는 체류허가서(I-94)는 미국 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출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휴스턴은 메디컬 산업 중심도시로 MD Anderson 암센터로 유명한 Texas Medical Center를 중심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의료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다. 질 높은 의료시설 덕분에 의료비는 타 지역보다 높다.
- 의사의 처방 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며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등은 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화재, 도난, 응급환자 : 911
- 휴스턴 시내 교통사고 : (1-713) 222-3131
- 시외 교통사고 : (1-713) 221-6000
- 이민국 : (1-800) 325-5283
- 메모리얼시티 병원 : (1-713) 932-3592
- 전화번호 문의 : 411
- 각종 재난, 대피 문의 : 211

한국과의 시차

- 중부 표준시 사용, 한국 대비 -15시간(서머타임이 적용되는 4~11월 중에는 -14시간)

전력 사용 현황

- 110V / 60Hz
- 110~220V 겸용이 아닌 220V 전용일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공항 전화번호

- 공항 : 조지부시국제공항 (1-281) 230-3100 / 하비공항 (1-713) 640-3000 / 엘링턴필드공항 (1-713) 847-4200 / DFW공항 (1-972) 574-8888 / 대한항공 (1-800) 438-5000 / 아시아나항공 (1-800) 227-4262 / 콘티넨탈항공 (1-800) 523-3273 / 아메리칸항공 (1-800) 433-7300

각 지역 사전 정보 취득

- 달라스 지역
 - 달라스 한인회 : <http://dallaskorea.org>
- 오스틴 지역
 - 오스틴 한인회 : <http://austin114.com>
- 기타 여행 정보
 - 텍사스 지역 : <http://travel.state.tx.us>
 - 휴스턴 지역 : <http://www.visithoustontexas.com>
 - 달라스 지역 : <http://www.visitdallas.com>



국가별 유의 사항

캐나다 지역



01 오타와 (공통사항 포함) 92

02 몬트리올 98

03 밴쿠버 104

04 토론토 110



현지 치안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전쟁, 내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캐나다가 미국의 맹방이고 아프가니스탄 파병국이어서 알카에다로부터 테러 위협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일부 자생 테러 조직에 의한 테러 모의가 발각되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오타와는 행정수도로서 보수적인 도시이며, 도시 외곽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야간에 거리를 다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적인 편이다.
- 다만, 최근 이민, 난민의 유입 등으로 소매치기 및 차량 대상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광지 및 식당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캐나다는 대마초 흡연, 마약 투여 등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부랑자 밀집지역, 아프리카 및 남미 이민자, 난민 밀집지역 등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지역에서는 야간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 나오던 사람을 따라가 주위에 현금을 뿌려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차 안에 든 가방을 탈취해 간 사례가 있다.
- 교통표지판의 'All Way Stop'과 일반 'Stop'의 의미를 몰라 차량 진행 우선순위에 착오를 일으켜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귀중품 도난 사고

- 가방을 버스나 택시에 두고 내리거나 호텔, 공항, 환전소 주변에 가방을 방치해 놓고 일을 보는 사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대책]

- 현금보다는 여행자수표가 안전하며 수표의 일련번호를 기재해 둔다.
- 수상한 사람이나 따라오는 오토바이, 자동차가 없는지 항상 경계한다.
- 신용카드 번호, 귀중품이나 가방의 상표 등을 기재해 둔다.
- 가방은 자신의 몸 앞쪽으로 휴대한다.
- 인도를 걸어갈 때는 차도에서 떨어져 건물 쪽으로 붙어서 간다.
- 자동차 내에 귀중품을 두고 떠나는 행위는 금물이다. 관광버스에서 내릴 때에도 반드시 귀중품은 직접 소지하는 것이 좋다.
- 직접 운전하는 여행객을 상대로 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 친절을 베푸는 척하며 접근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해야 한다. 그 경우, 인상착의와 자동차 번호를 정확히 기억해 둔다.
- 호텔 체크인 또는 체크아웃을 위해 가방을 옆에 놓고 일을 보거나 가방을 방치해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일은 절대 삼간다.
- 외출할 때는 귀중품을 프런트에 맡기고 호텔 객실의 열쇠는 반드시 직원에게 직접 맡긴다.

[사례 2] 범죄에 악용되는 한국 여권

-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와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여권 밀매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여행을 위해 관광버스 내에 두고 내린 여권이 분실되는 사례가 많다.

[대책]

- 여권번호를 기재해 두고, 여권용 컬러 사진 2매를 예비로 가지고 다니면 신속하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일반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단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일반여권 재발급 시 구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1부 / 여권 분실 재발급 사유서 및 분실각서 /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 여권용 컬러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 3.5×4.5cm) / 영주권(PR card) 또는 체류비자 원본 또는 사본 / 관할 경찰서 분실 신고서 / 수수료는 \$46.2 / 처리 기간은 약 10일 소요
 - 단수 여권 재발급 시 구비 서류 : 일반여권 재발급 시 구비 서류 전부 / 항공권 원본 또는 사본 / 수수료는 \$16.5 / 처리 기간은 약 7일 소요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사례 3] 유학생 상대 은행계좌 차용 사기

- 토론토 등 캐나다 각지에서 유학생들에게 접근,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서 은행 계좌를 잠시 빌려 달라고 속이고, 부도난 수표를 송금하는 대신 현금을 받아가는 수법의 사기가 발생한 바 있다. 수표가 부도처리(bounce)되면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모든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

[대책]

- 장기 혹은 단기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삼자에게 계좌번호를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 은행 계좌 차용을 위해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특별히 주의해야 할 관공지는 없으나 최근 청소년 및 여행자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야간에 혼자 거리를 다니는 것은 삼간다.

대중교통

- 버스
 - 오타와와 지역 버스는 출퇴근 때에만 시간제로 운영하는 버스와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버스로 구분되어 있어 버스를 이용하기엔 다소 불편한 편이다.
 - 시내 기본요금 \$3, 시내를 벗어나는 경우 \$4이다.
- 택시
 - 택시는 호출하면 약 5분 내에 도착하고 시내 곳곳에 택시 승차대가 있어 이용함에 불편이 없다(Blue Line : (1-613) 238-1111).
 - 요금은 기본 \$3에 거리 및 시간 병산제이며 탑은 10~15% 정도이다.
- 철도
 - 온타리오주 내를 여행할 때는 GO Train을 이용하면 되고, 캐나다 전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CN Railway 또는 VIA Rail Canada를 이용하면 된다.
- 공항
 - 국제공항(Ottawa International Airport)이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캐나다는 한반도의 약 45배나 될 정도로 국토 면적이 넓어 국내 도시 간 이동도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도로교통

-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으며, 교차하는 주요 도로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있다.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속도로 이용료가 없다. 유료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별도로 요금징수원이 없이 출입구에서 자동카메

라로 촬영해 별도로 요금을 청구한다.

- 한국과 온타리오주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제도가 있어 시력 테스트를 거치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해당 지역 운전면허로 바꿀 수 있다. 단, 단기 여행객의 경우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오면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자동차의 진행 방향은 우측통행이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벌칙이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 사거리 정지 신호에는 'All Way Stop'과 일반 'Stop'의 두 종류가 있다. 'All Way Stop' 표시가 있으면 사거리에 진입한 모든 방향의 자동차는 정지 의무가 있으며, 사거리 정지선에 먼저 도착한 차량 순으로 진행한다. 'Stop'표시는 정지 신호가 있는 도로에서 접근하는 차량만 정지 의무가 있으며, 정지 신호가 없는 도로의 자동차가 완전히 통과한 후에 진행하라는 표시이다.
- 통행인이 횡단보도의 버튼을 누를 경우 기동 또는 줄에 달린 노란색 등이 반짝인다. 이 경우 진행 중인 자동차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스쿨버스 옆에서 'Stop Arm'이 펼쳐진다. 이때에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을 포함하여 모든 자동차가 정지해야 한다. 특히 스쿨버스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스쿨버스 20m 전에 정지할 의무가 있다.
-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경우 차량을 우측 길로 멈춰 세워 길을 비켜줘야 한다. 소방차나 앰بول런스를 150m 이내에서 뒤따라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기후

- 국토가 광범위하여 지역마다 기후가 상이하다. 오타와 지역의 경우 사계절이 있는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상 변화가 다소 큰 편이다.
- 여름에도 30℃를 넘는 날이 많지 않으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편이고, 추울 때는 영하 20℃ 이하로 내려갈 때도 있다. 특히 겨울철 체감 온도는 심한 바람으로 인해 영하 3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므로 겨울여행은 방한복 준비가 필수이다.

자연재해

- 대형 참사를 동반하는 천재지변 발생 확률은 매우 적으나, 겨울철에는 한파 및 폭설로 인해 동사,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12~3월에 오타와를 방문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 캐나다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어린이에게 육체적, 성적, 정서적 피해를 가하거나 어린이를 방치하는 행위 등은 Child Abuse로 엄격히 처벌된다.
- 남녀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피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Dating Abuse에 해당될 수 있다.
- 캐나다에서는 경찰 등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확김에 한국에서처럼 과격한 발언을 했다가는 살인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150 Boteler S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 전화 : (1-613) 244-5010
- 팩스 : (1-613) 244-5034
- E-mail : canada@mofat.go.kr
- 홈페이지 : <http://www.koreanembassy.ca>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7:00(공휴일 휴무)
- 당직 전화 : (1-613) 244-5010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1994년부터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유학, 취업, 비즈니스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
- 무비자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국경경비대(CBSA) 심사관으로부터 캐나다 입국 허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질문을 받게 된다. 이때 횡설수설하거나, 관광 또는 방문 목적이면서 오픈티켓을 소지했거나, 귀국 티켓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관광 또는 방문 예정 기간이 여권 유효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소지품이 입국 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하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 16세 이하의 어린이는 유효한 신분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 이외의 사람이 16세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할 때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소지해야 한다.
- 여권이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세관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국경경비대 심사관이 정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 희망자를 Immigration Holding Centre에 단기간 수용할 수 있다.
- 입국 거부 결정에 대해 재심사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Immigration Holding Centre에 수용된 상태로 Hearing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총영사관에 서면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다.

- 온타리오주의 경우 건강보험인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모두 OHI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일반 방문객의 경우에는 OHIP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병원 치료 시 현금으로 상사원이나 영사 직원의 경우 사보험을 들어 해결하고 있다.
- 응급 처치는 가정의를 통해 진찰을 받는 거주자와는 달리, 일반 방문자의 경우 예약 없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Walk-In Clinic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화재, 긴급 의료지원 : 911

팁 제도

- 식당이나 택시의 경우 청구 금액의 10~15% 수준이며, 호텔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 포터에 대한 팁은 짐 1개당 \$1를 팁으로 지불한다.
- 아침에 객실을 나올 때마다 \$1 정도를 침대에 놓고 나오는 것이 예의이다.

한국과의 시차

- 캐나다는 총 6개의 표준시간대가 있으며, 최동쪽(뉴펀들랜드섬)과 최서쪽(태평양 연안) 간의 시차는 5시간 30분이나 된다.
- 오타와와 경우 한국보다 14시간 느리며, 서머타임 실시 기간인 3월 둘째 일요일에서 11월 첫째 일요일까지는 13시간 느리다. 오타와 지역은 미국의 Eastern Time과 같다.

전력 사용 현황

- 110V / 60Hz

캐나다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캐나다 관광 정보 : <http://www.canada.travel/splash.ko.html>
- 캐나다 기상 정보 : <http://www.theweathernetwork.com>
- 캐나다 출입국 정보 : <http://www.cbsa-asfc.gc.ca/menu-e.html>

언어

- 공용어는 영어, 불어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캐나다 | 몬트리올



시차 한국보다 14시간 느림
 화폐단위 Candian Dollar
 총영사관 홈페이지 www.koreanconsulate.qc.ca
 몬트리올시정부 홈페이지 www.ville.montreal.qc.ca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전쟁, 내란, 테러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도시의 치안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총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편의점 강도 등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치나 살인 사건은 거의 없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도심의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서 옆자리에 놓아둔 가방을 소매치기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 차량에 가방 등의 물품을 놓고 내릴 경우 유리를 깨고 가져가는 범죄가 종종 발생하므로 무거운 짐은 반드시 트렁크에 넣어 놓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 호텔의 종업원을 사칭하여 잠시 나가 달라고 한 후 털어가는 절도범들이 간혹 있으므로 속지 않도록 하고, 귀중품은 되도록 호텔방보다는 프런트에 따로 맡긴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은행계좌 차용 사기

- 최근 캐나다 일원에서 순진한 한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은행 계좌를 차용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한국 사람에게 접근하여 "뱅크버에 방문 도착하여 지갑을 잃어버렸다. ID가 없어 은행계좌 개설이 곤란하다. 친구가 당신 계좌로



현지
치안 상황

송금해 줄 터이니 입금을 확인하고 송금액만큼 인출해 달라”는 식으로 부탁하여 계좌번호를 알아간 다음, 본인이 다른 은행에 가서 몰래 불량수표로 피해자 계좌에 입금시킨 후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는 수법이다.

[대책]

- 현지 은행에서는 입금된 수표가 불량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나중에 불량 수표로 판명되면 부도 처리(bounce)시킨 후 그 부담은 해당 계좌에서 차감되므로 캐나다의 은행 시스템을 숙지해야 한다.
-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한국인이 있을 경우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운영하는 긴급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생트카트린(St. Catherine) 거리 주변으로 다운타운 및 동쪽 지역에는 걸인과 노숙자가 많다. 안전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간혹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다운타운 이튼 센터나 성 요셉 성당 등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는 소매치기가 있을 수 있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 지하철, 버스

- 몬트리올의 버스와 지하철은 연계하여 한 장의 티켓으로 갈아탈 수 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는 타는 역에서 무료 환승권을 챙겨야 하며, 버스에서 지하철, 또는 다른 노선의 버스로 갈아탈 때는 승차할 때 운전기사에게 환승권(transfer)을 받으면 된다. 환승권은 90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같은 노선이나 되 돌아오는 노선으로 갈아탈 수 없다.
-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티켓으로는 1일권, 3일권, 1주일권, 1개월권이 있으며, 묶어서 파는 6회권을 구매하면 날개로 구입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버스는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탈 때는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 노선이나 운행시각표에 대한 정보는 <http://www.stm.info>를 참고한다.
- 다운타운의 경우 32km에 달하는 지하철로(언더그라운드)가 발달되어 있어서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된다.

● 철도

- 캐나다 전역으로 운행하는 철도 바이아 레일(Via Rail : <http://www.viarail.ca>)과

미국으로 가는 암트랙(Amtrak : <http://www.amtrak.com>)이 있으며 지하철 보나방튀르(Bonaventure)역에서 내리면 중앙역이 있다.

● 택시

- 호텔이나 시내 주요 빌딩 앞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시내 곳곳에서 쉽게 탈 수 있다.

● 렌터카

-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오거나 한국 면허를 영사관에서 공증 받으면 3개월(퀘벡주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기간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도로교통

● 제한속도는 구간마다 다르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위는 킬로미터(km)이다. 인접국인 미국은 마일(1mile=1.609344km)을 사용하고 있다.

● 노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며 특히 겨울이 끝날 무렵이나 비교적 따뜻한 겨울 날에는 얼었던 도로가 녹으면서 곳곳에 패는 현상이 생겨 특히 운전은 조심해야 한다.

● 안전벨트는 전 좌석 의무 착용이며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서 뒤에 앉혀야 한다.

● 다운타운에서는 일반적으로 2시간까지 거리주차가 허용되는데 기계식 미터기가 대부분 사라지고 동전 또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자식 주차기가 들어섰다. 주차한 자리의 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시간만큼 지불하면 되는데 요일별로 운영 시간이 다르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견인되는 구간이 있으니 주의한다.

●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혼자 차 안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 한 예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 앞에 주차한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이 와서 깨우고 체포해 간 경우도 있었다.

● 퀘벡에서 꼭 알아야 할 교통규칙

- 몬트리올섬 내에서는 빨간 불에서 우회전 금지이다.

- 유턴은 허용 표시가 있는 구간에서만 가능하며, ↑ 표시는 직진만 허용된다.

-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에서도 녹색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을 때는 깜빡이는 동안에만 좌회전이 가능하며, 녹색 신호등이 깜빡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 빨간색 팔각형의 'STOP(불어로 ARRET)' 표시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 노란색 횡단보도에서 행인이 건너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 스쿨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서 있을 때는 왕복 차선 차량이 모두 4~5m 전에 정지해야 한다.



기후와 자연재해

기후

- 몬트리올은 겨울이 길고 봄가을이 짧은 편이다. 겨울은 영하 20°C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몇 번씩 있으며 눈이 많이 온다. 폭설이 내릴 때는 10cm에서 40cm 사이의 눈이 집중적으로 내려 부츠 착용이 필수이다.
- 아이들은 겨울에 매일 스키복과 방수가 되는 겨울 부츠를 착용하고 등교한다.
- 여름은 30°C 이상 올라가는 날도 종종 있으나 습하지 않고 일교차가 커서 쾌적한 편이다.
- 겨울이 길고(11~4월) 추우므로 이 기간에 여행하려면 두꺼운 옷을 꼭 준비한다.
- 폭설로 인한 항공기 결항, 교통체증이 있을 수 있다.

자연재해

- 몬트리올은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도시이다.
- 시내 공공 건물은 거의 모두 금연구역이며 출입구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불법이다.
- 담배나 술을 살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 '죽이겠다'고 말로 위협하는 것도 경찰에 신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강제 추방당한 한인 유학생의 사례가 있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몬트리올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 Place Ville-Marie, Suite 2015 H3B 2C4
- 전화 : (1-514) 845-2555
- 팩스 : (1-514) 845-1119
- E-mail : korean@koreanconsulate.qc.ca
- 홈페이지 : <http://www.koreanconsulate.qc.ca>



긴급 영사 연락망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7:00(점심시간 12:00~13:30)
- 근무시간 외에는 긴급 영사 연락망 안내 메시지가 나간다.



출입국 시유의 사항

- 캐나다와는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이 목적인 경우 무비자로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공항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입국심사 때 취업이나 학업이 목적인 것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별도의 예방접종은 필요 없다.
- 면세범위 : 주류 1리터, 담배 1보루

- 몬트리올의 의료체계는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대부분 영어와 불어로 모두 소통이 가능하다.
- 간단한 해열제, 감기약 등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시내에서 밤 늦게까지 운영하는 대형 약국을 쉽게 볼 수 있다. 항생제 등의 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 현지 의료보험이 없으면 상당한 수준의 의료비를 내야 하므로 여행 출발 전에 한국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 구급차 비용은 일반적으로 유료이며 응급실은 대개 시설 및 인력 부족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아니면 지체되는 일이 많다.
- 'H'자의 도로표지판은 종합병원을 의미한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응급 환자, 범죄 피해, 화재 : 911
- 24시간 약국(Pharmaprix) : 5122 Cote-Des-Neiges / (1-514) 738-8464

팁 제도

- 식당 등에서 일반적으로 10~15% 정도의 팁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4시간(서머타임 실시 기간인 3월 둘째 일요일에서 11월 첫째 일요일까지는 -13시간)

전력 사용 현황

- 110V / 50Hz

몬트리올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몬트리올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 : <http://www.tourisme-montreal.org>
- 퀘벡주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 : <http://www.bonjourquebec.com>
- 상호명으로 찾는 전화번호부 : <http://www.yellowpages.ca>

언어

- 퀘벡주의 공식 언어는 불어이지만 몬트리올 시내에서는 영어가 거의 통용되는 편이고 대부분 영어와 불어가 병기되어 있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캐나다 | 밴쿠버



시차 한국보다 17시간 느림
 화폐단위 Canadian Dollar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can-vancouver.mofat.go.kr>
 밴쿠버주정부 홈페이지 www.city.vancouver.bc.ca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캐나다는 전쟁이나 내란의 가능성이 낮아 여행하기에 비교적 안전한 나라이다. 밴쿠버 등 캐나다 서부지역은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다민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서 특별한 사회불안 요소도 없다.
- 다만, 캐나다 서부는 미국 서부 주요 도시와 인접해 있고, 캐나다와 미국이 우방 관계이며,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일각에서는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밴쿠버 지역의 치안 상태는 미국 대도시와 비교할 때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절도, 강도, 교통사고는 물론 여행객들을 노리는 소매치기 사건 등도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 최근에는 총기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주로 나이트클럽 등 특정지역 및 마약 관련 범죄 조직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긴 하지만 나이트클럽 등 특정지역은 접근을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밴쿠버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검거된 한국인은 2006년 59명, 2007년 27명이었다. 대부분의 밀입국 조직과 경로가 이미 캐나다와 미국 이민당국에 노출되어 밀입국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밴쿠버에 거주하는 유학생이 미국 시애틀에서 쇼핑을 하고 미-캐나다 국경을 통해 캐나다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쇼핑 물품에 대한 관세 신고를 허위로 하여 입



현지 치안 상황

국 거부는 물론, 학생 비자를 회수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1일 체류할 경우 \$50, 2~6일 체류할 경우 \$400, 7일 이상 체류할 경우 \$750 상당의 물품까지만 면세이고 이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여권 분실 사고

- 최근 여권 분실 건수는 2006년 342건, 2007년 326건이며, 주로 5~8월 및 12~1월 사이에 분실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 여권 분실은 도서관, 호텔 로비, 쇼핑센터, 커피숍 등에서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난당하는 경우, 밴쿠버 공항이나 시내에서 가방을 소매치기당하는 경우, 주차한 차 유리창을 깨서 도난당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대책]

- 여권은 꼭 필요할 때만 소지하고 일정한 장소에 잘 보관해 둔다.
- 유학생이나 장기 체류할 경우 여권 대신에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BCID를 ICBC에서 발급받아 지참하는 것이 좋다.
- 여권 사본, 비자 또는 영주권 카드 사본을 한 부씩 만들어 보관한다.
- 여행을 통한 단체 관광일지라도 관광버스에서 잠시 내릴 때에는 반드시 여권이 나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소지한다.
- 다액의 현금 소지는 가급적 삼가고 현금보다는 여행자수표를 소지하고, 수표 일련번호를 기재해 두면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된다.

[사례 2] 캐나다 취업 사기

- 캐나다 서부지역은 2010년 동계올림픽과 오일샌드 개발 등으로 건설 붐이 일고 있으나,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력 알선 업체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무작정 입국했다가 취업은커녕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책]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알선업체라도 공신력 여부는 스스로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
- 취업을 위해 알선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 조건, 약속 이행 기간, 환불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최근 총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해스팅 거리와 마인 거리가 만나는 지역에는 주야 불문하고 접근을 삼가는 게 안전하다.
- 차이나타운은 관광명소이기는 하나, 주변에 '마약 치료센터'가 있어 항상 마약 중독자들로 붐비므로 야간에는 절대 가지 말고 주간에도 혼자 가면 매우 위험하다.
- 다음 지역은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총기 사고, 폭행 사고 등

이 빈발하므로 야간에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

- 그란빌 거리(Granville St.) : Smithe St.와 Davie St. 구간
- 리차드 거리(Richards St.) : Helmcken St.와 Drake St. 구간
- 워터 거리(Water St.) : Carrall St. 부근

대중교통

-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는 버스, 스카이트레인(Sky Train), 시버스(Sea Bus)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 Sky Train은 무인 전동차로서 3~4칸의 차량이 밴쿠버 주요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다.
- 요금은 구간별로 다르며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같은 구간 내에서는 90분 한도 안에서 위 세 가지 교통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의 각 구간(Trans Zone)은 색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다른 색상 구간으로 통과하는 경우 구간요금이 늘어난다.
- 대중교통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트랜스 링크 웹사이트(<http://www.translink.bc.ca>)를 참고한다.
- 택시는 주로 콜택시제이다. 요금을 지불할 때 10% 정도의 팁을 같이 지불한다.

도로교통

-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으며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교차하는 주요 도로마다 진출입로가 개설되어 있어 편리하다. 또한 극히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다.
- 한국과 캐나다 서부 3개주(BC, 앨버타, 서스캐처원)는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한다.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Driver Services Centre로 가서 시력 등 간단한 테스트를 거친 후 현지 운전면허로 바꿀 수 있다. 단기 여행객의 경우 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받아 가지고 오면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운전할 수 있다.
- 자동차의 진행 방향은 한국과 동일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등 한국과 다른 것들은 주의를 요한다. 도로교통 법규 위반 시 벌칙도 한국보다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 사거리가 아닌 곳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으며, 통행인이 버튼을 누를 경우 신호기 지주 또는 도로 상공의 줄에 달린 노란색 신호등이 반짝인다. 이 경우 진행 중인 자동차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 소방차나 앰불런스가 현장으로 달려갈 때 이들 차량을 150m 이내에서 뒤따라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기후와 자연재해

기후

- 밴쿠버 BC주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연안 지역은 태평양 난류의 영향으로 사계절 내내 온난한 날씨를 보이고 여름은 시원하다. 11~3월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으며, 6~8월은 건조하며 햇빛이 강렬하다.
 - BC주 내륙 지역의 경우 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내리며, 여름에는 덥고 화창하다.
- 공해가 비교적 적어 햇빛이 강렬하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모자나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연재해

- 캐나다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캐나다 사법기관은 자녀에 대한 체벌, 남의 어린이 쓰다듬기, 남녀 사이의 과도한 다툼 등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
-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가 찾김에 “죽여버리겠다”, “가죽을 가만두지 않겠다” 등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경우 살인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 허가 없이 낚시 또는 수렵을 하는 행위도 처벌되며, 이런 행위는 지역주민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 야외 음주 행위,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매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BC, Canada V6E 3V7
- 전화 : (1-604) 681-9581
- 팩스 : (1-604) 681-4864
- E-mail : vancouver@mofat.go.kr
- 홈페이지 : <http://can-vancouver.mofat.go.kr>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7:00
- 비상 전화 : (1-604) 319-2166, 908-7631

영사협력원(캘거리) 연락처

- 주소 : 5012 16TH AVE, N.W CALGARY AB T3B 0N3
- 전화 : (1-403) 288-5656, 650-7553



긴급 영사 연락망

-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밴쿠버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한국인이 매일 1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는 관광·방문 목적에 한해 무비자이고 입국심사 때 방문 목적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
- 입국이 거부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주밴쿠버총영사관 웹사이트 (<http://can-vancouver.mofat.go.kr>)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 캐나다 입국 목적이 단순 방문이나 관광이 아니면 입국 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한다.
- 입국 거부 결정에 대한 재심을 희망할 경우에는 디텐션 센터(Detention Center)에 수용된 상태에서 재판(Hearing)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총영사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고, 변호인(국선 또는 사선)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다.

BC주 의료보험 MSP

- BC주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유학생, 노동허가증 소유자는 BC주의 거주자가 되는 그 달과 다음 2개월간의 대기 기간이 지나야만 의료 혜택이 시작된다.
- MSP에 관한 문의나 등록은 MSP 웹사이트 (<http://www.hlth.gov.bc.ca/msp>)를 참고한다.
 - 의료보험 연락처 : 밴쿠버 (1-604) 683-7151 / 빅토리아 (1-250) 386-7171 / 그 외 지역 (1-800) 663-7100
 - 의사를 방문할 때는 항상 예약을 해야 하지만, 예약도 필요 없고 간단한 응급시술을 해 주는 Walk-in Clinic이 많이 있다. 전화번호부에서 'Clinics' 또는 'Clinics-Medical'을 찾으면 가까운 Walk-In Clinic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화재, 긴급 의료지원 요청 : 911

팁 제도

- 식당, 택시를 이용하면 청구 금액의 약 10~15%를 팁으로 지불한다.
- 호텔 체크인 및 체크아웃 때 포터에 대한 팁은 수하물 1개당 \$1이 일반적이다.
- 객실은 아침에 나올 때마다 \$1 정도를 침대에 놓고 나오는 것이 예의이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7시간(서머타임 실시 기간인 3월 둘째 일요일에서 11월 첫째 일요일까지는 -16시간)

전력 사용 현황

- 110V / 50~60Hz

언어

- 영어와 불어가 공용되고 있다.



출입국 시 유의 사항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캐나다 | 토론토



시차 한국보다 14시간 느림
 화폐단위 Candian Dollar
 총영사관 홈페이지 www.koreanconsulate.on.ca
 토론토시정부 홈페이지 www.toronto.ca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토론토는 치안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캐나다의 2006년 국가 전체 범죄율이 과거 25년 중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최고치를 기록한 1991년 범죄율과 비교하면 약 30% 감소했다.
- 다만, 전국적으로 총기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시내 나이트클럽 등 특정 지역 및 범죄 조직 간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일반 여행객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 나오던 사람을 따라가 주위에 현금을 뿌려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일명 ‘바람잡이’ 수법) 차 안에 든 가방을 탈취해 갔다.
- 관광버스를 이용해 여행 중 여권을 버스 내에 두고 하차했다가 돌아와 보니 여권이 없어졌다.
- 최근 토론토 등 캐나다 각지에서 유학생들에게 접근, 급히 송금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잠시 빌려 달라고 속이고, 부모난 수표를 송금하는 대신 현금을 받아가는 수법의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귀중품 도난 및 분실 사고



현지
치안 상황

- 여행객 중 귀중품, 가방 등을 도난 또는 분실당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시설에 두고 내리거나 호텔, 공항, 환전소 주변에서 방치해 놓고 일을 보는 사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대책]

- 다액의 현금 소지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최선이다. 현금보다는 여행자수표가 안전하다. 수표 사용 시 일련번호를 기재해 두면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된다.
-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나 따라오는 오토바이, 자동차 등은 없는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
- 분실 또는 도난에 대비해 신용카드 번호, 귀중품이나 가방의 상표 등을 기재해 두면 도움이 된다.
-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잠시라도 자동차 내에 귀중품을 두고 떠나는 행위는 금물이다.
- 직접 운전하는 여행객을 상대로 핑크나 고장 시 친절을 베푸는 척하며 접근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해야 한다. 그 경우, 인상착의와 자동차 번호 등을 정확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한꺼번에 다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환전하는 것은 가급적 삼간다.
-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 모자나 마스크를 쓴 사람, 은행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 현금이 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다.
- 은행 통장비밀번호를 노출시키거나 인출명세서로 주변에 버리지 않는다.
- 공항은 물론 호텔 로비라고 안전한 곳은 아니다. 따라서 체크인 또는 체크아웃을 위해 가방을 옆에 놓고 일을 보거나 가방을 방치해 두고 화장실 등을 다녀오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
- 외출할 때는 귀중품을 프런트에 맡기고 호텔 객실의 열쇠는 반드시 직원에게 직접 맡긴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특정 지역이나 범죄 조직 간에 총기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야간에는 토론토 시내의 킹스트리트, 웨스트 및 처치스트리트 지역의 나이트클럽 출입을 삼간다. 또한 토론토의 북서쪽인 제인 지역과 핀치 지역이 만나는 곳은 대표적인 우범 지역이므로 접근을 삼간다.

대중교통

● 지하철, 스트리트카, 버스

- 토론토시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인 TTC(Toronto Transit Commission)를 운영한 지하철(4개 노선)은 버스 및 스트리트카(Street Car)와 연결되어 있으며,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 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에도 이중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탈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수 있다.

- TTC 버스 이외에도 온타리오 주정부가 운영 중인 고버스(Go Bus)가 있으며, 그 밖에 고속버스회사의 버스 라인도 있다.

● 택시

- 일반 택시와 리무진 택시가 있다. 공항 전용 리무진 택시로 Airport Taxi & Limousine Services가 있으며, 일반 택시 회사에서도 리무진 택시를 운행하기도 한다.
- 일반 택시의 기본요금은 \$3이다.
- 택시를 호출해도 특별요금이 부가되지 않으며, 호출 후 5~10분 정도 기다리면 택시가 온다.

● 철도

- 온타리오주 내를 여행할 때는 고트레인(GO Train)이라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운영 중인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캐나다 전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CN Railway 또는 VIA Rail Canada를 이용할 수 있다. 토론토의 경우 모두 유니온(Union)역이 출발과 도착의 중심역이다.

도로교통

-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주요 도로마다 진출입로가 개설되어 있어 편리하다.
- 한국과 온타리오주, 매니토바주와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제도가 있어 시력 테스트만 거치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면허로 바꿀 수 있다.
- 자동차의 진행 방향은 우측통행으로 한국과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법규 및 법문화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칙도 한국보다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면 \$110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후

- 토론토 지역은 사계절이 있는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며 기상 변화가 크다. 가을은 거의 없는 편이며 여름엔 습도가 높고 겨울엔 몹시 춥고 눈도 많이 내린다.
- 햇볕이 강렬하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모자나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연재해

- 캐나다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에 비해 하루 중에도 일교차 등 기상 변화가 클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 적절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이민자로 구성된 캐나다는 다양한 언어와 음식문화가 발달했다.
- 16세기에 영국의 에드워드 12세 왕이 미국에서 수입된 칠면조의 독특하고 축축한 맛에 반해 아예 칠면조를 영국에서 사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칠면조가 크리스마스의 전통적인 요리가 되었다.
- 토론토는 영하 20℃를 웃도는 혹독한 추위로 유명한 곳이지만 50~90%씩 싸게 파는 초특급 세일 퍼레이드에 가게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장사진이 유명하다.



긴급 영사 연락망

토론토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Canada, M4V 2J7
- 전화 : (1-416) 920-3809
- 팩스 : (1-416) 924-7305
- E-mail : toronto@mofat.go.kr
- 홈페이지 : <http://www.koreanconsulate.on.ca>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7:00
- 근무 시간 외 당직 전화 : (1-416) 994-4490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 무비자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국경경비대(CBSA) 심사관으로부터 여권 제출을 요구받고 캐나다 입국 허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질문을 받게 된다. 영어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국어 통역인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 온타리오주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건강보험인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일반 방문객은 병원 치료할 때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병원 진료비나 약값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장기 체재하는 상사원이나 영사 직원의 경우 사보험을 들어 해결하고 있다.
- 가정의를 통해 진찰을 받는 거주자와는 달리, 일반 방문자의 경우 예약 없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Walk-In Clinic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다만, 사고 등의 경우 911에 신고하면 구급차가 출동해 대형 병원으로 후송해 준다.
- 캐나다의 응급실 후송 환자의 대기 시간은 한국보다 긴 편이어서 2~3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도 보통이다.
- 야간 약국은 24시간 문을 여는 Drug Mart 등 편의점을 이용하면 된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화재, 긴급 의료 지원 요청 : 911

은행 및 우체국

- 월요일~금요일까지 영업하는데 매일 오전 9시에 문을 열어서 은행은 오후 4시까지, 우체국은 오후 5시까지 영업한다(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단, TD뱅크의 경우 8시에 개점하여 월~수요일은 오후 6시까지, 목~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영업한다.
- ATM의 경우 24시간 운용된다. 다만, 편의점이나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에 좌우된다.
- 우편물은 국내 2~3일 정도, 한국까지는 10일 정도 소요된다.

팁 제도

- 식당, 택시를 이용하면 청구 금액의 10~15%를 팁으로 지불한다.
- 호텔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 포터에 대한 팁은 짐 1개당 \$1이 보통이다. 아침에 객실을 나올 때마다 \$1 정도를 침대에 놓고 나오는 것이 예의이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4시간(서머타임 실시 기간인 3월 둘째 일요일에서 11월 첫째 일요일까지는 -13시간)
- 토론토와 오타와 지역은 미국의 동부 표준시(Eastern Time)와 같다.

전력 사용 현황

- 110V / 60Hz
- TV 방식은 NTSC 방식이다.

캐나다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캐나다 관광 정보 : <http://www.canada.travel/splash.ko.html>
- 캐나다 기상 정보 : <http://www.theweathernetwork.com>
- 캐나다 출입국 정보 : <http://www.cbsa-asfc.gc.ca/menu-e.html>

언어

- 공용어는 영어, 불어이다.



국가별 유의 사항

중남미 지역



- | | |
|--------------|--------------|
| 01 과테말라 118 | 09 온두라스 168 |
| 02 도미니카 124 | 10 우루과이 174 |
| 03 멕시코 128 | 11 칠레 180 |
| 04 베네수엘라 134 | 12 코스타리카 184 |
| 05 브라질 140 | 13 콜롬비아 188 |
| 06 아르헨티나 150 | 14 파나마 194 |
| 07 에콰도르 156 | 15 파라과이 198 |
| 08 엘살바도르 162 | 16 페루 204 |



과테말라 | 중남미



시차 한국보다 15시간 느림
화폐단위 케츠살(Quetzal:GTO)/100 Centavos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gtm.mofat.go.kr>
과테말라정부 홈페이지 www.congreso.gob.gt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과테말라는 1996년 12월 정부·게릴라 간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반정부 조직이나 국제테러 조직의 활동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직 범죄 단체인 '마라스(maras)'가 마약·살인·불법미인 주선, 밀수 등 각종 범죄에 관여하면서 조직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세계 주요 기관 보고서에 의하면 과테말라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과테말라에서는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약 15명 피살, 실종 3,8건이 발생했으며, 실종 사건 대부분이 사체로 발견되는 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일일 평균 약 20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 2006년 한 해에만 절도 12,967건, 폭력 6,055건, 살인 5,885건, 강도 1,890건, 실종 1,419건, 강간 289건, 납치 57건 순으로 발생했다.
 - 최근 3년간 우리 동포의 피해 상황을 보면 강도 16건, 교통사고 8건, 납치 3건(무사 귀환함), 폭행 9건이었다. 2008년 1월에도 납치 1건, 총기피살 1건, 총기 피습 2건이 발생했다.
- 과테말라는 불법총기 소지, 빈부 격차 심화 및 조직범죄단 '마라스'의 활동으로 강력 범죄의 발생이 높다.
 - 과테말라에 합법적인 총기 외에 약 150만 정량의 불법 총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과테말라는 중미에서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반면,



현지 치안 상황

살인 사건 검거율은 2% 내외에 그치고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은행에서 현금 인출 후 총기 강도

-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K씨는 밤 11시경 과테말라시 제10구역(Zona 10)에 위치한 현금인출기에서 \$500를 인출한 후, 귀가 중 4인조로 구성된 강도로부터 총상을 입고, 현금 등을 강탈당했다.

[대책]

- 밤늦게 거리를 배회하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은행 또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대낮에도 주의해야 한다. 경호원을 대동하거나 현지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례 2] 교통사고 발생을 위장한 총기 강도

- 과테말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A씨의 부인은 14시경 백화점 쇼핑을 마치고 손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뒤쫓아 오는 차량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의 부인은 차에서 내려 교통사고 시비를 가리고자 했으나, 사고 책임 운전사가 강도로 돌변하여 현금, 이동전화기 등을 강탈당했다.

[대책]

- 운전 중 쫓아오던 뒤 차량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 정도가 경미하다면 차에서 내려 책임 소재를 가리지 말고 계속해서 주행하는 게 안전하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적어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사람의 통행이 뜬 외지에서는 하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만약 운전 도중 강도를 당한다면 강도의 요구를 들어 주고 운전하던 차량을 요구할 경우 순순히 차량키를 넘겨주어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

[사례 3]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의 강도

-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동포 B씨는 가끔 기분전환을 위해 호텔 카지노를 이용하곤 했는데 귀가 도중 강도를 당했다.

[대책]

- 카지노 및 주점 등의 유흥업소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여러 명이 함께 가거나 항상 주변에 미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현금을 많이 소지한 경우에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2007년 전체 피살자 5,781명 중 2,329명이 수도 과테말라시에서 희생되었다. 과

테말라시의 교민 거주 지역인 Zona 7 지역을 포함해 시 전체가 위험지역에 속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대중교통

- 치안이 불안하므로 대중교통보다는 대절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시내버스에서는 강도사건이나 버스기사 피살 사건이 빈발하므로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Taxi Amarillo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

-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에도 대부분 왕복 2차선으로 도로 사정은 매우 좋지 않으며, 각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다르다(40~80km/h).
- 안전벨트 착용 및 음주운전이 금지되어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거의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패 경찰관들이 아무 이유 없이 차를 정차시켜 검문하면서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 노상주차의 경우 도난 및 강도 피해가 우려되므로 경비원이 있는 건물 내 유료 주차장이나 옥외 주차장을 이용한다.
- 과테말라 시내 일부 구간(2km)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명목상 존재하기는 하나 자전거 전용 도로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기후

- 대부분의 국토가 열대성 기후이다.
- 수도가 위치한 고지대(해발 1,500m)는 연평균 20~22°C 내외로 온화하다.

자연재해

- 우기(5~10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
-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어 지진 피해 위험이 상존한다.
- 종교는 가톨릭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 종족 구성은 인디안 56%, 메스티소 36%, 백인 8%로 되어 있다.
- 과테말라 마야인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전통적인 의복들은 무수한 이국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화려하게 수놓아진 여인들의 블라우스, 케이프, 스커트 등의 디자인은 옛날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것이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5^o Ave 5-55 Zona 14, Europlaza Torre 3, Nivel 7
- 전화 : (502) 2382-4051~5
- 팩스 : (502) 2382-4057
- E-mail : korembtsy@mofat.go.kr
- 홈페이지 : <http://gtm.mofat.go.kr>
- 공휴일 및 야간 비상 연락처
 - 여권, 영사 확인, VISA : 박승규 영사 (502) 5531-0835
 - 사건·사고 : 김정석 영사 (502) 5865-5900

근무 시간

- 월요일~금요일 / 08:30~12:00, 14:00~17:00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여행객의 경우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다. 부패 이민청 직원이 아무 이유 없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은 필요 없다.
- 과테말라는 미국으로 통하는 주요 마약 루트로 의심받을 만한 물품 소지 및 과다 현금 보유는 엄격히 통제하므로 통관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우리나라와 같이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아 큰 병원으로 가는 체계가 없으며, 원할 경우 바로 큰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일반 약품 구입 시 처방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입 희망 약품의 성분 및 약품명을 아는 경우 처방전이 불필요하다. 항생제와 페니실린 계통, 항정신성 의약품은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하다.
- **주의해야 할 질병**
 - 뎅기열 : 유행성출혈열과 같은 계통의 풍토병으로, 모기에 의해서 전염된다 (아열대성 기후의 저지대에만 해당).
 - 아메바성 장염 : 수인성 전염병으로, 주재국은 정화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분뇨가 그대로 방출되며, 특히 우기철에는 근해에서 잡힌 생선들이 오염이 되어 생선회를 먹을 경우 감염될 확률이 높다.
 - 바이러스성 장염 :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1세 미만의 유아가 'Rotta Virus'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 시 '불가역적 탈수'를 피할 경우 1주일~10일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된다.
 - 주재국의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으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진료비는 1회 진료에 대략 \$50 정도 요구한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10, 120
- 화재 신고 : 122, 123
- 응급환자 : 128
- 911 구조대 : (502) 2362-5157 / 2362-5177
- 아우로라 공항 : (502) 2260-6257
- 전화번호 문의 : (502) 2333-1524
- 교통경찰 : 1551
- 주요 국립병원(과테말라시)
 - Hospital General San Juan de Dios : (502) 2253-0423, Zona 1
 - Hospital Roosevelt : (502) 2471-1441, Zona 11
- 동포 운영 병원
 - 복음병원 : (502) 2433-2638
 - 동서한의원 : (502) 2439-5029
 - 중화한방병원 : (502) 2439-3252 / 5105-4317

팁 제도

- 기본적으로 10%가 계산서에 포함되어 청구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5시간

전력 사용 현황

- 110V / 60Hz
- TV 및 비디오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NTSC 방식이다.
- 전력 사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특히 우기에는 수시로 정전이 되어 각 사무실에 UBS(예비전력공급장치) 비치가 필수적이다.

과테말라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과테말라 관련 정보는 <http://www.congreso.gob.gt>에서 확인한다.

언어

- 스페인어(문맹률 29.4%)



시차 한국보다 13시간 느림
 화폐단위 동카리브달러(East Caribbean Dollar)/100cents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dom.mofat.go.kr>
 도미니카정부 홈페이지 www.dominicanrepublic.com



현지 치안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도미니카공화국은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한 여행 경보 단계 지정 지역의 4단계 분류표상 제1단계인 '여행 유의 단계'에 속한 국가이다. 전반적인 치안 상태가 양호한 상태는 아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최근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이 본국에 송환됨에 따라 치안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야간 보행은 삼가야 한다.
- 관광객이 많이 출입하는 지역에서는 대낮에도 오토바이 소매치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행 시 귀중품은 휴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 인근 아이티로부터 부랑자가 대거 유입되어 강도, 총기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내 개인 소유 총기는 약 70만 정에 달한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교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새러소타를 포함한 벨라비스타 지역에서 현금을 노리는 강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문단속 및 귀중품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 야간에 혼자서 도보나 자동차로 외출하는 것을 피하고, 특히 도시지역에서 늦은 밤 외출은 자제해야 한다.
- 주행할 때 창문을 내리거나 인적이 드문 해변 도로에서 정차하는 행위는 삼간다.
- 대중교통 이용을 가급적 삼가고 지정된 콜택시를 이용한다. 특히 합승택시

도미니카 | 중남미



(Derecho)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나 소매치기나 기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교통

- 전국에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나, 대중교통 시설은 상당히 취약하다.
- 주요 도시마다 연결된 항공 노선이 있으며 수도 산토도밍고를 비롯한 푸에르토 플라타, 라로마나, 폰타카나, 바라호나 등에 국제공항이 있다.
- 콜택시 : 아폴로 택시 (1-809) 537-0000 / 아나카오나 택시 (1-809) 530-4800
- 주행 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휴대폰 사용 시 면허증 회수와 벌금(RD\$500)을 지불해야 한다.

도로교통

- 도미니카공화국 시내에는 작동되지 않는 신호등이 많고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상태가 불량하므로 교차로 운전 시 주의해야 한다.
- 운전학원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운전 매너가 나쁘고 야간에는 음주운전자가 많으므로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 비보호 진입 차량이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는 일이 다반사이므로 직진도로를 주행하더라도 주변 차들을 잘 살펴야 한다.

기후

-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이며, 연평균 기온은 27°C, 연평균 강우량은 약 1,500~1,800mm이다. 건기(11~4월)에는 낮 평균 기온이 35~38°C 정도로 고온이며, 우기(5~10월)에는 폭우가 동반되기도 한다. 8~9월에는 열대지방 열사현상으로 저녁 늦게까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

자연재해

- 2007년 10월 노엘, 12월 올가 등 열대성 폭풍으로 인해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악천후 때는 수상스포츠나 선편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 우기에 집중강우 현상이 있고 배수시설 불량으로 도로 침수가 잦은 편이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카리브 지역의 느긋함이 배어 있어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행동도 느린 편이지만 운전습관은 조급한 편이다.
- 날씨가 더운 곳이지만 반팔셔츠나 반바지 차림으로는 잘 다니지 않는다.
- 향수 문화의 발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수를 즐겨 사용하며 만찬이나 행사에 초청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향수 사용을 권장한다.
- 상대방과 친해지면 만나거나 헤어질 때 옴베시토(un besito)라고 하여 서로 볼을 맞대는 인사를 한다. 남녀 간에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자들 간에도 하지만 남자들끼리는 하지 않는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Avenida Anacaona No.7, Los Cacicazgos, Santo Domingo, República Dominicana
- 전화 : (1-809) 532-4314~5, 534-8320
- 팩스 : (1-809) 532-3807
- E-mail : embcod@mofat.go.kr
- 홈페이지 : <http://dom.mofat.go.kr>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8:30~17:00(점심시간 12:30~14:00)

영사협력원 연락처

- 영사협력원 : 양희철 윌비스 아이티 대표(아이티 거주)
 - 전화 : (1-509) 3250-6733
 - 휴대폰 : 509-2551-3024
 - E-mail : hcyang@willbes.com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3개월간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90일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1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이민청 : (1-809) 534-9036
 - 홈페이지 : <http://www.migracion.gov.do>
- 취업 등 장기 체류로 입국할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획득해야 한다.
- 주한 도미니카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310번지 태평로빌딩 19층
 - 전화 : (02) 756-3513
 - 팩스 : (02) 756-3514
 - 홈페이지 : <http://www.embadom.or.kr>
- 입국심사할 때 입국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세관심사할 때 휴대품 신고서(동식물 반입 금지, 고가품 과세)와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 말라리아 감염에 대한 위험은 없으나, 일종의 변종 말라리아라 할 수 있는 뎅기 열(Dengue)에 걸릴 위험은 상존한다.
 - 현지 거주를 위해 특별히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도착 전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 수돗물은 석회 성분이 많아 식수로 부적합하므로 식수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 사립 UCE 종합병원 : (1-809) 221-0171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911 / 경찰청 대표 전화 : (1-809) 682-2151
- 화재 : 911 / 소방서 대표 전화 : (1-809) 682-2000
- 응급환자(구급차) : (1-809) 531-0000

차량 수리

-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데 부품 재고가 없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팁 제도

- 공항, 호텔에서는 짐 1개당 \$1를 지불한다.
- 식당에서는 청구서에 봉사료(10%)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통상 식대 가격의5% 내외의 추가 팁을 지불해야 한다.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경비원에게 \$0.5~1를 지불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3시간

전력 사용 현황

- 110V / 60Hz

도미니카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대한민국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 <http://dom.mofat.go.kr>
- 재도미니카공화국한인회 : <http://www.korean-dr.com>

상품 구입

- 도미니카의 특산품인 산토도밍고 커피는 커피가 자라기 알맞은 토양에서 재배되어 향기와 맛이 일품이다.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 도미니카에서 제작되는 시거도 품질을 인정받아 미국 및 중남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멕시코 | 중남미



시차 한국보다 15시간 느림
화폐단위 누에바페소(NS\$)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mex.mofat.go.kr>
주한멕시코대사관 홈페이지 <http://portal.sre.gob.mx/corea>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전쟁, 테러의 위험성은 낮지만 국내 정세는 불안하다. 1994년 1월 치아파스주에서 무장 농민 반란 사건이 발생하여 140여 명이 사망했으며, 1997년 12월 45명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 폭스 정부는 치아파스 자파티스타 해방군 축과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최근 강력 범죄가 빈발하면서 치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납치 범죄는 마약 거래 조직, 사설 경호업체, 현직 경찰관까지 개입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2007년 한인들이 많이 영업하고 있는 테피토(Tepito) 시장에서 우리 동포 1명이 납치됐다가 3일 만에 풀려났다.
- 2008년 1월,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에게 권총을 든 2명이 돈을 요구했다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앞 트럭을 들이받자 강도들이 도주하며 총을 발사해 피해자의 오른손에 총알이 스쳐 3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 2008년 2월 한국인 밀집 지역인 조나 로사(Zona Rosa) 지역에서의 마약 카르텔 조직원에 의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치안 상황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휴대품 절도

-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소칼로 광장,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는 물론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공항, 레스토랑, 지하철에서 휴대품 절도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티후아나 등 국경 인접 도시, 대표적 관광지인 레포르마 인근의 중급 호텔에서도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책]

- 분실을 대비하여 여권은 복사본을 반드시 휴대하고 신용카드 번호와 카메라 등의 상품명을 기재해 놓도록 한다.
- 현금은 가능한 한 의복의 내부 주머니에 넣고 분산하여 휴대한다.
- 헐렁한 옷은 감각이 무디어지기 쉬우므로 피한다.
- 휴대품은 의자 등에 놓아두지 말고 항상 휴대한다.
-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말아야 한다.
- 국경 인접도시에서는 호텔 직원도 믿기 어려우므로 여권, 현금, 보석 등의 귀중품은 외출 시 안전박스에 넣고 방 안에 남겨 두지 않는다.

[사례 2] 노상강탈(들치기)

- 스페인식 건축 양식이 발달하여 작은 광장들이 많으며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통행자가 없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대책]

-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는 들어가지 말고 민예품을 살 때는 단제로 행동한다.
- 오토바이가 접근할 때는 휴대품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쓴다.

[사례 3] 수면제 강도

- 한인 밀집지역인 소나로사는 유흥업소가 많아 범죄에 취약하다. 택시를 탔다가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고 금품을 강취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대책]

- 술에 취해 심야에 택시를 탈 경우 반드시 콜택시를 이용하고, 혹 운전자가 음료를 권할 경우 정중히 거절한다.

[사례 4] 금품을 요구하는 경찰

- 국경 인접 도시의 경찰관들은 마약 조직원들과 내통하는 경우는 물론, 일반 관광객들을 상대로 공공연히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책]

- 차량을 렌트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한다.
- 경찰관이 과도하게 행동하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조사의 목적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 금품을 요구하면 근처 상점이나 통행인에게 알려 도움을 청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와 외곽 멕시코주가 특히 범죄 발생이 많은 지역이다. 멕시코의 모든 도시에 있는 관광객 대상 상점인 소칼로(Zocalo)에는 혼잡한 틈을 이용한 절도, 날치기와 골목길 등에서의 강도가 성행한다.
- 멕시코시티의 센트로 지역에 위치한 재래식 상가 밀집지역인 테피토 시장은 밀수품, 마약, 무기밀매 및 살인사건 등 범죄가 횡행하므로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및 메트로 버스를 2~4.5페소(한화 200~450원 상당)면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이 낙후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소지품 도난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하는 지하철은 거리와 상관없이 요금이 2페소이며 매우 붐빈다.
- 멕시코에서는 택시에 의한 강력사건이 빈발하므로 필요시에 상점, 호텔 등에 요청하여 시티오(Sitio, 한국의 개인택시) 또는 공항택시를 이용한다.

도로교통

- 도로가 움푹 파였거나 과속 방지턱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일반통행인 경우가 많다.

기후

- 해안지대는 열대성 기후로 연중 고온다습하고, 중부 고산지대는 우기를 제외하고 건조한 온대성 기후, 나머지 국토는 아열대 기후이다.
- 멕시코시티는 해발 2,300m에 위치해 연중 온난하나 일교차가 심해 스웨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우기는 4월 말부터 10월까지 지속된다.

자연재해

- 멕시코만 지역은 허리케인과 태풍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멕시코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속해 지진도 종종 발생한다. 1985년 9월 19일 8.1도 지진이 발생하여 수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바 있다.
- 술병을 들고 거리에 돌아다니면 형사 입건되므로 삼간다.
- 사순절 날 현지인에게 술을 권하지 않는다.
- 결혼식, 공식 파티에는 필히 정장을 착용하고 흰 양말은 피한다.
- 호텔 내 디스코텍에 운동화와 진을 착용하면 입장을 막기도 한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손가락으로 OK 표시는 나쁜 뜻이다.
- 엄지손가락을 세운 'Thumbs Up' 은 괜찮다.
- 경조사에 축의금은 통용되지 않고 간단한 선물을 주로 한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Lopez diaz de Armendariz #110, Col,Lomas de Virreyes, Del,Miguel Hidalgo, Mexico D.F.
- 전화 : (52-55) 5202-9866
- 팩스 : (52-55) 5540-7446
- E-mail : embcoreamx@mofat.go.kr
- 홈페이지 : <http://mex.mofat.go.kr>
-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8:00

영사협력원 연락처

- 쿠바 조영수 코트라 관장
 - 주소 : Ave. 3ra, e/ 76 y 78, Edificio Santa Clara, Oficina 412, Miramar Trade Center, La Habana, Cuba
 - 전화 : (53-7) 204-1020, 1117, 1165
 - 팩스 : (53-7) 204-1209
 - E-mail : yscho@kotra.or.kr



출입국 시 유의 사항

사증 취득

- 멕시코는 관광이 목적인 일반인의 경우 90일간 사증이 면제된다. 관광 이외의 상용, 유학 등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주한멕시코대사관에서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출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 테러 방지를 위해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마약으로 오인되는 물품의 반입을 자제한다. 가공하지 않은 식품류, 육류 및 과일의 반입은 금지된다.
- 중국 조선족이 위조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단체로 입국할 때, 이들과 동행하다가 '불법 입국 인솔자'로 분류되어 출발지로 다시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다.
- 대부분 IMSS(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병원 진료비는 무료이지만 의료 시설이나 기술면에서 낙후되어 있다. 부유층들은 별도의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 적십자 병원처럼 외국인도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긴 하지만 의사나 시설의 질이 떨어진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한국인 의사가 운영하는 한·멕시코 연합클리닉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 약품 구입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나,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의 증세를 말하면 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한다.
- 수도물은 식수로 적합하지 못하므로 병에 든 생수를 먹도록 한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멕시코시티 경찰 : 060
- 앰블런스 : 065 / 소방서 : 068
- ABC병원 : (52-55) 5277-5000 / 한·멕시코 연합클리닉 : (52-55) 5514-6106
- 자동차 분실, 행방불명 : (52-55) 5658-1111

차량 수리

- 긴급 차량 수리(AMA SERVICIO) : (52-55) 5588-7055
- 관광청에 속해 있는 경찰들이 무료로 견인을 도와준다.

팁 제도

- 팁은 10% 정도가 일반적이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5시간(서머타임 실시 기간인 4월 첫째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는 -14시간)

전력 사용 현황

- 지역에 따라 110V, 220V가 공급되므로 110~220V 겸용을 준비한다.

멕시코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주멕시코대사관 : <http://mex.mofat.go.kr>
- 멕시코 관광 관련 : <http://www.mexico-travel.com>

언어

- 스페인어



기타 참고사항



베네수엘라 | 중남미



시차 한국보다 13시간 30분 느림
화폐단위 볼리바르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ven.mofat.go.kr>
베네수엘라정부 홈페이지 www.gobiernoenlinea.gob.ve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전쟁, 내란, 테러 사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콜롬비아와의 국경지대에서 콜롬비아 반군 게릴라 활동 및 마약 밀매가 계속되고 있어 납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치안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단독 지방여행은 자제한다.
- 최근 대인상해 및 절도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한국에서 출장을 온 사람이 공항에서 가방을 도둑맞은 적이 있고, 일반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던 중 강도로 돌변한 운전사에게 현금과 시계, 보석, 카드를 강탈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 자동차로 이동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강도가 권총으로 위협한 후 현금, 시계, 보석 등을 강탈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상습 절도

- 인파가 많은 시내 거리, 지하철, 택시 등에서 강도 및 절도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 특히 심야에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횡단보도에서 이런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대책]



현지 치안 상황

- 눈에 띄는 옷은 입지 말고 귀중품이나 현금 노출을 자제한다.
- 권총 강도를 만났을 때 큰 반항 없이 현금을 주면 총격이나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외출할 때 어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더라도 정지하지 말고 속도를 늦췄다가 출발하는 것이 좋다. 창문은 대낮에도 열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사례 2] 신용카드, 수표 사용에 주의

- 최근 현지에서 신용카드 복사 기술을 이용한 절도 범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책]

-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중교통

● 버스

- 요금 : 0.9BF(볼리바르 푸에르테, 한화 500원 정도)
- 시내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도 있으나, 보통 정류장 표시가 없는 곳에서도 버스가 서는 곳이 많다.
- 버스 앞이나 문 옆에 노선이 적혀 있다.

● 지하철

- 요금 : 0.5BF(한화 300원 정도)
- 시내에 전철 2개 노선이 있다.

● 택시

- 기본요금 : 15BF
- 요금 책정 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승객은 탑승 전 운전기사와 가격 흥정을 하게 된다.
-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TAXI'라고 쓰인 차량을 이용하고, 가급적 신행 택시나 호텔 택시를 이용한다.

● 모토택시(오토바이를 이용한 택시)

- 요금 : 20BF
- 카라카스 시내에는 오토바이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만큼 사고율도 높다. 안전보호구 착용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토택시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

- 교차로에서는 각 1대마다 교차 운행한다.
-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적이나 단속은 잘 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운전자가 조금의 틈만 있어도 끼어들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접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족 사고의 위험도가 높다.

- 국제면허증이 현지에서 통용되나 간혹 교통경찰이 국제면허증에 대한 인지가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기후

- 고도에 따른 기온차가 심하다. 고지대는 연중 우리나라의 봄기를 정도의 날씨를 보이나, 저지대는 전형적인 열대기후이다. 수도 카라카스(해발 900m)는 연중 평균 기온 21℃이다.
- 우기는 6~11월, 건기는 12~5월이다.

자연재해

- 우기 시 높은 강수량으로 인해 배수시설이 나쁜 지역에서는 홍수 피해의 위험이 상존한다. 또한 높은 산에 위치하거나 산지에 둘러싸인 건물의 경우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있다.
- 전반적 국민성은 이탈리아인과 유사점이 많다. 낙천적이고 태평스러우며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정이 많고 예술적 소양이 높다.
- 점심 식사는 2시간이나 계속되고, 저녁 식사는 8시경에 시작해서 자정을 넘기기도 한다. 식당도 저녁 8시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 파티를 무척 즐기며 새벽 3~4시까지 계속되는 것도 다반사이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이들 파티는 상당한 소음공해를 일으킨다. 외국인의 이의 제기도 소용이 없다.
- 식사에 초대했을 때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늦는 것은 보통이며 사전에 통보 없이 불참하는 것도 예사이다. 각종 행사도 예정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시작한다.
- 손님을 영접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의를 보인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Av. Francisco de Miranda, Centro Lido, Torre B, Piso 9, Ofic. 91-92-B, El Rosal,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954-1270, 1139, 1006
- 팩스 : (58-212) 954-0619
- E-mail : venembajada@cantv.net
- 홈페이지 : <http://ven.mofat.go.kr>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8:30~17:30(점심시간 12:00~14:00)
- 긴급 시 영사 연락망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 오운용 영사 : 휴대폰 (58-414) 241-0056
- 전한일 서기관 : 휴대폰 (58-414) 139-2878

영사협력원 연락처

- 최미혜 : 휴대폰 (58-426) 900-1243
- 신영선 : 휴대폰 (58-414) 804-4759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베네수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이 목적일 경우 비자 없이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주한베네수엘라대사관(02-732-1546~7)에서 사전에 입국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 외화는 사전 신고하면 미화 \$10,000까지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미화 \$10,000까지 소지하고 출국할 수 있다.
- 무기, 마약, 생고기류, 생야채, 과일, 씨앗, 식물, 약품 등은 관계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반입할 수 없다.
- 신변 지참물로 인정되는 물품은 무관세 반입이 가능하며 주류는 2병, 엽권연은 50개비, 담배는 200개비까지 무관세 반입이 가능하다. 입국 시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한다.
- 카라카스 공항의 경우 통관 시 통관대에 설치된 신호등의 버튼을 눌러 녹색등이 켜지면 수하물 검사를 하지 않고 적색등이 켜질 경우 수하물 검사를 한다.
- 출국 시에는 115BF(미화 \$50 상당)의 공항세와 46BF(미화 \$20 상당)의 출국세를 내야 한다.
- 미국 국적의 항공사 이용 시 안전여행 규정상 본인이 직접 탑승 수속을 해야 하는 등 수속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3시간 전에는 미리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통과 여객인 경우에도 미국 비자가 없으면 탑승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한국에서 미국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 2003년 10월부터 남미·아프리카 등 황열병 다발 지역에 입국 및 출국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예방접종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적어도 2주 전에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는 것이 좋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국립병원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의약품이 상당히 부족하다.
- 사립병원은 진료비가 215BF(미화 \$100 상당)으로 비싼 편이다.
-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하려면 처방전을 지참해야 한다. 단, 일반 감기약, 해열제, 지사제, 소화제 등의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화재, 긴급 의료 지원 : 171
- 교통사고 : 167
- 전화 고장 : 155, 수리에 장기간 소요된다.

팁 제도

- 공항에서는 수하물 1개당 미화 \$1 정도 지불한다.
- 식당에서는 청구서에 소정의 봉사료 10%가 포함되어 있으나, 5% 내외의 팁을 별도로 주는 것이 관례이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3시간 30분(2007년 12월부터)

전력 사용 현황

- 120V / 50~60Hz

베네수엘라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환율은 정부 지정 고정환율제로 2008년 4월 현재 US\$1 = 2,15BF이며, 주재국 외환 통제국(CADIVI)에 의해 달러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공항, 호텔 등 환전소에서 환전할 경우 공식 환율이 적용된다. 현 정부의 외화 통제 정책으로 인해 비공식 환율(dollar paralelo)이 존재하여 수시로 변동한다(2008년 4월 현재 약 3,1BF).
※ 주의 : 출입국 심사 시 공항 직원이 입국자에게 환전해 주겠다고 제의할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 수도시설이 낙후하므로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황열병, 뎅기열(감기 증상과 유사)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 현지 슈퍼마켓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업한다. 대부분의 한국식품 재료는 중국식품 주말시장(일요일 오전)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 : <http://ven.mofat.go.kr>
- 베네수엘라 정부 대표 사이트 : <http://www.gobiernoonlinea.gob.ve>

언어

- 공용어 : 스페인어



브라질 | 중남미



시차 한국보다 12시간 느림
 화폐단위 헤알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bra-brasilia.mofat.go.kr>
 브라질(상파울루)주정부 홈페이지 www.brasil.gov.br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대규모 테러 사건은 없으나 무토지 농민 운동(MST)이 전국 각지에서 국유지, 농장 등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점거하는 등 정부기관에 항의하는 행동을 한다. MST는 도시에서 무차별 파괴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토지를 점거할 때는 폭력적인 행동을 취한다.
- 1996년 4월 브라질 북부 파라주 엘도라도 도스 카라자스 지역에서 발생한 경찰과 농민 시위대의 충돌로 MST 회원 19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당한, 이른바 '카라자스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해마다 4월에는 MST 회원의 붉은 시위가 있다.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3국 국경지대에는 마약, 밀수, 총기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리오 및 상파울루는 파벨라(빈민가)를 활동 거점으로 한 범죄 조직과 경찰 간의 총격전, 마약단 간의 세력 다툼 총격전이 빈번하여 유탄에 시민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노리는 범죄도 빈발하고 있다.
- 위성도시에서 권총 강도, 살인, 유괴 등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마약 조직 간 세력 다툼으로 살인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과룰루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여행객이 소지하고 있던 외환(미화 약 \$140,000)을 입국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공항 연방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치안 상황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쇼핑센터, 공항 등에서 소매치기, 소지품 도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주택지의 공터에서도 강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리아는 차량 및 금품을 강탈하는 절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 2007년 12월 배낭여행객 최 모 씨가 호텔 물색을 위해 시내 보행 중 14~15세가량의 청소년 3명이 달려들어 소지품 가방을 강탈해 갔다.
- 프랑스 배낭여행객이 혼자서 야간에 시내 산책 중 강도를 당했는데 돈이 없자 사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 일본인 관광객 부부가 새벽에 호텔 밖으로 산책을 나왔다가 날치기를 당하고 남편이 급하게 길을 건너 뒤쫓다 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강도, 절도, 노상강탈

- 공원이나 광장, 시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부랑자들에 의한 소매치기나 절도 범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나 환전소 앞에서 방심한 사이에 현금을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다.
- 관광지 혹은 시가지에서 보행 중인 관광객에게 몰래 초콜릿 등을 묻히고는 다가와 친절히 닦아 주는 척하다가 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대책]

- 시내 보행을 할 때는 간소한 복장을 해야 한다. 정장을 하면 외국 관광객으로 인식하여 강도 및 절도의 표적이 된다.
- 흥기를 소지한 강도를 만났을 경우 시키는 대로 해야 안전하다. 만일 저항하면 대부분 총격을 가하고 도주해 버린다. 외출 시 별도의 지갑에 \$50(80헤알) 상당의 현금을 지참하는 것도 요령이다.
- 초범 또는 마약 중독 강도들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것을 총을 꺼내는 것으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가 직접 지갑을 꺼내 가도록 유도한다.
- 현금 및 귀중품은 호텔의 안전박스(Safety Box)에 보관하고, 가능한 한 현지 한인 또는 전문 가이드를 활용하거나 바이어가 보내 주는 차량을 이용한다. 단독 외출 시에는 호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고가의 목걸이, 귀걸이, 시계 등은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은행원에게 의뢰하도록 한다.
- 은행에서 현금 인출 후 바로 나오지 말고 주변에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주변에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주의한다.

[사례 2] 차량을 노린 무장 강도

- 자동차로 도로 주행 중 적색 신호등 앞에 정지해 있다가 무장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 도로에 장애물을 놓거나, 주차 중인 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서 차를 정차시킨 후 금품이나 차량을 강탈하는 경우도 있다.

[대책]

- 운전 중 창문을 열지 않도록 하고 위험 징후가 보이면 빨리 현지를 벗어나야 한다. 특히, 여성 운전자는 강도의 목표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운전 중에는 미행하는 차나 오토바이가 있는지를 수시로 살피고, 미행당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휴대전화로 즉시 190번(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서나 주유소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 차에 이상이 있을 경우 차를 즉시 정차시키지 말고 서행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도록 한다.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절대 창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사례 3] 여권 분실

-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분실한 여권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특히 관리에 주의한다.

[대책]

- 여권이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돈지갑과 다른 주머니에 휴대하도록 한다.
- 여권이나 신분증은 사본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여권 복사본과 사진은 여권과는 별도로 휴대한다.
- 신용카드 번호와 여행자수표 일련번호를 기재해 두고 분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 연락처를 적어둔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브라질리아

- 맘바이아, 파라노아, 타바팅가, 세일란디아, 산타마리아 등 위성도시에는 범죄 발생률이 높다.

● 상파울루

- 남미 최대의 상공업 도시로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내 변화가, 관광 명소, 공원 등에 권총 강도, 치기배, 불량자들이 도사리고 있다.

● 리우데자네이루

- 아침 6~8시 사이는 경찰 근무 교대 시간으로 해변은 물론 시내 전체가 취약하므로 산책을 피한다.
- 유명한 코파카바, 레미 해변은 비교적 서민층이 많이 찾는 곳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 이과수

- 이과수 폭포 등 관광코스로 개발된 지역은 치안이 안정되어 있으나 관광 코스를 벗어난 지역은 야외는 물론 시내에서도 외국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과수 폭포가 위치한 ‘포즈 도 이과수’시는 관광명소이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개국 접경 도시로서 비교적 국경 통과가 쉬워 마약 밀매나 밀수가 성행한다.

● 벨렘

- 관광명소인 프라사 다 헤푸블리카와 재래시장 주변은 소매치기, 들치기, 권총강도가 많다. 야간에 영업하고 있는 약국, 음식점 등도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야간 출입은 삼간다.

● 마나우스

- 마나우스에서는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관리가 엄격하다. 동식물의 채취 및 국외로 반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브라질 환경재생가능천연자원기관(IBAM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레시페

- 구 시가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주변에는 빈민가(파벨라)가 많이 있고, 흥약사건 다발지역이다.

대중교통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 전철

- 상파울루시 노선 : 1호선(파랑) Jabaquara~Tucuruvi(20,2km) / 2호선(녹색) Alto do Ipiranga~Vila Madalena(10,7km) / 3호선(빨강) Corinthians, Itaquera~Palmeiras, Barra Funda(22km) / 5호선(보라) Capao Redondo~Largo Treze(4,7km)
- 국제공항에 연결된 철도 및 지하철은 없다.

● 버스

- 전동차와 일반버스 두 종류가 있다.
- 요금은 \$1,41(2,4헤알)

● 고속버스

- 상파울루시와 리우데자네이루시 사이를 운행하는 고속버스는 약 10분~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다.

● 택시

- 합승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 기본요금은 \$2,23(3,8헤알)
- 거리에 돌아다니는 택시보다는 호텔에 정차해 있는 택시를 이용하고 공항에서는 라디오택시(Radio Taxi, 선불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철도

-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사이를 연결하는 철도 길이는 430km이다. 그러나 철도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여행자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하다.

● 항공

- 브라질은 광활한 영토(한반도의 37배)를 가진 나라로 장거리 여행에는 각 주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도로교통

- 상파울루시 도로는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정비 상태가 불량하다.
- 도심에서 운전하다 보면 차량 및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 신호를 주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이 현지에서 통용된다. 체류 기간 1년 이내에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한국에서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오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먼저 적성검사를 받아야만 한국운전면허증을 상파울루주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브라질리아 시내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는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 무보험 차량이 많고 사고가 발생해도 무책임하므로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과금이 많다. 운전자석, 조수석 및 뒷좌석 동반자들의 안전벨트 착용도 의무사항이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금을 \$80(127.69헤알) 정도 내야 한다.

기후

- 국토가 광대하여 지역마다 기후가 상이하다. 브라질리아는 18~30℃의 아열대성 기후로서, 건기인 4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는 비가 오지 않고 매우 건조하며 습도 15% 이하로 사막 기후를 나타낸다. 특히 겨울철인 6월에서 8월 중순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 북부 아마존 지역은 열대이고 상파울루주, 리우데자네이루주, 파라나주는 남회귀선(남위 22.5도) 인근 지역으로 아열대성 기후이다. 남동부 지역인 리우그란지두술주, 산타카타리나주는 온대성 기후이나 겨울에 춥지 않고 온화하다.
- 우기인 10월에서 익년 3월까지는 심한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하루에 한두 차례 오며, 기온은 한국의 5월 말이나 6월 초의 20℃에서 30℃ 정도이나 습기가 적기 때문에 실내는 서늘하다.

자연재해

- 우기에는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산사태가 나거나 도시지역에는 주요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강물 범람으로 고립되는 지역이 발생하므로 긴급적 여행을 삼가고 운전 시 조심해야 한다.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질병

- Dengue열은 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우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 증상으로는 고열, 두통, 발진, 구토, 근육통이 나타나며 예방접종이나 예방약이 없다.
- 모기가 많이 나오는 해를 무렵, 해질 무렵에는 긴소매 셔츠, 긴 바지 등을 입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한다.
- 브라질 사람은 시간관념이 철저한 편이 아니며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 관광 등의 단기 체류자는 여권을 휴대하고, 90일이 넘는 일시 체류자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 신분증명서(또는 프로토콜)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
- 마약 조사는 브라질 연방경찰의 권한에 속하고 형벌도 매우 엄하다. 마약 소지나 국외 반출은 3~15년 금고 또는 최저임금의 50~360일분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운반'에 관여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본인의 가방 및 물건은 본인이 직접 포장한다.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이나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거절해야 한다.
 -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도 본인이 포장하지 않은 물건은 운반하지 않는다.
 - 공항에서 물건을 잠시 맡아 달라고 하더라도 거절한다.
- 총기는 군대, 경찰, 공안직원, 경비회사 경비원 등 법률로 인정된 사람만 소지할 수 있다. 총기를 개인이 소지하는 경우에는 연방경찰에 등록을 해야 한다.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연령은 25세 이상이고, 보관 장소를 자택 내로 한정하고 있다.
- 군사, 보안지역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이 오지의 인디언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인디언을 촬영할 경우, 사전에 인디언보호원(FUNAI)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밖에 파벨라(빈민가)에서의 사진 촬영은 삼가야 한다.



긴급 영사 연락망

브라질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SEN-Avenida Das Nacoes Lote 14, 70436-900, Brasilia-DF, Brasil
- 전화 : (55-61) 3321-2500
- 팩스 : (55-61) 3321-2508
- E-mail : emb-br@mofat.go.kr
- 홈페이지 : <http://bra-brasil.mofat.go.kr>
- 근무 시간 : 월~금 / 09:00~18:00(점심시간 12:30~14:30)
- 근무 시간 외 비상 연락처 : (55-61) 9658-2421

상파울루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AV. PAULISTA 37, 9 ANDAR(AL, SANTOS 74, 9 ANDAR)
- 전화 : (55-11) 3141-1278

- 팩스 : (55-11) 3141-1279
- E-mail : cscoreia@mofat.go.kr
- 홈페이지 : <http://bra-saopaulo.mofat.go.kr>
-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8:00(점심시간 12:00~14:00)

영사협력원 연락처

- 리우데자네이루(권오상) : 휴대폰 021-9199-9100 / 쿠리치바(조영근) : 휴대폰 041-9199-9100 / 이과수(김형섭) : 휴대폰 045-9108-4831

사증(비자)

- 한국과 브라질은 2002년 5월 20일부터 관광, 상용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90일까지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다.
- 관광사증은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장 체류 기간이 연간 180일로 제한된다. 180일을 체류한 후에는 브라질을 출국하여 해외에서 180일을 체류해야만 다시 관광사증을 받을 수 있다.
- 사증을 갱신할 경우 관광사증은 유효기간 내에, 일시 체류사증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관할 연방경찰에 신청해야 한다.
- 사증에 대한 문의는 주한브라질대사관(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141 인화당 빌딩 4~5층, 전화 (02) 738-4970, 팩스 (02) 738-4974)으로 하면 된다.

출입국 및 통관

- 입국심사는 입국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브라질에 입국할 때 입국심사관이 여권 및 출입국관리카드에 입국 스탬프를 찍어 주는데 입국 스탬프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한다.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인접국에서 브라질로 입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연방경찰서에 가서 입국 스탬프를 받도록 한다.
- 세관심사는 휴대품 신고서와 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면세 품목은 도서, 신문, 잡지류, 개인용 의류, 위생용품, 화장품, 신발 등 여행용품과 사무용품, 합계 \$500 이하의 구매물품(육로 입국 시 \$300) 등이다.
- 반입 금지 품목 : 마약류, 향정신성 약품류 / 모조 총기 / 공중보건 위해물질 / 브라질산 해외 수출용 담배 · 주류 / 야생 동식물 / 18세 미만 여행자의 주류 · 담배
- 개인 화물 반입 불가 품목 : 판매 목적의 물품 또는 산업용도의 물품 / 선박, 보트 엔진(종류 불문) / 자동차, 모터사이클, 스쿠터, 엔진 부착 자전거, 트레일러 등 / 항공기
- 브라질은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있고 이곳에서 \$500 이하 구매품은 입국 시 면세 품목 범위인 \$500 이하 구매품과 별도로 면세되며 휴대화물신고서에 기재하



출입국 시 유의 사항

지 않아도 된다.

- 주류 24병(동일 종류 12병) / 외제 담배 20보루 / 시거 25개 / 파이프용 담배 250g / 화장품 10개 / 시계, 장난감, 게임기, 전자제품 등 각 3개

- 외화 반입은 현금, 여행자 수표 등을 포함하여 금액 제한이 없으나, 총액이 현지화 1만 헤알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외환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 휴대품신고서(ABC : Accompanied Baggage Declaration)에 기재하고, 도착 후 공항 세관에서 CCD(Currency Carry on Declaration)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 출국 시 남은 현지 통화를 외화(미화)로 다시 환전할 경우에는 외화를 현지 통화로 교환할 때 받은 현금 증명이 필요하다.

- e-DPV제도 : <http://www.receita.fazenda.gov.br/dpv>(세관)에서 사전 신고가 가능하다.

예방접종

- 브라질 입국 10일 전에 예방접종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꼭 휴대한다.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도, 볼령 가이아나, 파나마,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트리니다도바고 등 북부 아마존 지역 국가에 입국하는 방문객은 반드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 황열병은 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예방접종은 브라질 내에서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황열병 예방접종은 접종 후 1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1회 접종으로 10년간 유효하다.
- 브라질의 중상층 이상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건강 진단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공립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 사립 의료기관의 치료비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보험회사에서 환불받는 금액이 적어 보험 환자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치과 치료는 대부분 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다.
- 의약품 구입 시 처방전이 필요하나 소화제, 감기약 등은 처방전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 브라질 전국 각 지역에서 Dengue열이 만연하고 있으며 특히, 리우데자네이루주에서는 Dengue열 비상령을 선포했다. 사망자가 약 100여 명에 달하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은 저항력이 약한 2~13세 유아들이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90
- 화재 : 193
- 구급차 : 192
- 수도, 전기 고장 : 195

팁 제도

- 식당, 호텔 등의 요금계산서에 10%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팁은 필요치 않다.
- 체크아웃하기 위해 객실을 나올 때는 미화 \$1(1헤알) 정도 남겨 놓고 나오는 것이 예의이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2시간(서머타임 실시 기간인 10월 말부터 2월 말까지는 -11시간)

전력 사용 현황

- 브라질리아 220V, 상파울루 110V
- 현지 TV 및 비디오 방식은 PAL-M 방식으로 유럽식 PAL 방식의 TV는 사용할 수 없다.
- 전압은 대체로 고르지 못하다.

브라질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브라질 관련 정보 : <http://www.brasil.com.br>
- 남미로닷컴 : <http://www.nammiro.com>

언어

- 공용어는 포르투갈어이며 스페인어는 지역에 따라 다소 통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호텔, 공항에서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 중남미



시차 한국보다 12시간 느림
화폐단위 페소(Peso)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arg.mofat.go.kr>
아르헨티나정부 홈페이지 www.argentina.gov.ar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국제정보기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3국 접경지역에 국제 테러 조직원의 은신 및 활동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 2007년 9월 팔레르모 지역 내 스위스계 네슬레사 지사에 책자로 위장 배달된 소포 폭탄을 개봉하던 직원은 오른쪽 검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사무실은 심하게 파손되었다.
- 2005년 6월 플로레스 지역 내 미국 시설인 씨티은행과 라모스메히아 지역의 블록버스터(비디오대여점)에서 연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 현장에서 반미 무장단체인 '마리아노 모레노 민족해방단' 명의의 반미 구호가 적힌 유인물이 발견되었다.
- 테러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급적 서방계 호텔, 은행 이용을 자제하고, 유대인 대중 집회, 시위 발생 지역 근처는 가지 않는 게 안전하다. 공공장소에서는 수상한 사람이나 물건에 주의하고 방치된 물건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주재국의 치안 불안은 주재국 내 경제 상황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만성적인 문제로 1998년 이래 장기적인 경제 불안, 2001년도 경제 위기 발생 및 민중 시위에 의한 델라루아 정권의 붕괴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8~9%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국가경제 사정은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재 국민의 32%에 달하는 빈곤층의 생계형 범죄 및 빈민층 청소년의 마약 사범 증가, 페루와 파라과이 등 인접국의 불법 이민자가 증가하여 각종 강력 범죄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 불안은 주재국 내 최대의



현지 치안 상황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 2007년 10월 대통령 및 의회선거 전후 정권 교체 시기에 치안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 바 있고, 2008년 들어서도 1일 평균 7건의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 불안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2008년 1월 교민이 자택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려 할 때 인근 차량에서 대기 중이던 권총 소지 강도 4명이 접근하여 차 유리창을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차의 시동을 걸자 강도 1명이 피해자를 향해 2발의 총격을 가한 후 도주했다.
- 2007년 11월 교민 2명이 자택 앞 노상에서 차량을 점검하던 중, 봉고차 두 대로 나타난 납치 조직에 의해 납치당했다. 납치범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10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사건 발생 21시간 만에 모두 석방되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소매치기, 날치기

- 소매치기는 거리, 역, 쇼핑센터 등에서 통상 말을 걸거나 옷에 아이스크림을 묻히는 등 피해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후 지갑을 빼내가는 수법이다.

[대책]

- 여행 도중 지갑 등 귀중품이 잘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범행자는 옆이나 뒤에서 범행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주변을 주의 깊게 살핀다.
- 날치기 예방을 위해 가방은 어깨에 X자로 메고, 이동 중에는 차도변이 아닌 인도변 안쪽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며, 옆이나 뒤 등 주변을 주의 깊게 살핀다.
- 밤중에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을 혼자 다니거나, 대낮이라도 한적한 골목길을 다니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사례 2] 인질 납치

- 주재국의 빈민층은 점차 아르헨티나 사회의 조직적인 불만 세력으로 대두되고 있어 최근에는 일정 규모의 금액 탈취를 목적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소위 ‘급행 납치’ 사건도 빈발하고 있어 외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

- 납치범들은 납치 성공률이 높은 목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기에 대한 방호를 소홀히 하는 사람을 납치의 대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늘 주변 안전에 유의하고 항상 경계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 납치를 당했을 경우에는 침착해야 하며, 외부에서 모든 구출 수단을 강구하고 있

다는 점을 생각하여 함부로 저항하지 말고, 감시가 삼엄할 경우에는 절대 무모하게 도망치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산 이시드로(San Isidro), 티그레(Tigre) 등 주요 관광지 및 나인 더 줄리오(9 de Julio) 대로에서 푸에르토 마데로(Puerto Madero)까지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주재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주요 관광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저녁 시간의 외출은 삼가야 한다.
- 주재국은 총기 소지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 총기 강도 사건이 빈번하다. 특히, 한국인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
- 우리 교포 밀집지역인 한인타운(Carabobo) 지역도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불법으로 이민 간 빈민 집단 거주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유한 우리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날치기, 노상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대중교통

- 버스 요금은 90센타보, 지하철 요금은 90센타보, 택시는 기본요금이 3.14페소이며 지붕이 노란색이고 몸체가 검어 구분하기 쉽고 매우 흔하다.
- 레미스(Remis) : 일종의 콜택시인데 택시보다 약간 비싸지만 일반 택시보다 안전하다(Radio Taxi : 4556-6666).

도로교통

- 아르헨티나는 남북 약 1,200km, 서쪽으로 약 700km 이내에는 산지가 없는 광활한 평지여서 도로망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개별 도로 상황, 특히 수도권 도로는 보수한 지가 오래되어 통행이 불편하며 최근에는 교통 혼잡과 난폭 운전이 심하므로 방어 운전이 필수이다.
- 차량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므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후

- 북부는 아열대, 중부는 온대, 남부는 한대(남극) 기후를 보인다.
- 우기는 10~3월, 건기는 4~9월이다.
- 밤낮과 계절은 한국과 정반대인데 아르헨티나는 북향집이 더 따뜻하다.
-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경우 봄가을의 평균 기온은 17℃ 내외로 온난하며, 여름은 최고 35℃까지, 겨울은 최저 영상 1℃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자연재해

- 우기에 집중 홍수가 있어 지방에는 피해가 극심하며,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기후와
자연재해

서도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심한 편이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식당에서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 주재국 국민은 노란색을 싫어한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면기에 코를 풀거나 가래침을 뱉는 행위를 싫어한다.
- 수도권은 시에스타(siesta : 낮잠 시간) 문화가 거의 없으나, 지방은 시에스타 문화(시부터 4까지)가 있다.
- 국가 종교는 가톨릭이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영사과
 - 주소 : San Martin de Tours 2815
 - 전화 : (54-11) 4806-6796
 - 팩스 : (54-11) 4801-1443
- 대사관
 - 주소 : Av. del Libertador 2395
 - 전화 : (54-11) 4802-8865 / 9665 / 8062 / 0923
 - 팩스 : (54-11) 4803-6993

근무 시간

- 영사 업무 : 09:00~12:00, 14:30~16:30
- 일반 업무 : 09:00~12:30, 14:30~17:30

영사협력원 연락처

- 별도의 영사협력원이 없다.
- 정제서 영사 : 15-6707-3110
- 여승철 서기관 : 15-6397-2990
- 김상호 외사관 : 15-5132-1112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9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단,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사전에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 입국심사 도장 날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입국심사 시 입국을 확인하는 날인이 없으면 밀입국으로 간주되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 예방접종은 필요 없으며, 농수산물 및 그림 등은 반입하기가 까다롭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모든 국립병원은 무료로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 진료, 구급 수송, 보건의료원이나 공립병원도 전부 무료이며, 모든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한다.
- 취학자녀를 둔 경우 예방접종 기록을 항시 요구하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영어를 사용하는 병원은 거의 없으며 통역이 필요하다.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가정상비약은 처방전이 필요 없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연방경찰 : 101
- 화재 : 100
- 앰블런스 : 107
- 한인회 : (54-11) 4926-0567
- 한국인 종합병원(MIK) : (54-11) 4637-8006
- 전화번호 문의 : 110

차량 수리

- 쌍용자동차(한인 경영) : (54-11) 4921-8242 / 15-5565-8277

팁 제도

- 식당 모소(웨이터)에게 식사 금액의 5~10%의 팁을 지불한다.
- 객실 청소원은 2~4페소, 포터에게는 짐 1개당 2페소를 지불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2시간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PC 등 한국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전원 연결을 위해서는 별도 어댑터가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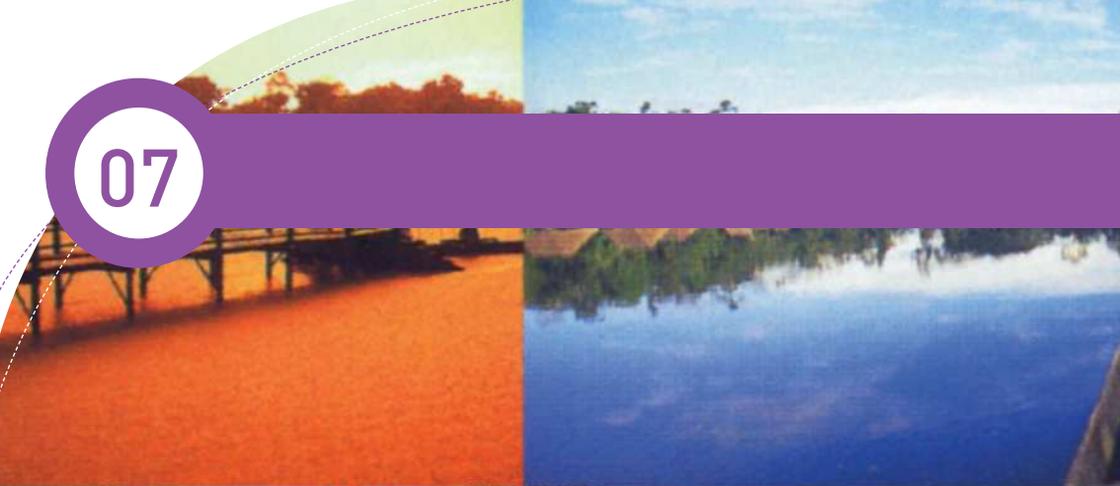
-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 <http://www.embcorea.org.ar>

언어

- 스페인어



기타 참고사항



에콰도르 | 중남미



시차 한국보다 14시간 느림
 화폐단위 USD \$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ecu.mofat.go.kr>
 재에콰도르한인회 홈페이지 <http://coreanecuador.net>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치안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특히, 동양인들은 소매치기, 강도 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에콰도르를 여행할 때는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의 여파로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 침입 절도나 강도 또는 훔기를 사용하는 조직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한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수도 키토 및 상업도시인 과야킬에는 가끔 현금을 노리는 도둑들이 한인 등 외국인의 집에 침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석, 귀금속, 많은 현금, 기타 귀중품 등은 몸에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 현지 경찰력 부족과 교통수단 등 장비 부족으로 치안 악화 방지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자동차 사고 시 처리요령

-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책]

-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교통순찰차(580-086, 432-263)를 호출, 조서를 꾸민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현지
치안 상황

- 대물사고 시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한 후 가까운 교통경찰 당국에 신고하고 교통순찰차를 불러 사고경위조서를 꾸민다. 민사 책임이 따르나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준다.
- 운전할 때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믿을 만한 정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둔다. 경찰이 오지 않거나 상대방 차가 도주했을 때에는 사후에 신고하여 조서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차후 소송에 대비하여 최소한 두세 군데에서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사례 2] 도난 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

- 여행객을 상대로 한 각종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처 요령을 익혀 두면 도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대책]

- 도난을 당한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도난 경위와 도난한 자의 인상착의를 가능한 한 정확히 진술한다.
- 범인을 잡았을 경우에는 경찰서나 법원에서 범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신분증이나 기타 중요 서류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신문에 공시해야 될 경우도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 자동차로 이동 시 적색 신호등에서 정지할 때에 권총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전 중 창문을 열지 않는다.
- 일몰 후에 혼자서 산책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
- 시내를 보행할 때에는 간소한 복장을 착용한다. 고가의 목걸이, 귀걸이, 시계도 착용하지 않는 게 좋다.
- 거리에서 아이들에 의한 소매치기나 절도가 많이 발생하므로 공원이나 광장, 시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
- 권총이나 칼 등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만나면 절대 반항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 외출할 때는 많은 현금을 휴대하지 않도록 한다. 단, 약간의 현찰은 불시의 강도를 만났을 경우에 대비하여 지참하는 것이 좋다.
-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지갑과 별도의 주머니에 휴대한다. 특히 여권, 신분증은 사본으로 휴대하는 게 안전하다.
- 현금 및 귀중품은 호텔의 안전금고에 보관하고, 가능한 한 현지 한인 또는 전문 가이드를 활용하거나 바이어가 보내주는 차량을 이용한다.
- 혼자 외출할 때에는 콜택시를 이용한다.



택시

- 키토 : 콜택시(2693693, 2222222)가 편리하나 거리에서 잡아도 무방하다. 단, 네 자리 혹은 여섯 자리의 승인번호가 없는 경우는 불법 택시이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공항에서 시내 호텔까지 \$4~\$8 정도이며 10~15분 정도 소요된다. 시내 주행 요금은 \$3~\$5 수준이다.
- 과야킬 : 어떤 택시를 타든 요금을 미리 흥정해야 한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일반적으로 \$4~\$5 정도이다.
- 쿠엥카 : 시내에서는 무조건 \$2이다.

시 운영 전철 노선

- 키토 : 전철이 3개 노선으로 운행 중으로 요금은 \$0.25이다. 각 노선의 종점에서 외곽으로 연결되는 연계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 1호선 Trole(10 de Agosto길) : 06:00~24:00(주말 06:00~22:00)
 - 2호선 Ecovia(6 de Diciembre길) : 06:00~22:00
 - 3호선 Metrobus(America길) : 06:00~22:00
- 과야킬 : Metro Via, \$0.25
 - 남북 방향 : 07:00~22:00 / 북남 방향 : 07:00~22:00

일반 버스

-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0.25이다.
-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버스의 방향을 차 앞에 쓰여 있는 방향판이나 차장의 외침으로 짐작해야 하는 관계로 이용이 용이치 않다. 정류장은 일반적으로 무시되고 어느 곳이든 승하차를 한다.

기후 및 고도

- 에콰도르는 적도에 위치하여 연중 기온차가 연교차보다 작은 곳으로 고도에 따라 기후 차가 심하다. 산악지대 평균 고도는 2,500~2,800m이다.
- 21개 기후대가 존재하며 11~3월이 우기이다.
- 연평균 기온은 해안지대 25~31℃, 산악지대 13~18℃, 밀림지대 23~32℃이다.

자연재해

- 수도인 키토에서 130km 지역에 위치한 툰구라와 화산(5,020km)이 2008년 2월 5일과 7일 양일에 걸쳐 큰 폭음을 동반한 화산재 및 가스 등을 분출함으로써 화산 폭발 조짐을 보였다.
- 주재국 정부는 이 화산 지역 내 1,500여 명의 주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켰다.
-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은 없으나 인근 바뇨스 등 온천 지역으로의 여행은 자제하는 게 좋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스페인 통치의 영향으로 전 국민의 95%가 로마 가톨릭을 믿는다.
- 큰 도시의 관공서는 점심시간을 잘 지키지만 소도시의 관공서는 점심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까지 되는 경우도 많다.
- 에콰도르인들은 점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장 많이 먹는다.
- 키토의 구시가지 쪽은 치안이 나쁘고 소매치기가 빈번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되도록 어두워지면 신시가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Av. Naciones Unidas y Republica de El Salvador Edif. Citiplaza, 8 Piso, Quito, Ecuador
- 전화 : (593-2) 2970625~8
- 팩스 : (593-2) 2970630
- E-mail : ecuador@mofat.go.kr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7:30(점심시간 12:30~14:30)

긴급 시 영사 연락망

- 영사 휴대폰 : (593) 99-725854 / 영사민원 담당 휴대폰 : (593) 92-743874
- 영사협력원(과야킬) 휴대폰 : (593) 93-002123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한-에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으나, 관광 목적 입국의 경우에 입국심사 시 왕복 항공권을 제시하면 공항에서 3개월 한도의 방문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에콰도르 정보 및 관계기관 담당자 연락처는 주에콰도르 대사관 홈페이지 <http://ecu.mofat.go.kr>를 참조한다.



긴급 영사 연락망

- 현지 의료 수준이 한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일반 진료는 문제가 없으나 중요한 수술 및 치료는 가급적 한국에서 받는 것이 좋다. 또한 현지 치료비는 상당히 비싸며 필수 의약품은 한국에서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 수도 키토가 2,850m의 고지대에 위치하여 평지보다 산소가 30% 부족한 관계로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고지대 증상인 두통, 신체 말단부분 마비, 소화불량, 현기증, 불면증, 체중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바로 적도에 위치한 관계로 일사광선과 자외선이 강해 피부암 유발, 시력 장애 등이 올 수 있다.
- 수도물은 아메바에 감염되어 있어 식수로는 부적합하며 끓여 먹거나 정수한 물을 음로수로 사용해야 하며 돼지고기는 촌충에 감염되어 있어 먹지 않는 게 좋다.
- 전염병으로는 콜레라, 디프테리아, 이질, 아메바 감염, 말라리아(매년 약 20,000명

사망) 등이 있으며, 환태평양 화산대에 수도가 있어 화산 폭발 및 대규모 지진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영어가 가능한 주요 병원
 - 키토(Quito) : Hospital Metropolitano (593-2) 2261520 / Hospital Voz Andez (593-2) 2262142
 - 과야퀸(Guayaquil) : Hospital Clinica Kennedy / (593-4) 2289666
 - 쿠엥카(Cuenca) : Clinica Hospital Monte Sinai / (593-7) 2885595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01
- 화재 : 102
- 적십자사 : 131
- 응급차 : 911
- 전화번호 문의 : 100 / 교환 : 2번
- Collect Call 신청 : 106

차량 수리

- 현지 현대자동차 대리점 및 기타 차량 정비공장을 이용한다. 단, 차량 수리 기술은 낙후된 상태이며 수리비는 대체로 한국보다 싼 편이다.

팁 제도

- 호텔, 식당 이용 시 10%, 일반적으로 5~10% 정도 팁을 지불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4시간

전력 사용 현황

- 110V / 60Hz
- TV는 NTSC 방식을 사용하므로 한국과 동일하다.

에콰도르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대한민국 주에콰도르 대사관 : <http://ecu.mofat.go.kr>
- 재에콰도르 한인회 : <http://coreanecuador.net>

언어

- 공식 언어 : 스페인어



기타 참고사항



엘살바도르 | 중남미



시차 한국보다 15시간 느림
화폐단위 콜론(Colon:SVC)/100 Centavos
총영사관 홈페이지 www.slv.mofat.go.kr
엘살바도르외교부 홈페이지 www.rree.gob.sv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10명이 살인 사건으로 피살되고 있다.
-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되는 엘살바도르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와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범죄에 대한 중미지역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도 모색 중이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엘살바도르는 연간 3,800여 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총기에 의한 사고이다.
- 살인 사건은 주로 조직 폭력배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불법 총기 소지가 만연하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쉽게 풀려난다.

주요 사건 · 사고 사례

- 빈발하는 사건 사고 유형으로는 납치 및 유괴, 강도(보행자, 숙소, 차량 대상), 소매치기 및 날치기, 택시 운전사의 승객에 대한 강도 등이다.
- 단독 범행보다 2~5인조 범행이 많고, 연소자에 의한 범행도 빈발한다.
- 총기 사용 위험이 일반화되어 있고, 드물게는 제초용 칼 등 도검류도 범행에 사용된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금품 절도 및 도난 사건

- 길거리나 호텔 · 공항 · 쇼핑센터 등 다중운집 장소, 은행 · 환전소 등에서 금품을



현지 치안 상황

노린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책]

- 동양인이 현금을 많이 휴대하고 다닌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과도한 현금이나 귀중품 휴대는 피한다.
- 유아를 동반한 부녀자는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남자 보호자와 같이 다닌다.
- 신분증, 주소가 적힌 수첩 등은 2차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집이나 차 열쇠와 수첩을 함께 휴대하지 않는다.
- 현금 인출이나 환전 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해 2인 이상 행동하고 미행자가 없는지 확인한다.
-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절대 돈을 세지 말고, 현금 봉투나 핸드백, 지갑 등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도록 휴대한다.

[사례 2] 취미·여가 활동 시

- 취미나 여가 활동을 즐기다가 부주의해서 다치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1997년 2월 3일 한국 교민 1명이 익사한 사고가 있었다.

[대책]

- 해변 전역이 모래사장의 폭이 짧고, 해저지형도 가파르데다 파도의 높이와 세기가 불규칙하여 위험하므로 가급적 해수욕을 자제한다.
- 한적한 곳이나 중하층 현지인이 많이 몰리는 장소를 피하고, 가급적 클럽이나 기타 안전한 사설 위락 시설을 이용한다.
- 카지노 출입은 납치범들에 의한 납치 범죄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간다.

[사례 3] 차량 운전 시

- 납치범들이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납치하거나 협박해 금품을 탈취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대책]

- 연료는 항상 탱크의 2/3 이상 채우고, 주행 중에는 뒷거울을 보며 수상한 차량의 접근 여부를 확인한다.
- 유원지에서 아동이 접근해 차량을 지켜주겠다고 제의하면 팁으로 25~50센트 정도 주고 제의에 응한다. 만약 제의를 거절하면 못으로 차량을 손상시킬 확률이 높다.
- 여자 혼자 운전하다가 고의 충돌로 보이는 접촉사고를 당했다면 내리지 말고 상대방 차량번호를 기억해 두고 경찰서나 관공서로 옮겨 처리한다.
- 일부 지방에서는 인사사고를 낸 경우 현장에서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신변에 급박한 위해가 가해질 것으로 판단되면 일단 현장을 이탈, 경찰에 신고 후 대처한다.

- 주차할 때는 경비원이 있는 곳이거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주차하고, 열쇠는 가급적 호텔, 식당, 클럽 종업원에게 맡기지 않는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수도 산살바도르 외곽도시인 소야판고(Soyapango), 산타 테클라(Santa Tecla), 메지카노(Mejicano), 아포파(Apopa) 및 손소나테(Sonsonate)시 지역은 치안이 특히 불안하니 이 지역에 숙소를 정하지 않도록 한다.

대중교통

- 엘살바도르에는 지하철이 없다.
- 택시는 미터기가 없어 탑승할 때 미리 요금을 흥정해야 하며 차량 상태가 열악하다. 5~20분 되는 단거리일 경우 \$5~\$10의 요금이면 되고, 장거리의 경우는 요금 흥정을 하면 된다. 안전한 택시 회사인지 호텔 데스크에 문의한 후 전화로 콜하도록 한다.
- 버스는 대부분 노후되어 매연이 심하고 고장이 자주 난다. 현금을 이용하는 버스 승객을 타기로 권총 강도가 자주 발생하므로 외국인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

- 도로교통 신호체계가 미비한 곳이 많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로 사고가 빈발하며 인명 피해도 많다.
- 도로가 패인 곳이 많아 펑크가 자주 나므로 스페어타이어와 손전등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
- 폭우 시에는 맨홀 뚜껑을 안전표시 없이 열어 놓을 때가 많고, 도로 보수공사, 차량 수리를 할 때도 안전표시판 없이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과속 운행을 하면 안 된다.

기후

- 저지대와 고원지대로 갈라져 있으며, 저지대는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를, 고원지대는 온화한 기후를 나타낸다. 건기(11~4월)와 우기(5~10월)로 나누어지고 산살바도르의 연강수량은 1,700~2,000mm이다.
- 산살바도르시는 해발 700m에 위치하고 있어 연중 온난하며 연평균 기온은 25°C 정도이다. 2~4월 중에는 35~36°C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며 덥다.

자연재해

- 환태평양 조산 및 지진대의 일부로 국토의 90% 이상이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되어 지진이 빈번한 편이다. 2001년도 지진에는 1,250명이 사망했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해마다 수도에서는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8월의 축제'가 열리는데, 각지에서 인디오가 모여들어 전통적인 춤을 춘다.
- 수도의 주택가는 매우 호화로우며, 서민의 생활은 가난하지만 영화와 음악을 즐긴다.
- 운동을 매우 좋아하며, 특히 축구를 좋아한다.
- 인종은 메스티조(백인-원주민 혼혈) 91%, 백인 6%, 원주민(인디오) 3%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지도층은 혼혈족이 다수이다.
- 국민성은 낙천적이고 동양인에 대한 감정도 좋은 편이나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데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5a, Calle Poniente #3970, entre 75 y 77 Av. Norte, Col. Escalón, San Salvador, El Salvador
- 전화 : (503) 2263-9145 / (503) 7318-1450(한준기 영사)
- 팩스 : (503) 2263-0783
- E-mail : embcorea@mofat.go.kr
- 홈페이지 : <http://slv.mofat.go.kr>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8:30~17:00(점심시간 12:30~13:30)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 목적의 경우 최대 9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주재국 진출업체 취업자의 경우 무사증 입국 후 단기 거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입국 시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카메라 2대, 캠코더 1대, 비디오테크 1대, 컴퓨터 1대, TV 1대, 개인 사무용품, 주류 2병, 담배 200개피, 시거 500개피 등이다.
- 입국 시 반입 금지 품목은 풍기문란 서적 및 물건, 금전 주조기, 룰렛 게임용 기계, 총기, 마약, 폭발물 등이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종합병원이 있어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의료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1회 진찰료는 \$30 수준이며, 약값은 비싼 편이다.
-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영어가 통용되지 않으며 약품 구입 시 처방전이 필요하나, 의약품명을 알고 있으면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다.
- 수도물에 석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수로는 부적합하므로 정수된 물이나 생수 또는 미네랄워터를 마신다.
- 식당에서 물을 주문하면 수도물에 얼음을 넣거나 약식으로 거른 물(Agua Filtrada)을 서브하므로 청량음료수를 주문하는 것이 더 낫다.
- 콜레라와 뎅기(Dengue) 및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음식을 조심하고,

가급적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소방서 : 911
- 병원 및 구급기관
 - Hospital Centro de Diagnostico : (503) 2264-4422
 - Cruz Roja : (503) 2222-5155

차량 수리

-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 대리점이 있어 국산차 구입 및 수리가 가능하다.

팁 제도

- 호텔, 공항의 도어맨과 포터는 \$1~\$2, 미용실과 이발소에서는 요금의 10%선이면 적당하다.
- 식당에서는 통상 식대에 음식 값의 10%가 포함되어 청구되는데 식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 정도 지불하면 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5시간

전력 사용 현황

- 110V / 60HZ
- TV 및 비디오는 NTSC, VHS 방식이다.
- 국산 가전제품 구입과 사용이 가능하다.
- 국산 가전제품이 220V 전용일 경우 현지에서 변압기를 구입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대통령실 : <http://www.casapres.gob.sv>
- 외교부 : <http://www.rree.gob.sv>
- 경제부 : <http://www.minec.gob.sv>

언어

- 스페인어



기타 참고사항



온두라스 | 중남미



시차 한국보다 15시간 느림
화폐단위 렘피라
총영사관 홈페이지 www.koreaemb.hn
온두라스정부 홈페이지 www.congreso.gob.hn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최근 십수명의 법관 및 변호사 등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살해, 납치, 강도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여행객도 무차별적인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요한다.
- 대도시 지역은 물론 치안 상태가 양호하다고 알려진 북부 해안도시와 베이 아일랜드 같은 해변 관광지에서도 혼자 산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국경 부근의 답사 시에는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지뢰가 있음을 감안,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온두라스 치안당국에 따르면 2007년 중 4,700여 명(인구의 0.7%, 하루 평균 13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하고 동 추세로 간다면 금년 중 살인사건 희생자 수는 5,000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살인사건의 80%가 총기에 의한 것이며 부상자의 75%도 총기에 의한 것으로 발표했다.
- 온두라스는 최근 치안 상태가 악화일로에 있어 대도시 지역에서 심야에 외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북부 해안도시 및 베이 아일랜드 등 해변 관광지 등 비교적 치안 상태가 양호한 지역에서도 단신 또는 어두워진 후 산책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 대중교통 이용 시 가능한 한 버스 이용을 삼가고, 택시를 탑승할 경우에도 콜택시를 이용하는 등 주의가 요망된다. 택시요금은 탑승 전에 흥정해야 한다.
- 2인조 오토바이 강도와 도난 차량을 이용한 무장 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시내 도보 시 주의를 요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군경 합동으로 주요 도시 지역에서



현지 치안 상황

순찰을 행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온두라스 경찰은 대부분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유명 관광지 등에 특별관광 경찰을 배치했으나 자질이 많이 떨어진다.
- 북부의 산페드로술라 지역은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최대 관광지인 코판 유적지를 가는 도로상에서도 강도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외국인에 대한 범죄율이 높아 1995년 이후 2006년까지 57명의 미국인이 강력 사건으로 사망했는데, 그중 18건만이 범인이 체포되었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2006년 한국 여성이 차량 하차 중 강도가 쓴 총에 맞아 사망했다.
- 수년 전 한국 기업인이 직원 봉급을 소지하고 이동하던 중 회사 앞에서 강도에 게 피살당했다.
- 2007년 한글학교 수업 중 강도가 난입하여 교사 및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탈취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강도 및 절도 사건

- 불시에 총, 칼 등으로 위협을 가하며 강도로 돌변하여 금품을 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책]

- 강도가 불시에 총, 칼 등으로 위협을 가해 올 때에는 소지하고 있던 가방, 지갑 등을 범인의 눈과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인도한다.
- 모르는 사람이 친절하게 접근해 오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며, 공항이나 호텔에서 이석 시에도 휴대품을 휴대해야 한다.
- 소매치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인파가 많은 곳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가급적 귀중품을 휴대치 말고 간소한 복장으로 하고 현금 휴대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 정치적 시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통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 도심 등지에서는 차량 정차 시 강도를 당하는 사례도 있어 항상 자동차 문을 잠금 상태에서 운전해야 하며 야간에는 가급적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 택시를 탈 경우에는 미리 잔돈을 준비하고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타기 전에 미리 요금을 정한 후 탑승하고, 운전기사의 이름과 면허증 번호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 만약 강도를 마주치게 된 경우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 희생자는 순간적인 저항에 의해 발생함에 유의하고 보도로 관광할 경우에는 단대로 다니는 것이 좋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온두라스는 거의 모든 곳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재래시장이나 시내 쇼핑 센터에서 조심해야 한다.
- 북부 올란초(Olancho), 콜론(Colon), 그라시아스 아 디오스(Gracias a dios) 지역은 권력력이 매우 제한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대중교통

- 온두라스에는 지하철이 없다. 버스는 차량 상태가 열악하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택시를 탈 경우에는 미리 잔돈을 준비하고 미터기가 없으므로 타기 전에 미리 요금을 정한 후 탑승한다. 운전기사의 이름과 면허증 번호를 기록해 둔다.

도로교통

- 도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신호등도 미비하여 교통사고가 빈발하며 인명 피해도 많다.
- 온두라스인은 평소에는 서두르지 않고 매우 느린 편이나 운전습관은 급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기후

- 해안지대는 열대성 기후로 연중 고온다습하고, 중부 산악지대는 우기를 제외하고 건조한 온대성의 기후이다.
- 계절은 여름(11~5월)과 겨울(6~11월)로 구분되며 해안지방 연평균 기온은 20~40°C 사이이다.
- 수도 테구시갈파는 해발 990m에 위치하고 있어 연중 온난하며 연평균 기온은 15°C~20°C이다. 조석에는 서늘하고 강수량은 산악·계곡 지대 1,016mm, 카리브 해안 지대를 비롯한 강 유역 2,540mm이며, 텔라(Tela) 지역은 3,604mm이다.

자연재해

- 카리브해의 주요 태풍 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1998년 태풍 '미치'로 인해 5,600여 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우기철(6~11월)에는 큰 폭우로 인해 장기 정전 및 침수 등 도시지역이 마비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므로 우기철에는 대도시 외 지방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 마야 문명 등 아메리칸 인디오 문명의 기반 위에 스페인 식민통치를 통한 서구 문명 및 근대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 혼합적인 생활양식이 특징이며 특히 약 100만여 명에 이르는 재미 체류자들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모방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지안법령

- 인종은 혼혈(메스티소) 90%, 원주민(인디오) 7%, 흑인 2%, 백인 1%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지도층의 구성은 혼혈족이 다수이다.
- 국민성은 낙천적이며 봉사정신이 강하다. 동양인에 대한 감정은 좋은 편이지만, 폐쇄적이며 총동 의식이나 군중심리가 매우 강하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Edificio Plaza Azul 5 piso, Col. Lomas del Guijarro Sur,
Tegucigalpa, Honduras
- 전화 : (504) 235-5561 / 3
- 팩스 : (504) 235-5564
- E-mail : info@koreaemb,hn
- 홈페이지 : http://www.koreaemb,hn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8:30~17:00(점심시간 12:00~13:30)
- 긴급 시 영사 연락망
- 영사 민원 담당 : (504) 9815-5253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2005년 5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 조치 시행, 단기 관광 및 상용 목적일 경우 90일 이내에 한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 인근 국가부터 육로를 통해 입국할 때에는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입국 후 비자 유효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이민청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회 최대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WHO는 온두라스를 의료 시설 미비 국가로 지정했으며 인구 1,000명당 의사 0.57명, 간호사 1.29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 주재국 수도인 테구시갈파에는 낮은 의료 수준의 국립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없다. 주재국 최대 국립병원인 Hospital Escuela마저 대부분 병동이 냉난방시설 미비 및 악취 등 기본적 위생상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영어가 통용되지 않으며 약품 구입 시 처방전이 필요하나 의약품명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사립병원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가 비싸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일반) : 199 / (504) 235-8535
- 화재 신고 : 198 / (504) 232-1183
- 응급환자(앰블런스) : 195 / (504) 227-7575
- 교통사고 : (504) 230-0765

차량 수리

- 차량 고장 시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긴급하게 수리할 수 있는 특급 서비스(Express Service)를 받을 수 없다.

팁 제도

- 관행대로 지불하고 있으며 5~10%선이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5시간(GMT -6시간)

전력 사용 현황

- 100V / 60HZ
- 온두라스의 전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정전이 자주 발생한다.

온두라스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주한온두라스대사관 : <http://www.sre.hn/korea.html>
- 주온두라스대사관 : <http://www.koreaemb.hn>
- 온두라스 언론 : <http://www.latribuna.hn>

언어

- 스페인어가 공용어로서 사용되며, 식자층 및 북부 해안 관광도시, 특히 베이 아일랜드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영어가 통용된다.



우루과이 | 중남미



시차 한국보다 12시간 느림
화폐단위 페소우루과이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ury.mofat.go.kr>
우루과이 관광체육부 <http://www.turismo.gub.uy>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주재국은 비교적 정세가 안정되어 전쟁, 내란, 테러 등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강력 범죄의 발생 빈도는 낮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량 내 귀중품 절도, 소매치기, 가택 침입 등의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다.
- 주재국 경찰 인력의 부족으로 사건·사고 발생 시 적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최근 구시가지(Ciudad Vieja) 지역에서 청년 2~3명이 여행객에게 접근하여 가방을 강제로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탄 강도가 차량 문을 열고 날치기를 하는 절도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휴대품 탈취 사건

- 최근 구시가지 지역에서 가방을 탈취당하는 사건 등 금품 및 휴대품 탈취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대책]

- 인적이 없는 골목길을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한다.
- 가급적 야간 외출은 삼가고 귀중품이나 현금은 많이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 화려한 의상이나 카메라 등 소지품의 노출로 시선을 끌지 않는다.



현지
치안 상황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몬테비데오의 구시가지 및 몬테비데오 항구 인접 지역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 요금은 조금 비싸더라도 시내 이동 시에도 일반 택시보다는 레미스를 호텔에 요청해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중교통

-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 택시, 레미스이다. 지하철과 전차는 없다.
- 버스와 택시를 타면 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레미스와 고속버스 이용시 짐을 싣고 내릴 때 도움을 받았다면 \$1~\$2의 팁을 지불해야 한다.
- **버스**
 - 앞문으로 승차하여 운전수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승차표를 발급받는다. 승차표는 하차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0.7(13.5페소, 환율 기준 1\$=19.30페소, 2008년 4월 기준)이다.
- **택시**
 -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며, 요금은 반드시 미터기에 기재된 숫자 또는 요금을 확인한 후 지불하도록 한다.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기본요금은 \$1.09, 250m마다 \$0.06씩, 정지(대기) 시 18초마다 \$0.06씩 추가된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기본요금 \$1.34, 250m마다 \$0.25씩, 정지(대기) 시 18초마다 \$0.25씩 올라간다.
- **레미스**
 - 운전자의 신원이 확실한 콜택시로 자동차 번호판으로 구분한다. 번호판은 초록색 바탕이며 SRE에 이서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기본요금은 \$11.5(몬테비데오 시내 약 15km 정도)로 목적지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다.
- **패속정(Ferry)**
 - 우루과이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이를 운행한다. 몬테비데오와 부에노스아이레스 간은 약 4시간, 콜로니아와 부에노스아이레스 간은 약 2시간 30분 소요된다.
- **고속버스**
 - 고속버스로 우루과이 국내 모든 도시와 인접국에 갈 수 있다.
 - TV, 화장실, 온냉방 시설, 침대이자 등이 있어 장거리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다.
- **카라스코(Carrasco) 국제공항**
 - 주로 국제선 운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도시와의 연결은 거의 100% 육로를 이용하며 2009년경에 신국제공항 터미널이 개통될 예정이다.
 - 국제공항으로부터 시내 중심부까지는 자동차로 약 30분 소요된다.

도로교통

- 우루과이 도로 사정은 양호한 편이나 차선이 없는 도로도 있으며 차선을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
- 차량 주행 시에는 주간 및 야간 모두 헤드라이트를 켜야 한다.
- 도로 주차는 몬테비데오 시청 관할이며 무료 주차지역과 유료 주차 지역이 있다.
 - 일반 주차장은 민간이 운영하며 지역에 따라 요금 차이가 있다. 1시간에 \$1.30~\$2.10 정도이다.
 - 인도 가장자리의 빨강색 표시는 주차 금지, 노란색과 검정색 표시는 주차 및 정지 금지, 빨강색과 흰색 표시는 특별히 일정한 기관 또는 이용자에게 승인된 주차 장소라는 표시이다.

기후

- 연평균 기온 17°C로 온난한 기후이다.
- 여름은 1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평균 기온이 30°C, 최고 기온이 40°C 이상이다.
- 겨울은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며 평균 기온이 10°C, 최저 기온이 0°C 정도이다.

자연재해

- 2005년 8월 발생한 폭풍우와 2007년 겨울에 온도가 영하로 내려간 사례 외에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 8월 하순이나 9월 초경에는 폭풍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출 또는 운전 시 조심하고 가로수 부근에 주차 시에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 몬테비데오 시민들은 낮잠(시에스타) 문화가 없으나 지방에서는 습관적으로 낮잠을 즐기고 있다.
-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계 백인이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흑인 및 메스티소가 약 6%를 차지한다.
- 라틴계의 특성인 낙천적인 성격에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이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Av. Luis Alberto de Herrera 1248, Torre II, Piso10(WTC), Montevideo, Uruguay
- 전화 : (598-2) 628-9374~5
- 팩스 : (598-2) 628-9376
- E-mail : ecorea@adinet.com.uy
- 홈페이지 : <http://ury.mofat.go.kr>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지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출입국 시 유의 사항

근무 시간

- 월~금 / 09:00~17:00(점심시간 12:00~14:00)
- 긴급 시 연락망
 - 영사 민원 담당 : 휴대전화 (598) 94-111-593

- 우루과이는 한국과 2003년 11월 30일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상업, 관광이 목적인 경우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 특별한 예방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 통관 시 증류주 2리터, 담배 400개비, 향수 등은 개인 사용 면세 한도 금액 내에서 허용한다.
- 여행자의 소지품 중 세관 측에서 상업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 구제역 방지 차원에서 식물·축산과 관련된 물품은 통관이 불가능하다.
- 문화재 반출은 통제한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여행 출발 전에 한국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 발병 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현지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청심환, 지사제, 진통제 등은 한국에서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 진료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사립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립병원 일반 내과 진료비는 1회 약 \$70 이상이다.
- 일반 자유 판매 의약품인 아스피린, 기침약 등을 제외하고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구입할 수 있다.



기타 참고사항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화재, 응급환자, 긴급의료 지원, 앰블런스 : 911
- 각 약국마다 당직 약국 전화번호 및 주소 알림표가 있으며, 전화번호부에도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약국에 대한 공고가 나와 있다.
- 긴급 상황 관련 사이트 :
 - http://www.rau.edu.uy/uruguay/generalidades/Uy_fonos.htm

차량 수리

- Automovil Club del Uruguay : 1707
- CAR UP : 0800-1501

팁 제도

- 식당에선 청구 금액의 5~10%를 팁으로 지불한다.
- 공항이나 호텔 포터에게 짐을 맡겼을 때는 \$1 정도 지불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2시간(서머타임 실시 기간인 10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3월 둘째 주 일요일까지는 -11시간)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TV 시스템은 PAL-N 방식이다.

우루과이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우루과이 관광체육부 : <http://www.turismo.gub.uy>

언어

- 주재국 언어인 스페인어 이외에는 영어가 잘 통용되지 않으나 호텔 등 주요 시설에서는 통용이 가능한 곳이 있다.



시차 한국보다 19시간 느림
 화폐단위 페소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chl.mofat.go.kr>
 칠레정부 홈페이지 <http://www.gobiernodechile.cl>



현지 치안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칠레는 중남미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 기강의 해이로 무장 강도, 절도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한인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파트로나토(Patronato) 지역에서 최근 점포 지붕을 뜯고 물품을 훔쳐 간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 이런 대처

[사례] 소매치기

- 지방에서는 칠레 국민 대부분이 순박하고 친절하지만, 대도시와 외곽 지역에서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강도, 소매치기들이 많다.

[대책]

- 산티아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대도시에서도 야간에 혼자 다니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 위급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능한 한 주변 가게로 피신하여 경찰(카라비네로, carabinero)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한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 택시는 기본요금이 250페소이다.
- 버스는 교통카드(BIP)로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은 380페소이다.
- 지하철은 일반요금이 380페소, 출퇴근 시간에는 420페소이다.
- 공항과 산티아고 시내 간에 공항버스와 택시가 수시로 운행 중에 있어 편리하다.

도로교통

- 칠레 중부 푸에르토 몬트(Puerto Montt)에서부터 최북단 아리카(Arica)까지 자동차 여행이 가능하다. 철도는 수도로부터 남부 도시 테무코(Temuco)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북부로의 철도도 가설되어 있으나 경제성을 이유로 운행치 않고있다.

기후

- 칠레는 남북 총연장 4,300km의 길이를 가진 나라로서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다양하다. 동쪽의 고도 약 6,000m의 안데스 산맥과 서쪽 태평양의 훔볼트(Humbolt) 한류는 칠레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북부는 사막지대로서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며 연평균 기온은 16°C이다.
- 중부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이며, 겨울은 우기철로 싸늘하다.
- 남부는 한랭 기후로 강우량이 풍부하며, 춥고 장마 진 기후가 특징이다. 연평균 기온은 9°C 정도이다.
- 중부지역에 위치한 수도 산티아고는 사계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름의 낮 기온은 30°C를 오르내리나 실내는 선선한 편이다. 겨울의 낮 기온은 15~20°C 내외이나 아침저녁에는 1~5°C 내외로 일교차가 크다.

자연재해

- 칠레는 해마다 크고 작은 지진, 화산 폭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칠레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약속 시간을 준수하는 편이다.
- 선물을 하게 될 경우 현금은 결례이며, 이유 없이 비싼 선물은 오히려 환영받지 못한다. 여성에 대한 일반 에티켓은 꼭 준수하는 것이 좋다.
- 경제 활동, 사고, 취미 생활 등 그 어떤 활동보다도 가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



기후와 자연재해

으며 모든 모임, 파티, 휴일 활동 등을 주로 가족 단위로 가진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Av. Alcantara 74, Las Condes, Santiago, Chile
- 전화 : (56-2) 228-4214
- 팩스 : (56-2) 206-2355
- E-mail : coremb@tie.cl
- 홈페이지 : <http://chl.mofat.go.kr>



출입국 시 유의 사항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8:00(점심시간 13:00~15:00)

- 단순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칠레를 방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하여 90일간 칠레에 체류할 수 있다.
- 방문 목적이 취업, 유학, 동거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일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 공항에 입국할 때 제조연월일이 표기된 포장식품을 제외한 가정용 포장식품(김치, 마른버섯, 젓갈, 멸치)의 경우 압수당하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
- 미성년자(17세까지)의 해외 출국 시 여권 외에 부모의 여행 동의 공증서류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미성년자 단독 여행 시 구비서류 : 여권 / 부모 모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 사무소를 방문, 자녀의 해외 단독여행 동의 공증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증명서
 - 미성년자가 부모와 여행 시 구비서류 : 여권 / 부가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는 모가, 모가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는 부가 공증사무소를 방문, 자녀와 해외여행 동의 공증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증명서
 -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여행 시 구비서류 : 여권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증명서
- 칠레의 병원 의료시설 및 의사의 질은 우수한 편이다.
 - 주요병원으로는 ARAUCO SALUD, CLINCA ALEMÁN, SANTA MARIA, CLINCA LAS CONDES 및 칠레대학교 및 가톨릭대학부설 종합병원 등이 있다.
- 칠레 내 의료보험은 의료보험협회(ISAPRE)에 가입되어 있는 Colmena, Vida-Tres, Cruz Blanca 등 의료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다.
 - 월 보험료(3~5인 가족 기준)는 수혜 범위에 따라 약 US\$ 300~500 내외이다.
 - 보험 가입 시 입원비는 100%, 건강진단 95%, 진료비는 80% 정도 보험사에서 부담하지만 약품구입비는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칠레에서는 진료 및 약품 판매가 분리되어 있고, 특히 독성 및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의 구입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종합 건강진단은 통상 입원(1박 2일)한 후 검진을 받으며,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병원 수준에 따라 약 US\$ 1,200~2,000 정도 소요된다.
- 칠레 입국 전 특별한 예방접종은 필요 없으나, 현지 체류 중에 겨울철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 특히 산티아고 기후는 겨울철에 공해가 심하고, 일교차가 크므로 독감(목감기)에 자주 걸린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범죄 신고 : 133
- 화재 신고 : 132
- 앰블런스 : 131
- 전화 고장 : 107

차량 수리

- Automovil Club de Chile : (56-2) 431-1000

팁 제도

- 아직까지 팁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10% 내외의 팁이면 무난하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3시간(서머타임 실시 기간인 10월 둘째 주 토요일 자정부터 익년 3월 둘째 주 토요일 자정까지는 -12시간)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대부분의 한국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나, 한국과 Hz가 다른 관계로 고장 가능성이 있다.

칠레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칠레한국협회 : <http://www.ugm.cl/portal-corea>
- 한인회 : <http://chile-hanin.net>

언어

-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기타
참고사항



시차 한국보다 15시간 느림
 화폐단위 페소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cri.mofat.go.kr>
 코스타리카 관광청 <http://www.costaricabureau.com>



현지 치안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중남미 국가 중에서 민주헌정이 확고히 정착되어 있는 모범적 국가로서 전쟁이나 내란 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 발생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중미 지역에서 비교적 치안이 안전했던 코스타리카는 지난 수년간 인접 국가들로부터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단순 절도에서부터 총기를 사용하는 강력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쉽게 식별이 되는 한국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치안에 더욱 취약한 편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2007년 9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살던 교민이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택시 강도 및 납치기

- 주간에 시내, 특히 구시가지에서 노상강도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편이므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주의가 필요하다.
- 빨간색 차체에 노란색 표시등을 부착한 일반 택시 이외에 택시면허 없이 운행하는 불법 택시도 많이 운행되고 있으며, 간혹 택시 기사가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

코스타리카 | 중남미



- 관광지에서 차량이 고장 나자 도와주겠다면서 주위에 물려들어 여행객의 소지품, 여권 등을 절취한 사례가 있다.

[대책]

- 반드시 정식 택시나 콜택시만 이용해야 한다.
- 심야에는 현금자동지급기의 사용을 삼가고 공공장소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 코스타리카는 이동통신 상황이 좋지 않아 휴대폰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 많으므로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사전에 행선지를 통보하고 떠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산호세 구시가지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절도 및 강도가 빈발하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시내버스 내에서 소매치기가 많은 편이다.

대중교통

- 시내버스 내에서 소매치기가 빈발하므로 되도록 타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관광지 택시는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나중에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발 전에 요금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

- 우기(5~11월) 기간이 상당히 길어 비로 인한 도로의 파손 및 침몰 등이 많아 도로 사정은 상당히 안 좋다.

기후

- 열대우림기후에 속하며 크게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진다. 건기는 일반적으로 12월 하순에서 4월까지이며 우기는 나머지 시기에 걸친다.
- 산호세는 1,150m 높이에 있어 현지인들이 영원한 봄이라고 부르는 기후를 가지고 있다. 최저 기온은 평균 15°C이고 최고 기온은 평균 26°C이다.
- 일 년 내내 비가 내리는 카리브해는 밤 기온은 평균 21°C, 낮 기온은 30°C를 넘는다. 태평양 연안은 이보다 더 더우며 저지대는 습도가 높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자연재해

- 연간 100여 회 이상의 미진이 발생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화산 폭발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높다.
- 1993년에 발생한 지진 이후 아직까지 대규모 지진은 없었으며 1991년 리몬(Limon)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서는 약 50여 명이 사망했다.
- 국민성이 상당히 낙천적이고 느리다.
-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불량한 편이며 민원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외국어 구사 인력이 미흡하다. 방문 시 신뢰할 수 있는 통역을 대동하는 것이 좋다.
- 여행 시 경찰들의 일시 검문이 잦고 불합당한 이유로 벌금을 징수할 우려가 있으니 신분증(여권, 체류자격증 등)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75 metros Norte del Banco Cuscatlan – Rohrmoser San Jose
- 전화 : (506) 2220-3160
- 팩스 : (506) 2220-3168
- E-Mail : koco@mofat.go.kr
- 홈페이지 : <http://cri.mofat.go.kr>

출입국 시 유의 사항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8:30~17:00(점심시간 12:30~14:00)

- 출국 시 공항세로 미화 \$26 상당액을 부과한다.
- 통과여객의 경우 입국 후 12시간 이내에는 출국 시 공항세를 면제해 주는데 공항 밖으로 나올 때 공항 관계자에게 시간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 입국 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대부분의 국민들은 CCSS라는 사회보장기구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 진료비가 거의 무료이다. 그러나 의료 시설이나 기술이 떨어지고,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서비스 질이 나쁘다.
- 부유층들은 별도의 민간 의료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 없이 고급 민간병원을 주로 이용한다.
- 대표적인 민간 종합병원으로는 CIMA, Clinia Catolica, Clinica Biblica 등이 있다. 진료비가 매우 비싸 일반 진찰의 경우 1회에 \$50 이상을 청구한다.
- 종합병원 시마병원(Hospital CIMA) : 대표 전화 (506) 2208-1000 / 응급실 (506) 2286-1818 / 야간 의사 문의 (506) 2208-1150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종합 긴급 정보 및 구조 지원 센터 : 911, 128
- 범죄 신고 : 117
- 화재 신고 : 118
- 앰블런스 요청 : 128 / 911

차량 수리

- 산호세를 비롯한 대도시에는 우리 교민이 운영하는 정비업소가 많아 큰 불편은 없다.

팁 제도

- 팁은 세금계산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고마움을 표시할 경우 5~10% 정도 주면 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5시간

전력 사용 현황

- 110V / 60Hz

코스타리카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시중의 서점에서 여행 안내 책자를 구입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게 코스타리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언어

- 스페인어
- 호텔 등 관광지 등에서 영어가 일부 통용되고 있다.



콜롬비아 | 중남미



시차 한국보다 14시간 느림
화폐단위 페소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col.mofat.go.kr>
콜롬비아 대사관 www.colombiaemb.org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내전과 이에 따른 수많은 난민의 도시 유입, 높은 실업률과 극심한 빈부 격차 등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치안 상황이 매우 열악한 곳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 좌익 게릴라 극우민병대 활동지역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산재해 있어 장거리 육상 여행은 금물이다.
- 콜롬비아 내 시민단체의 성향은 비교적 온순한 편이지만 노동조합이 국영 기업의 민영화 또는 외국 기업의 진출을 반대하고 폭력 행사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 극렬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우익 게릴라들에게 납치되는 사례가 가끔 생기면서 국제 인권단체들은 콜롬비아의 군부와 우익 게릴라들이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정면 비난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콜롬비아 내 치안 문제는 무장 게릴라에 의한 인명 피해보다 마약 밀매 조직과 일반 폭력조직 범죄에 의한 인명 손상이 훨씬 심각하다.
- 2002년 발생한 살인 사건이 28,87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03년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0년 3,700건의 인질 납치 사건이 2006년 연간 173~200건으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현지 치안 상황

주요 사건·사고 사례

- 콜롬비아 정부군은 지난 2008년 3월 1일 반군 단체인 FARC(무장혁명군)의 소탕을 위해 콜롬비아의 '그라나다'와 에콰도르 영토인 '산타로사'에서 FARC 2인자를 포함한 반군 24명을 사살한 바 있다.
- 주재국 농촌에는 아직도 대인지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에는 국경에 위치한 퀸디오(Quindio)시와 톨리마(Tolima)시 소재 정부 군대와 경찰청사가 무장혁명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 2001년도 한국인 3명이 게릴라에 의해 납치 후 석방되었으며, 2005년 한국인 2명이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휴대품 절도

-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친밀하게 말을 걸어오다가 빈틈을 노려 금품을 강탈하는 사례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 인파가 몰리는 곳, 공항,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잠시 놓아둔 휴대품을 절취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 대형 특급 호텔도 로비, 프런트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다.

[대책]

- 모르는 사람이 친절하게 접근해 오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며 특히 자신의 휴대품에 주의해야 한다.
- 현금은 가능한 한 의복의 내부 주머니에 넣어두고 지갑도 두 곳으로 분산하여 휴대한다.
- 중급 이하의 호텔은 경비가 불충분하며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에 귀중품 보관에 더 주의해야 한다.
- 호텔 객실로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문 사이로 말을 걸어올 경우 진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 여권, 현금, 보석 등의 귀중품은 외출 시 안전박스 또는 프런트에 맡기고, 방 안에 남겨 두지 않는다.

[사례 2] 노상강탈(들치기)

- 들치기는 인적이 없는 곳이나 야간의 길거리에서 자주 발생한다.
- 은행 자동인출기가 건물 밖 도로상에 설치된 곳이 많으므로 들치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책]

- 핸드백은 몸의 정면에 휴대하고 차도의 반대쪽 손으로 휴대한다.
- 귀금속을 몸에 지니고 중심가를 보행하지 않도록 한다.

- 보행 중 안면이 없는 사람이 접근해 오면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 택시는 가능한 한 콜택시를 이용하고 합승하지 않도록 한다.
- 인적이 드문 곳이나 밤길 보행은 삼간다.
- 현금자동인출기는 심야에 이용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 버스

- 일반버스는 매우 낙후되어 있고 위험하므로 타지 않는 게 좋다.
- 트랜스밀레니오(Transmilenio)는 지하철과 같은 지상 일정 구간 운영 시스템 버사이며 안전하다. 한국과 동일한 버스 운영 체제이다.
- 일반버스 요금은 낮에는 1,100페소, 야간에는 1,200페소이며, 트랜스밀레니오는 1,400페소이다.

● 택시

- 치안은 안전한 편이나 가능한 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 포인트제로 요금이 올라가며 25포인트가 2,300페소(약 \$1.5) 기본요금으로 시작하여 100m씩 1포인트씩 추가된다.
-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요일 및 휴일에는 1,500페소의 할증 요금이 추가된다.

도로교통

- 콜롬비아 육상도로 115,000km 중 15%만이 포장되어 있다.
- 1인당 포장도로 길이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후

- 적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은 연중 변화가 많지 않으나, 고도에 따라서 열대(해변), 온대(평야), 한대(고산) 등으로 기온이 뚜렷하게 변한다.
- 고도가 1,000m 높아질수록 기온은 6°C 정도씩 떨어진다.
- 보고타는 초가를 날씨로 저녁 기온 10°C, 낮 기온 14~20°C로 춘추복, 동복을 입고, 저지대로 이동할 때에는 하복을 준비해야 한다.
- 우기에는 상당히 쌀쌀한 기후가 되며 주택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기담요 및 히터를 준비해야 한다.

자연재해

- 최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지하에서 지진대가 움직이고 있는 지진 위험지대이다.
- 2008년 1월 17일 나리노(Narino)주에 위치한 갈레라스(Galeras) 화산이 폭발하여 당시 위험 비상경보가 발생한 바 있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국교는 가톨릭교이다.
- 박물관에서 유적만을 사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적과 함께 인물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이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Embajada de la Republica de Corea Calle 94 No.9-39 Bogota, Colombia
- 전화 : (57-1) 616-7200, 8149, 8872, 691-3898 / 야간 및 휴일 (571) 616-9727
- 팩스 : (57-1) 610-0338
- E-Mail : embacorea@mofat.go.kr
- 홈페이지 : <http://col.mofat.go.kr>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8:00(점심시간 12:00~14:00)

영사협력원 연락처

- 1등서기관 겸 영사(이찬연)
 - 자택 : (571) 636-9966
 - 휴대폰 : (57) 310-870-8105
 - E-mail : cylee80@mofat.go.kr
- 2등서기관(전인석)
 - 자택 : (57-1) 636-9966
 - 휴대폰 : (57) 310-870-8105
 - E-Mail : ischon89@mofat.go.kr
- 한-콜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이 1981년 11월 25일부터 발효되어 두 나라 국민이 90일 미만 상호 방문 시에는 사증이 필요 없다.
- 콜롬비아 체류 중 아마존 같은 열대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경우 미리 황열병 예방 접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콜롬비아를 거쳐 브라질을 방문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필히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고 접종확인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 통관 시 유의할 사항
 - 술 3병, 담배 3보루, 향수 6유니트는 면세이다.
 - \$1,500까지 면세가 되며 \$1,500 이상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한다.
 - 의약품은 개인용으로 간주될 경우 반입이 가능하나 수량은 각 6유니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첨부하면 문제없다.
 - ICA라는 농림부 산하 단체에서 관장하는 조류 독감, 관련 농산물은 금지 대상



출입국 시 유의 사항

이며 공산품의 경우는 상관없다.

- 무기류, 일부 마약 제조 관련 화학 원료는 반입 불허 품목이다.
- 동물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 주요 도시의 의료 시설은 한국 정도의 수준이다.
- 치과 분야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다.
- 다국적 제약회사의 진출로 인해 의약품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
- 의약품 구입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두통, 복통 및 감기 약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약값은 보험 혜택이 제한되어 있다. 보험회사와 병원 간의 계약이 병원마다 각기 다르며 치료비, 입원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12 / 화재 신고 : 119 / 긴급 의료기관 요청 : 125, 132

팁 제도

- 공식적으로 10% 내외를 지불한다.

전력 사용 현황

- 110V / 60Hz
- TV, 비디오는 NTSC 방식이다.
- 한국 제품 사용이 가능하나 콜롬비아 전압이 불안한 관계로 전압안정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

콜롬비아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콜롬비아 대통령실 : <http://www.presidencia.gov.co>
- 주미국콜롬비아 대사관 : <http://www.colombiaemb.org>

언어

- 스페인어
- 그 밖에 200여 토착 언어가 있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파나마 | 중남미



시차 한국보다 14시간 느림
화폐단위 페소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pan.mofat.go.kr>
파나마정부 홈페이지 <http://presidencia.gob.pa>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파나마는 여행 경보단계 제1단계인 '여행 유의' 지역으로 지정된 다리엔(Darien)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치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 다리엔주는 콜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 지역 대부분이 자동차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밀림지역이다.
- 수년 전에 다리엔 지역에서 콜롬비아 게릴라에 의한 외국인 납치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이 지역으로의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파나마는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소득층의 급격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 심화로 금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파나마에는 자유무역지대가 위치하고 있고, 제2도시인 콜론(Colon)시가 여타 도시 지역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높은 편이어서 콜론시를 여행할 때에는 보다 각별한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수도인 파나마시 구시가지(Casco Viejo, 카스코 비에호) 인근 지역에서 대낮에 한국 여성 배낭여행객이 소지품을 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도시 지역에서는 야간에 카지노 인근 구역이 우범지역으로 변하므로 야간에는 이곳의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현지 치안 상황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 택시는 기본요금인 \$1,50이며 시내를 벗어날 경우 25센트가 추가된다.
- 시내버스는 기본요금인 25센트이며 버스가 낙후되고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버스 내에서 동양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치기가 빈번하다.
- 파나마 시내에서 호텔과 공항 간 택시 편도 요금은 \$25~\$30 정도이며, 파나마시에서 콜론 자유무역지대 간 왕복 요금은 \$80 정도이다.
- 콜택시 시내 요금은 평균 \$1,65~2,00 사이이다.

도로교통

- 차선이 불확실하고 가로등 부족으로 인해 야간 주행은 위험하다.
- 도로 군데군데 구멍이 패여 있어 타이어 마모 및 훼손 가능성이 높다.



기후와 자연재해

기후

- 건기(12 중순~4월 중순)에는 직사광이 강해 일사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태양에의 직접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 우기(4월 중순~12월 중순)에는 다습한 기후에 의한 피부염 및 모기에 의한 멍기 열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자연재해

- 파나마에는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기에 간간히 도시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서 산사태가 발생한다.
- 파나마의 국민성은 중남미 특유의 느긋함과 나태함이 있다.
- 파나마인들은 인사할 때 남자들은 악수를 하며, 여자들은 서로 볼을 맞대고 인사를 한다.
- 동양인의 경우 현지인들이 '치노(Chino, 중국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Calle 51E, Ricardo Arias, Campo Alegre Plaza Apartado 0823-05514 Panama, Rep. de Panama,
- 전화 : (507) 264-8203, 8360 / 팩스 : (507) 264-8825
- E-mail : panama@mofat.go.kr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8:30~16:30(점심시간 12:00~13:30)



긴급 영사 연락망

- 한-파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 특별한 예방접종은 필요 없다.
- 통관 시 면세 제품은 술 3병, 담배 400개비, 향수 3병 등이다.
- 외국환은 \$10,000 이상 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사회보험 연계 병원은 사립병원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는 사립병원을 이용해야 하나, 정부가 지정하는 일부 사회보험 연계 병원 이용도 가능하다.
- 사립병원에서는 영어 소통이 가능하며 소화제, 안약, 고약 등 일반 상비약을 제외한 의약품 구입 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 말라리아는 없으나 뎅기열(Dengue Fever)은 존재한다.
- 음식물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망고, 람보탄 등 일부 열대과일로부터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04 / 화재 신고 : 103
- 응급차 : (507) 507-2532, 228-2187
- 전기 고장 : (507) 315-7222, 323-7100

차량 수리

- 현지 현대차 대리점이나 기타 차량 정비 공장을 이용하면 된다. 단, 현지 기술력 부족 및 부품 부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차량 수리비는 한국보다 비싼 편이다.

팁 제도

- 호텔, 식당 이용 시 10% 정도의 팁을 지불하고 있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4시간

전력 사용 현황

- 110V, 현지 TV 및 비디오는 NTSC 방식이다.

파나마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대한민국 주파나마 대사관 : <http://pan.mofat.go.kr>

언어

-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나 간단한 수준의 영어도 통한다.



출입국 시 유의 사항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파라과이 | 중남미



시차 한국보다 13시간 느림
화폐단위 과라니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pry.mofat.go.kr>
파라과이 한인회 <http://latin-hanin.net/py>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눈에 띄게 활동하는 테러 단체는 없으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국 국경지역에 접해 있는 시우닷 델 에스테(C.D.E)시에서는 중국계, 콜롬비아 등의 범죄 조직이 존재하여 주로 마약 밀매를 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파라과이는 경제 불황과 물가 인상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강력 범죄율이 늘고 있다.
-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순시온 4시장(재래시장) 주변에서는 들치기(노상강탈) 및 '카발로 로코(미친 말처럼 달린다 하여 지칭)'라고 불리는 소매치기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한국 여행객이 저녁에 센트로 영웅관 옆에 위치한 공원을 지나던 중 낯선 남자 2명이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흉기로 위협하여 지갑과 휴대폰 등을 갈취해 간 사건이 발생했다.
- 시내버스로 이동하던 한 여행객이 등에 큰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하차한 후에 가방이 찢겨져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휴대폰 절도

- 시장 내, 버스 안, 길거리를 도보로 이동 중에도 소매치기나 날치기, 강도 사건이



현지
치안 상황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책]

- 버스에 탈 경우 최소한으로 소지품을 줄이고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말고 쉽게 열리는 가방은 메지 않는다.
- 버스에서 사람이 붐빌 때는 소지하고 있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쉽게 손을 탈 수 있는 곳에 핸드폰, MP3, 카메라 등을 넣지 않는다.
- 허리에 차는 주머니식 가방은 현지인들에게 현금을 보관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매우 위험하다.

[사례 2] 노상강탈(들치기)

- 들치기는 인적이 없는 곳이나 야간의 길거리에서 자주 발생한다. 최근에는 대낮에 인파가 많은 곳에서도 친한 사이인 척 위장하며 바로 옆으로 접근하는 등 대범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대책]

- 야간 외출 시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은 보행을 삼간다.
- 외출 시에는 귀중품을 휴대치 말고 간소한 차림으로 나간다. 여권은 경찰관이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휴대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센트로 지역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상점이 모두 문을 닫으므로 이 시간 이후에는 가지 않는다.
- 각 지역의 어두워진 공원에는 취객, 노숙자, 소매치기들이 주거하는 곳이므로 절대 접근 금지 구역이다.
- 파르케, 카발레로 지역은 조깅 코스가 처음 설치된 공원이지만 빈민촌과 근접해 있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대중교통

● 버스

- 요금은 2,200과라니(2008년 4월 21일 기준 \$1=4,250과라니)
- 버스표는 없고 화폐로만 이용할 수 있다.

● 택시

- 각 지역마다 택시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어 정류소 전화로 택시를 부를 수 있다.
- 기본요금은 5,000과라니로 콜택시도 동일하다.

●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

- 실비오 페티로시(Silvio Pettirossi) 공항은 아순시온 시내에서 약 10km에 위치하며 국내외선 겸용 공항이다.
- 공항에서 시내 중심지까지 택시 요금은 약 7만과라니 내외이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도로교통

- 대부분의 도로가 차선이 희미하고 노면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
-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신호등이 비교적 낮게 설치되어 있으며 간혹 꺼져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행 운전 시 주의한다.
- 최근 파라과이에 오토바이 주행이 많아져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국제운전면허증이 현지에서 1년간 통용된다. 1년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체류 자격과 함께 한국 운전면허증을 파라과이 운전면허증으로 관할시청에서 교환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후

- 아열대 기후로 아마존강 유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고온 다습하고 아르헨티나 팜 파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건조하고 차다.
- 연간 평균기온은 23°C이지만 한여름에는 40°C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된다. 여름(10~3월)은 기온이 22~42°C이며, 겨울(4~9월)은 기온이 3~32°C 정도 된다.

자연재해

- 파라과이는 태풍, 폭우, 가뭄 등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폭우로 인해 거리에 물이 넘쳐 차도 및 도보가 마비되는 경우가 많다.
- 2008년 초 발생한 황열병이 브라질에서 발병한 이후 주변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였으나 현재는 추계로 접어들어 소강상태이다. 2008년 4월 9일 현재까지 58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15명이 사망했다.
- 2006년 연말부터 덩기열이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 1,649건의 덩기열 혹은 덩기열 유사질환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3명이 사망, 최대 6만 명을 덩기열 감염 위험군으로 예상하고 있다.
- 파라과이인들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시에스타)을 자는 습관이 있다.
- 파라과이인들의 인사법은 양 볼을 번갈아가며 맞추는 것이 친근감을 표현하는 인사법이다. 단, 남자끼리는 가벼운 악수나 어깨를 토닥이는 정도로 인사를 대신한다.
- 박물관 내에서 사진 촬영은 자유로운 편이나 대통령궁의 사진 촬영은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촬영해야 한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Av. Rep. Argentina No. 678 esq. Pacheco, Asunci · n Paraguay
- 전화 : (595-21) 605-606 / 605-401 / 605-419
- 팩스 : (595-21) 601-376 / 661-640
- E-mail : paraguay@mofat.go.kr
- 홈페이지 : <http://pry.mofat.go.kr>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8:00~17:00(영사과는 점심시간 당직 근무)
- 긴급 시 영사 연락망
 - 영사 : 휴대폰 (595) 981-252-377
 - 영사 민원 담당 : 휴대폰 (595) 991-776-776

영사협력원 연락처

- 시우닷 델 에스테 : 휴대폰 (595) 973-542-014
- 페드로 후안 카발레로 : 휴대폰 (595) 971-838-807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파라과이와는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관광일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하여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 여행 출발 전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 통관 시 술, 담배, 향수는 최고 미화 \$300까지 면세이며, 외국환 신고는 미화 \$10,00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주재국 의료체계는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이 있다. 국립병원은 시설이 낙후된 실정이다.
- 사립병원의 진찰료는 1회 5만과라니 이상이다.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19
- 화재 : 132
- 긴급 의료지원 : (595-21) 204-800
- 적십자사 : (595-21) 204-900
- 구급차 : SEPSEO (595-21) 440-300, 494-034
- 24시간 오픈하는 약국은 지역별로 가까운 지역의 약국 전화번호를 전화안내(112)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차량 수리

- 일반 대어 차량일 경우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어 회사에 차량수리 시 연락처를 문의해야 한다.
- 차량운반 서비스 회사
 - Grua 4Hnos. : (595-21) 214-335, 226-136
 - Touring Club : (595-21) 224-366, 210-550

팁 제도

- 팁은 관행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통 5~10% 정도 지불한다.
-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영수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3시간(서머타임 실시 기간인 10월에서 2월 말까지는 -12시간)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TV, 비디오 시스템은 PAL-N 방식이다.

파라과이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재파라과이 한인회 : <http://latin-hanin.net/py>
- 아리랑 파라과이 뉴스 : <http://deleste.net>

언어

- 스페인어
- 영어는 관광객이 많은 호텔에서 통용된다.





시차 한국보다 14시간 느림
 화폐단위 누에보솔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per.mofat.go.kr>
 페루정부 홈페이지 www.presidencia.gob.pe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대규모 테러 사건은 드문 편이나 권총을 소지한 노상강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오랜 경기 침체와 극심한 빈부 격차로 말미암은 저소득층 존재, 실업난 등으로 강도, 절도, 등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돈이 많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권총 강도와 납치 사건도 종종 일어나며 현지 거주 한국인 중에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한국 교민이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승용차로 집으로 가는 도중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온 강도가 권총을 들이대고 차를 세워 현금을 강탈해 갔다.
- 한국인 여행객이 대형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던 중 여권, 현금 등이 든 가방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휴대품 절도

-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리마 시내, 쿠스코 시내에서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 초면인 사람이 친밀하게 말을 걸어오다가 빈틈을 노려 금품을 강탈하는 사례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대책]



현지
치안 상황

- 현금은 가능한 한 의복의 내부 주머니에 분산해서 넣고 지갑과 신분증도 분리해서 넣는다.
- 혼잡한 곳에서는 가방을 몸의 정면에 두고 다닌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 버스는 현금을 내고 타며 요금은 1,20솔(\$1=2.7솔)이다.
- 택시 요금은 요금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택시기사와 협의한 후에 승차해야 한다. 시내요금은 통상 10솔 내외이다.

도로교통

- 교통이 혼잡하고 난폭 운전자가 많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이 혼잡하고 차선 변경 신호 없이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 국제운전면허증이 현지에서 통용되므로 1년 이내 체류하면서 사용 가능하다.



기후와 자연재해

기후

- 해안지대는 온난, 다습하고, 산악지대는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며, 산림지대는 열대성 기후이다. 리마 지역은 하계 최고 30°C, 동계 최저 11°C의 기온을 나타내며, 동계(5~11월) 기간은 짙은 안개로 햇빛을 볼 수 없다.

자연재해

- 페루는 태풍, 폭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가끔 지진이 발생한다.
- 인사 방법은 만나고 헤어질 때 뺨을 맞대며, 남자들은 악수 또는 가까운 사이에는 서로 안으며 어깨를 두드린다.
- 종교는 90% 이상이 가톨릭교이다.
- 현지인 중 총기를 소지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시비가 붙지 않도록 조심한다. 우범지역이 아닌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소에서 대낮에 총기 강도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 자동차 유리문을 돌, 망치 등으로 순간적으로 깨뜨리고 운전사 또는 손님의 지갑 등을 강탈하는 일도 있으므로 택시 등 자동차를 탈 때 가방을 차 바닥에 놓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Av. Principal #190, Piso 7, Urb. Santa Catalina, La Victoria, Lima, Peru
- 전화 : (51-1) 476-0815 / 팩스 : (51-1) 476-0950
- E-mail : peru@mofat.go.kr



긴급 영사 연락망

- 홈페이지 : <http://per.mofat.go.kr>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7:30(점심시간 12:30~14:30)
- 긴급 시 영사 연락망(휴대폰) : 9-9878-7454

- 페루와는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관광인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 진공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식품은 반입 금지이다.
- 특별한 예방접종은 필요 없다.
- 주재국 의료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의료비가 매우 비싸다.
- 병원 진찰료는 1회 \$50 정도이다.
- 약국에서 항생제 등 약을 구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을 구비해야 한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05, (51-1) 225-0220
- 화재 : 116, (51-1) 222-0232
- 구급차(Alerta Medica) : (51-1) 225-4040

차량 수리

- Touring y Automovil Club de Peru : (51-1) 211-9999

팁 제도

- 식당 이용 시 대략 식대비의 5~10%를 테이블에 놓고 나오면 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4시간

전력 사용 현황

- 200V / 60Hz, TV, 비디오는 NTSC 방식으로 한국과 동일하다.

페루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야후 코리아 지역정보 '페루'편 : <http://kr.dir.yahoo.com/Regional/Countries/Peru/>

언어

- 스페인어



출입국 시
유의 사항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CASTLEMAN
BEACH

국가별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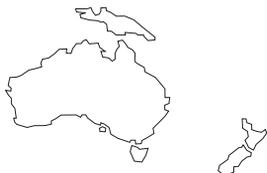
대양주 지역



- 01 괌 · 사이판 210
- 02 뉴질랜드 216
- 03 파푸아뉴기니 222
- 04 피지 226
- 05 호주 230



괌 · 사이판 | 대양주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빠름
 화폐단위 동카리브달러(East Caribbean Dollar)/100cents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usa-hagatna.mofat.go.kr>
 괌정부 홈페이지 www.guam.gov
 북마리아나정부 홈페이지 www.cnmi.net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괌과 북마리아나연방(사이판)은 전쟁, 내란, 테러 가능성은 거의 없는 지역이다. 다만, 지진과 태풍이 비교적 잦은 지역이므로 유의사항과 대처요령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괌 및 북마리아나연방은 관광(휴양)지로서, 연간 한국인 관광객 수가 괌의 경우 약 12만여 명(전체 관광객의 10%)이며, 북마리아나연방(사이판)은 약 11만 명(전체 관광객의 20%)이 다녀갈 정도로 잘 알려진 곳이다.
- 살인, 강도, 납치 등의 중범죄는 거의 없는 편이나 렌터카 등 차내에 가방이나 귀중품이 보이는 경우 차량 유리를 깨고 꺼내가는 좀도둑이 기성을 부리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 야간에는 주차해 둔 차량의 바퀴를 떼어 가는 사례도 있으므로 차량은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 특히 야간에 해변에서 여성이 납치, 강간 등을 당하는 사례도 간혹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주요 사건 · 사고 사례

- 2007년 3월 23일(금) 오후 1시 30분경 한인 학생 17명이 북마리아나연방(사이판) 소재 금단의 섬인 포비든 아일랜드(Forbidden Island Sanctuary)에 놀러 갔다가 4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치안 상황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인터넷으로 밀반입 물건 배송해 달라는 부탁

- 한국 관광객이 2005년 10월 9일 OO항공편으로 마약 Crystal Methamphetamine(속칭 ICE) 2,078g을 스피커 박스 속에 넣어 관 세관을 통과하려다 세관원에 적발되었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스피커 박스를 판매 거주하는 OO씨에게 전달하면 \$4,50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심부름만 했으며, 스피커 내부에 ICE가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대책]

- 사이버 공간이나 공항 주변에서 사례를 약속하면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물건을 타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 항공사는 원칙적으로 승객의 화물에 대해 사전 확인 및 사인을 받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설사 승객의 사인이 없다 하더라도 화물 탁송표와 승객 간의 연계가 시스템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법의 구제를 받지 못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여성의 경우 가로등이 없는 한적한 곳(특히 해변)에 일몰 후 혼자 외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통제구역(수영금지구역, 입·출입 통제구역 등) 출입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각종 안전 안내 표지판의 내용을 숙지하고 잘 따른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 주로 택시와 버스(호텔-쇼핑몰 간 셔틀)가 대중교통 역할을 담당한다.
 - 택시의 경우 미터요금의 10%를 별도로 서비스 요금으로 지불한다.
 - 버스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낼 필요 없다.
- 택시와 버스 수가 적으므로 가능한 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도로교통

- 아스팔트 도로에 코랄(산호석) 성분이 섞여 있어 비가 오면 빙판길처럼 미끄러워져 매우 위험하다.
- 마린 드라이브(Marine Drive)의 중앙 분리선(1개 차선으로 노란색 점선 표시)은 좌회전할 때 쌍방향 차량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교통섬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 지역에 진입하면 일단 정차 후 좌회전해야 한다.
- 스쿨버스(노란색)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 뒤차는 물론 뒤따르던 옆 주행로의 차들도 모두 일단 정지했다가, 스쿨버스가 출발하면 그때 함께 움직여야 한다.
- 괌과 북마리아나연방에서는 국제면허증 없이 한국운전면허증만 있으면 1개월간

운전할 수 있다.

기후

- 아열대성 기후, 연중 기온은 24~27°C(주간에는 연중 30°C 이상), 연평균 습도는 80% 정도이다.
- 의상은 하복이면 무난하나, 강한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긴 상하의 면류 의복도 필요하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유의사항

- 불을 켤 때 성냥이나 라이터를 바로 사용하지 말고 가스 냄새를 확인한 후 켤다. 또한 메인가스 밸브, 전기 시스템, 보일러 시스템 등을 꺼 둔다.
- 거의 모든 고층 건물은 내진 시공이 되어 있으므로 바깥보다는 실내가 더 안전하다.
- 모든 다리는 당국의 안전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폐쇄됨에 유의한다.
- 송전선, 전봇대, 나무 벽체, 담, 굴뚝 등에서 떨어진 개방된 장소로 이동한다.
- 자동차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세우고 교량, 인도교, 입체교차로 또는 송전선 아래에는 주차하지 않는다. 만약 전기줄이 자동차 위에 떨어진 채로 달아 있으면 차 내에 가만히 있는 편이 안전하다.

태풍이 발생했을 때의 유의사항

- 괌 및 북마리아나연방(사이판)에서의 태풍은 주로 8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에 발생하나, 최근 기후 변화로 그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 날아다닐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나 물건들을 고정시키고 건물 내부 등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 태풍서터를 펼쳐 모든 창문을 닫는다.
- 단수에 대비하여 수돗물을 가급적 많이 받아둔다. 특히 괌과 사이판에는 담수가 거의 없으므로 단수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대비(대형 수조 준비)한다.
- 고층 건물은 태풍 강도가 더 세므로 건물 저층 또는 로비로 대피한다.
- 괌 및 북마리아나연방의 주 종교는 가톨릭이 전체 국민의 90%를 차지한다.
- 괌 인구는 약 17만 명(2007년 기준)으로 그중 현지인(차모로인)이 약 43%, 한국인이 약 2.6%(4,600명) 정도 차지한다.
- 북마리아나연방 인구는 약 83,000명(2007년 기준)으로 한국인은 약 2,500명 정도이다.

공관(주하갓나출장소)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25C Tun Jose Camacho St., Tamuning, Guam 96931 U.S.A.
- 전화 : (1-671) 647-6488 / 6489
- 팩스 : (1-671) 649-1336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 E-mail : kconsul@kuentos.guam.net
- 홈페이지 : <http://usa-hagatna.mofat.go.kr>

근무 시간

- 월~금 / 09:00~17:00(점심시간 12:00~13:30)
- 근무시간 외 긴급 전화 연결 : (1-671) 688-5886 / 5810 / 5815

북마리아나연방(CNMI : 사이판) 영사협력원 연락처

- 성명 : 주호준(한인회 총무이사 겸)
- 전화 : (1-670) 285-4620, 사이판 한인회 : (1-670) 234-0465
 ※ 괌은 영사관 소재 지역으로서 직원의 직접 응대가 가능하나, 북마리아나연방은 항공기로 1시 간의 원격지에 위치하므로 긴급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영사협력원에게 직접 연락하면 된다.

- 괌은 미국령으로 미연방정부 국토안보부에서 출입국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 괌은 순수 관광이 목적인 한국인 방문자에 대해 15일 내 입국사증을 면제해 준다 (1990. 10. 1, Visa Waiver Program). 그러나 입국할 때 반드시 귀국 항공권(15일 이내에 출국)을 제시하고 괌 내 체류 장소를 밝혀야 한다.
- 관광 이외의 목적(유학, 취업 등)으로 입국할 때는 반드시 미국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주한미국대사관(U.S. Embassy in Korea)

- 홈페이지 : <http://korean.seoul.usembassy.gov>
- 전화 : (02) 397-4114
- 팩스 : (02) 795-3606

- 북마리아나연방은 자치연방으로서 이민 업무를 직접 관장하며, 공항 또는 항만에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30일 체류 기간의 입국 허가 스탬프를 여권에 날인해 준다.
- 괌 및 북마리아나연방에서 마약, 총포 등 불법 무기류는 미연방정부에서 관장하며, 미화 \$10,000 이상을 휴대하고 여행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괌 긴급 의료 지원
 - 괌 메모리얼병원(종합병원) : (1-671) 646-5801~5
 - SDA Clinic : (1-671) 646-8801
 - 미 해군병원 : (1-671) 340-9352
- 북마리아나연방(사이판) 긴급 의료 지원
 - Commonwealth Health Center : (1-670) 234-8950~1
- 약품 구입 시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 의사의 처방전은 참고는 가능하지만 현지에서 통용되지는 않으므로 특이 병세와 체질인 경우 사전에 약을 준비해야 한다.



출입국 시 유의 사항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긴급 구조 요청 : 911
- **괌**
 - 미국 국토안보부(이민국) : (1-671) 472-7349, (1-671) 642-7611(공항)
 - 경찰 : (1-671) 475-8505~10
 - 소방서 : (1-671) 472-3304/6
- **북마리아나연방(사이판)**
 - 이민국 : (1-670) 234-8950/1
 - 경찰서 : (1-670) 2134-0911
 - 소방서 : (1-670) 664-9003/4

차량 수리

- 렌터카를 빌린 경우라면 렌터 회사에 연락하면 처리된다.
- 경미한 수리는 일반 주유소에서 부품 구입과 교체가 가능하다.

팁 제도

- 일반적으로 요금의 10%를 팁으로 지급한다. 대개 호텔 식당에는 서비스료(service charge)가 계산서에 포함되어 청구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시간

전력 사용 현황

- 현지 전기 시스템(모든 가전제품)은 110V / 55Hz이다.
- 한국 가전제품의 경우 프리볼트(110~220V 겸용) 제품이지만 승압기(트랜스포머)를 사용해야 한다.
- 여행 시 플러그 어댑터(11자형 코드)를 준비하면 편리하다.

괌 · 사이판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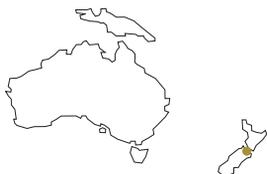
- 괌 정부 웹사이트 : <http://www.guam.gov>
- 북마리아나연방 웹사이트 : <http://www.cnmi.net>

언어

- 영어 및 차모로어(현지 원주민 사용, 스페인어와 유사함)



뉴질랜드 | 대양주



시차 한국보다 3시간 빠름
 화폐단위 뉴질랜드 달러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nzi-auckland.mofat.go.kr>
 뉴질랜드정부 홈페이지 <http://www.newzealand.govt.nz>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뉴질랜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치안 상태도 양호하며, 전쟁·내란·테러에 대한 위험도 적어 여행하기에 안전한 국가에 속한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오클랜드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소매치기 등 절도 사건이 빈번하지만 경찰력 부족으로 절도범이 현장에 있거나 신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 외에는 경찰이 즉각적으로 출동하지 않는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농장이 많이 위치해 있는 왕가레이, 네이피어 인근 국도 상에서 차량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다.
- 오클랜드 시내 인근 알버트 공원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날치기 및 강도, 성범죄가 발생했다.
- 북섬 베이 오브 아일랜드 관광지 산책로 및 주차장 등지에서 신혼부부 및 여성 관광객 등이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휴대품 절도

-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차량을 비워 놓고 관광하는 사이 또는 식사하는 도중에 차량을 탄다. 오클랜드 국제공항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잠시 놓아둔 휴대품을 절취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현지
치안 상황

[대책]

- 자동차 문은 반드시 잠근다.
- 현금은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여 의복의 내부 주머니에 넣어 두고 지갑도 두 곳으로 분산하여 휴대한다.
- 중급 이하의 호텔은 경비가 불충분하므로 귀중품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 외출할 때에는 귀중품을 리셉션에 맡기고, 간소한 차림으로 나간다.
- 분실에 대비하여 여권 번호, 신용카드 번호, 노트북·카메라 상품명을 기재해 둔다.

[사례 2] 노상강탈(들치기)

-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한 들치기는 야간에 가방이나 핸드백을 어깨에 매거나 지갑을 손에 들고 다니는 여성을 노린다.

[대책]

- 길을 걸을 때는 도로 쪽보다는 건물 쪽으로 견도록 하며 특히 오토바이 접근에 주의한다.
- 핸드백이나 가방은 몸의 정면에 휴대하고 차도의 반대쪽 손으로 잡는다.
- 핸드백을 날치기하려고 하면 크고 당당하게 "Go away, I'll call the police."라고 소리를 지른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공항이나 역, 한적한 공원, 관광지나 시내 한인식당 주차장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 버스

장거리 버스(Inter-City버스, Newmans코치라인)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대도시에는 장거리 버스 전용 터미널이 있지만 중소 도시에서는 관광안내소나 상점, 주유소 등에서 출발·도착하기도 하므로 미리 정류장을 확인해 둔다.

● 기차

전국적으로 기차 노선은 네 종류로 고급화되어 있다.

북섬 : 오클랜드 (<->) 웰링턴, 웰링턴 (<->) 파머스턴노스

남섬 : 크라이스트처치 (<->) 픽턴, 크라이스트처치 (<->) 그레이마우스

● 페리

남섬의 픽턴과 북섬의 웰링턴 사이를 운행한다.

● 여행자 교통 패스

장기간 여행하는 개별 여행자는 장거리 버스, 페리, 비행기,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시티 트래블 패스(<http://www.travelpass.co.nz>)가 유리하다. 종류는 2-in-one pass, 3-in-one pass가 있고 유효기간 1년 중 정해진 기간(5~15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

- 뉴질랜드에서는 차량들이 좌측으로 통행한다(우측 핸들). 양보법칙(Give Way), 라운드어바웃(Roundabout) 제도가 있다. 라운드어바웃에서는 우측 차량이 우선 통행하므로 반드시 우측을 살피고 통행한다.

운전면허

-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공관(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이나 번역 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으면 뉴질랜드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

기후

-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지 않은 해양성 기후로서 연평균 기온은 12°C이다.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이며, 계절 기온 차는 크지 않다. 1년 중 1, 2월이 가장 덥고 7월이 가장 춥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춥고, 북섬 중앙지역도 고산지형과 거대한 호수가 있어 온도가 낮다. 특히 6월부터 9월까지의 우기로 우산보다는 방수가 잘 되는 모자 달린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연재해

-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 지역에 따라 지진, 폭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가끔 발생하고 있어 여행 중 날씨 관련 방송에 주의를 기울이고, 날씨가 험난할 때는 혼자서 길을 나서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로토루아 등 마오리 문화의 중심지를 방문하여 하카(적에게 경고하기 위해 추는 군무) 또는 전통 노래와 춤을 관람할 때 이를 비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 해산물 채취는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전복은 하루 10개(12.5cm 미만의 전복은 채취 금지), 참돔(snapper)은 하루 10마리, 민물장어는 하루 6마리, 홍합은 하루 50개까지 채취할 수 있다.
- 귀엽다고 어린아이의 엉덩이나 머리를 쓰다듬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 주뉴질랜드 대사관(웰링턴 소재)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NZ
- 전화 : (64-4) 473-9073/4 / 팩스 : (64-4) 472-3865
- 긴급 시 영사 연락망
 - 사건 사고 담당 : 휴대폰 027-242-2676
 - 영사 민원 담당 : 휴대폰 027-488-8101
- E-mail : consul@koreanembassy.org.nz
- 홈페이지 : <http://www.koreanembassy.org.nz>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7:00(점심시간 12:00~13:30)

◎ 주오클랜드 분관(오클랜드 소재)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0th Floor, 396 Quee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 전화 : (64-9) 379-0818, 0460 / 팩스 : (64-9) 373-3340
- 긴급 시 영사 연락망
 - 사건 사고 담당 : 휴대폰 027-297-0126
 - 영사 민원 담당 : 휴대폰 027-297-0125
- E-mail : auckland@mofat.go.kr
- 홈페이지 : <http://nzl-auckland.mofat.go.kr>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7:00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관광이 목적인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 입국심사 시 체류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귀국행 비행기표 등 체류 기한 이후 뉴질랜드를 떠날 것이라는 증명, 체류 기한에 따른 적절한 경비 소지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출발 전 미리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
- 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면, 관련 심사 및 조사 후에 대개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다.
- 통관 시 면세 제품은 담배 200개비, 시거 50개비, 와인 4.5리터, 맥주 4.5리터 등이다. 모든 종류의 음식물·식물·생물건본·동물 또는 가축에 사용되었던 제품·동물·가축 또는 동물성 제품·캠핑 장비·골프클럽·골프화 등은 반드시 신고한다.

- 매우 심하게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근처 Accident & Medical Center나 국립병원 응급실로 가거나, 응급전화 111로 응급차를 부른다. (24시간 건강 상담전화 : 0800-611-116)
-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및 재활치료 비용 등은 전액 뉴질랜드사고 보상단체(ACC)에서 보상해 준다.
-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우므로 여행 출발 전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둔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111로 전화한다. 구급차가 필요하면 앰블런스(Ambulance),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발생 시에는 폴리스(Police), 화재 시에는 파이어(Fire)라 말하고 자신의 이름과 위치(주소)를 알려주면 된다.

팁 제도

- 공식적으로 정해진 팁은 없으나 고급식당에서는 결제 금액 밑에 평균 10%(5~15%) 정도의 팁을 적은 뒤 서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3시간(일광절약제를 실시하는 9월 말~4월 초에는 +4시간)

전력 사용 현황

- 전기 방식은 240V, 50Hz이다.
- 한국 전자제품은 Hz가 이곳 제품과 다르므로 사용 전 반드시 문의를 해야 한다 (특히, 모터가 있는 제품).

뉴질랜드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Lonely Planet의 《New Zealand》, 피터 오틀리의 《Curious 뉴질랜드》를 읽거나 뉴질랜드관광청(<http://www.newzealand.com/korea>), 주한뉴질랜드대사관(<http://www.nzembassy.com>) 사이트를 방문한다.

여행정보 안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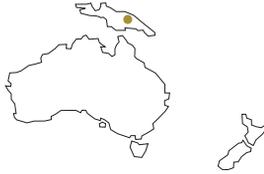
- 여행자 안내센터로 i-SITE가 있다. 뉴질랜드의 공식 여행자 안내센터로, 관광명소, 교통수단 및 숙박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안내를 무료로 제공한다.
- 뉴질랜드관광청에서 보장하는 품질 입증 공식 마크인 퀄마크(Qualmark[®])가 있는 숙소, 교통편, 액티비티와 관광명소 등이려면 믿을 수 있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빠름
 화폐단위 키나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png.mofat.go.kr>
 파푸아뉴기니정부 홈페이지 www.pngonline.gov.pg



현지 치안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전쟁이나 내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곳은 아니나, 언어가 다른 800여 개 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 및 무력 충돌이 잦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수도 포트모르즈비(Port Moresby)는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인구수에 비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함으로 인해 각종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 단순 강도 형태를 띠었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 납치 후 몸값을 요구하는 형태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요 사건 · 사고 사례

- 한국인이 환전하러 은행에 들어간 사이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차내에 있던 여권 및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쳐갔다.
- 보로코 지역에서 가게 문을 닫고 새벽에 귀가하던 중 시내 간선도로에서 4~5명의 경찰위장 강도들에게 차량 및 금품을 탈취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 한국인 4명이 일요일 낮에 골프를 치던 중 5~6명의 사제 총으로 무장한 강도들에게 금품 및 귀중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절도

- 외부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대상으로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후 귀중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 대양주



[대책]

- 가능한 한 관리인이 상주하는 주차장을 이용한다.
- 외부 주차장 이용 시 가방, 카메라 등 눈에 띄는 귀중품은 트렁크에 둔다.

[사례 2] 무장 강도

- 래스칼(Rascal)이라 불리는 무장 떼강도들이 인적이 드문 곳은 물론 골프장, 관광지에 기습적으로 나타나 총으로 위협하며 귀중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책]

- 항상 현지인 또는 현지 사정에 밝은 가이드와 함께 다녀야 한다. 특히 일요일 박물관 관람은 지양해야 한다.
- 만약 래스칼이 덮칠 경우 저항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모두 준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다운타운 지역을 벗어나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주의해야 한다.
- 시간과 주변 상황이 범죄 발생의 주요인이 되므로 늦은 시간, 경비가 없는 장소에는 가지 않는다.

대중교통

- 버스 및 택시 등 대중 교통수단이 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용하지 않는다.
-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현지 여행사 또는 지인을 통해 미리 교통수단을 마련하여 가이드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로교통

- 도로 정비 상태가 불량하고 현지인들의 무단횡단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과속을 삼간다.
- 안전벨트는 뒷좌석까지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그 자리에서 벌금 20키나(미화 \$8)가 부과된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기후와 자연재해

기후

- 몬순기후대에 속해 있으며 건기(5~10월) 및 우기(11~4월)로 나눌 수 있다. 지역 편차가 심해 수도인 포트모르즈비는 연중 30℃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 고산지대인 마운트하겐(Mt. Hagen), 고로카(Goroka) 지역은 건기에는 아침저녁으로 한국의 가을 날씨와 같이 서늘하다.

자연재해

- 바람이 강하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및 산사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 주변국 지진 발생의 여파로 간헐적으로 약진이 발생하기도 하나 심각한 지진 발생 지역은 아니다.
- 노출이 심한 의상은 삼가는 것이 좋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4th Floor, Pacific MMI Building Section 21 Allotments 2&3, Champion Parade, Granville, Port Moresby, Papua New Guinea
- 전화 : (675) 321-5822, 5823
- 팩스 : (675) 321-5828
- E-mail : ktwine1@hotmail.com
- 홈페이지 : <http://png.mofat.go.kr>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8:00~16:00(점심시간 12:00~13:30)
- 긴급 영사 연락망
 - 영사 : 휴대폰 (675) 687-8743
 - 민원 : 휴대폰 (675) 687-8744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한국과 파푸아뉴기니 양국 간에는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주한 PNG 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주소 : 서울 종로구 수성동 위브파빌론 210호
 - 전화 : (02) 2198-5771
 - 팩스 : (02) 2198-5779
- 파푸아뉴기니를 단기간 방문하는 사람 중에 한국에서 사전 사증 획득이 어려운 경우 공항에서 도착사증을 받을 수 있다.
- 면세 제품(18세 이상)은 담배 200개비, 주류 2리터, 향수 1리터, \$350 상당의 신제품 등이다.
- 모든 식품은 신고해야 하며 계란이 첨가된 라면류처럼 재료에 따라 반입이

불가한 것도 있다.

- 의료보험 제도가 없으며 정밀진단이나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호주 등 3국이나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
- 치과나 일반 진료를 요할 경우 주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개인 의료원을 이용하지만, 의료 기술이 낙후하고 진료비가 비교적 고가이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000(수도지역)
- 화재 신고 : 110(수도지역)
- 응급환자 : 111

차량 수리

- 한인이 운영하는 차량 정비소가 있어 편리하다.
- Automart : (675) 311-2666 / 휴대폰 (675) 685-6595

팁 제도

- 음식 가격에 서비스비가 포함되어 있어 팁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시간(GMT +10시간)

전력 사용 현황

- 240V / 50Hz
- TV, 비디오는 PAL 방식이다.

언어

- 영어, 피진, 모두 공식 언어이며 기타 800여 개의 부족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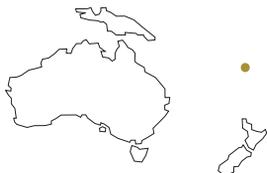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피지 | 중남미



시차 한국보다 3시간 빠름
 화폐단위 (Fijian Dollar:FJD)/100 Cents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www.fiji.mofat.go.kr>
 피지정부 홈페이지 www.fiji.gov.fj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한 여행 경보단계 지정 지역의 4단계 분류표상 제1단계인 '여행유의단계'에 속한 국가로서, 치안 상태가 아주 양호한 지역은 아니다.
- 원주민계와 인도인계 간의 갈등 관계가 간간히 발생해 왔으며, 2006년 12월 발생한 쿠데타 이후 불안한 정국이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빈부격차로 인해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거침입 절도나 강도 또는 흥기를 사용하는 조직적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현지 경찰력 부족과 교통수단 등 장비 부족으로 치안이 어렵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 한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수도 수바(Suva) 및 나디(Nadi)에는 현금을 노리는 도둑들이 한인 등 외국인의 집에 침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 공항 주변에서 합승 미니버스의 운전수가 다른 승객과 공모하여 외국인 승객에게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 도시 지역에서 늦은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시내 이동은 호텔에서 예약한 택시를 이용한다. 택시 합승은 피한다.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 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또는 대형 상점에는 강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많은 금품을 소지하지 않는



현지 치안 상황

게 안전하다.

- 여권, 항공권, 여행자 수표 등의 복사본을 따로 보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 피지법상 기소 전 48시간 동안 구금이 가능하므로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사관에 연락하여 영사의 도움을 받는다.

대중교통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 택시는 기본요금인 FJD1,50이다.
- 시내버스 요금은 거리에 따라 FJD50센트에서 FJD1이다.
- 난디에서 수도 수바까지는 자동차, 택시(FJD150), 버스(FJD10~FJD20), 또는 개별 운행 봉고차(FJD30)를 이용할 수 있다. 난디 국제공항에서 나우스리(Nausori) 공항까지 연계 예약도 가능하다.

도로교통

- 차량 핸들이 오른쪽에 있으며, 도로 방향이 우리와 반대이다.
- 피지의 전체 도로는 80km를 초과할 수 없다. 단속이 심한 편이다.

기후



기후와 자연재해

- 11월에서 3월까지의 비가 많으며 고온 다습한 열대해양성 기후이다. 가끔 위력적인 태풍(cyclone)이 발생하기도 한다.
- 4월에서 10월까지의 한국의 5, 6월 날씨 정도로 선선하다.

자연재해

- 과거에 태풍(cyclone) 또는 산사태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며, 악천후 속에서 배편 여행을 하거나 해상스포츠 활동을 하던 도중, 사망 또는 실종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 피지의 국민성은 남방 특유의 느긋함과 나태감이 있다.
- 머리를 만지면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쓰다듬지 않는 것이 좋다.
- 마을을 찾아가갈 때는 추장에게 줄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고,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피해야 한다.
- 피지 전통 음료인 양고나(Yagona)를 마시기 전에 박수를 한 번 치고, 단숨에 마시며, 마신 후에는 박수를 세 번 치면 행운이 따른다고 한다.
- 원주민 마을이나 현지인을 방문할 때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은 결례이다.
- 리조트나 호텔 해변이 아닌 공공 해변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8th Floor, Vanua House Victoria Parade, Suva
- 전화 : (679) 330-0977 / 팩스 : (679) 330-8059
- E-mail : korembfj@mofat.go.kr
- 홈페이지 : <http://fji.mofat.go.kr>

근무 시간

- 월~목요일 / 08:30~16:30, 금요일 / 08:30~16:00(점심시간 12:30~14:00)
- 긴급 영사 연락망 : 참사관 (679) 992-5978 / 서기관 휴대폰 (679) 992-5981

- 한-피지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관광 목적 입국의 경우 입국심사 시 왕복 항공권을 제시하면 공항에서 4개월 한도의 방문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2개월 한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 피지 세관 및 검역 당국에서는 피지 입국자들의 모든 종류의 식품류를 포함한 수하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 공립병원에서는 무료 진료가 가능하나 전반적으로 의료 수준이 낮은 편이며, 치과 등 사립병원의 경우는 의료비가 비싼 편이다.
- 여타 개도국에 비해 열대성질환 및 기타 전염병 발생률, 유아 사망률 등이 낮은 편이며, 보건 관계법령은 영국제도와 유사하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917, 919, 000
- 구급차 및 화재 신고 : 911 / 전기 고장 : 913

팁 제도

- 구미 지역과는 달리 팁 문화가 없다.

전력 사용 현황

- 240V / 50Hz, TV, 비디오는 PAL 방식이다.
- 컴퓨터 등 정밀기계는 전압 조정기를 사용해야 하고 가전제품 중 220V용은 현지 사용 가능하나 Hz는 한국과 다르다.

피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대한민국 주피지대사관 : <http://fji.mofat.go.kr>
- 재피지한인회 : <http://www.fijikorean.org>

언어

- 영어가 공용어이다.



긴급 영사
연락망



출입국 시
유의 사항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호주 | 대양주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빠름
 화폐단위 호주 \$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aus-act.mofat.go.kr>
 호주정부 홈페이지 www.australia.gov.au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호주 정부 보안당국은 아프간 및 파키스탄 등지에서 훈련받은 테러조직 연계자와 호주 내에서 자생한 요주의 대상 인물이 상당수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국제 테러분자의 유입보다는 호주 내 자생 테러분자들의 조직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2005년 11월 테러 혐의자들을 신속히 체포할 수 있도록 관련 형법을 개정했다.
- 2005년 11월 8일 호주 정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시드니 및 멜버른 지역의 테러 혐의자 17명을 검거하고 테러 계획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가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 상태

- 호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모든 분야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 다만, 호주 백인 젊은 층의 동양인에 대한 거부감에 기인한 폭행사건이 간혹 일어나고 있다. 실례로 2005년 12월 초 시드니 근교의 크로눌라(Cronulla) 해변에서 중동계 청년들과 해변 안전구조원 간의 작은 폭력이 발단이 되어 3일 동안 인종 간 폭력 사태가 발생, 27명이 체포되고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 호주의 안전한 치안 상태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대도시에서는 여행자들을 표적으로 한 강·절도 등의 범죄 가능성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현지 치안 상황

주요 사건·사고 사례

- 최근 보이시피싱(전화사기) 조직들이 해외 유학생 및 여행객을 납치했다고 하면서 국내에 있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를 벌이고 있다.

[보이시피싱 대처법]

- 유학 또는 여행 중인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전화가 오면 송금을 하기 전 반드시 자녀와 통화를 시도해 납치 여부를 확인한다.
 - 사기조직들이 자녀의 목소리라며 신음소리를 들려주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납치되었다는 자녀와의 직접 통화를 요구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한다.
 - 유학생 자녀와의 연락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 현지에 체류 중인 자녀 친구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둔다.
 - 해외 배낭여행객의 경우 휴대전화 로밍, 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 가족과의비상 연락망을 늘 열어 둔다.
- 최근 호주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의 허점 등을 이용한 송금 사기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역송금(환치기)은 국내 외환거래법 위반이므로 외환 송금 시에는 반드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환치기 대처법]

- 송금하기 전에 먼저 역송금 업주에 대한 신원을 철저히 확인(여권 대조)한다.
- 원화를 주고 호주달러를 받고자 할 경우 역송금 업주로부터 현금으로 받는다.
- 호주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고자 할 경우 원화는 반드시 본인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입금 즉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테러, 강도, 절도 예방

- 호주가 테러나 강도, 절도 등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지만 여행 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대책]

-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거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스런 복장은테러조직의 눈에 띄기 쉽다.
-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휴대할 가방이나 화물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어 불순분자가 폭발물 등을 넣지 못하게 해야 한다.
- 모르는 사람이 화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철저히 거절한다.
- 공항 주변에 수하물만 남겨져 있는 경우 테러물 등으로 취급되기 쉬우므로 절대로 물건만 남겨두지 말고, 또한 주인 없는 가방이나 물건에는 절대 손 대지 말고 공항경찰에 신고한다.
- 비정상적인 소란 등 테러 위험 등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현장을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광장 등 군중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국내 가족 등에게 숙박 호텔, 동행자 등의 연락처를 남겨 둔다.

[사례 2] 안전사고

- 교통신호나 운전체계가 한국과 달라 도로를 횡단할 때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대책]

- 반드시 현지 교통체계를 사전에 숙지하고 미숙 운전은 하지 않도록 한다.
- 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히치하이킹은 절대 금물이다.
-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야간에는 라이트를 부착하여 교통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등의 경우 상대방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차용증 없이 돈거래를 하여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니 피해 방지를 위해 가급적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 경찰 조사 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 서명하거나 함부로 자백하지 말고 반드시 한국어 통역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다.
- 낯선 사람이 사주는 음료(술)는 절대 마시지 말고 본인의 잔은 다른 사람이 유해 물질(마약 등)을 넣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수영 미숙으로 인한 익사 사고, 해파리 등 위험한 바다 생물에 의한 피해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표지판 및 유의사항을 항상 숙지해야 한다.

대중교통

- 광대한 지역의 호주는 도시마다 각기 다른 교통 시스템을 갖고 있다. 호주의 대중교통은 버스, 기차, 페리, 트램(Tram), 택시라고 할 수 있다.
- 시드니의 보편적인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와 페리, 전철(city rail, airport link), 크루즈, 익스플로러 버스 등으로 시드니 패스를 구입하면 위의 모든 시내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버스 : <http://www.sydneybuses.nsw.gov.au>
 - 전철 : <http://www.cityrail.info>
 - 택시 : <http://www.abctaxis.com.au>
- 멜버른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 트램, 전철로 어느 것을 타든지 'Metcard'라는 통합카드를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대중교통 안내 : <http://www.metlinkmelbourne.com.au>
 - 택시 : <http://www.silvertop.com.au>
- 브리즈번의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 페리, 전철로 하나의 티켓으로 세 가지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운행버스로 시티센터 지역만 운행하는 '더 루프(The Loop)'버스가 있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 대중교통 안내 : <http://www.transinfo.qld.gov.au>
- 버스 : <http://www.translink.com.au>
- 전철 : <http://www.citytrain.com.au>
- 택시 : <http://www.yellowcabgroup.com.au>, Yellow Cab(전화 : 13-1924)
- 퍼스의 대중교통은 '트랜스퍼스(Transperth)'라는 통합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 버스, 기차, 페리를 하나의 티켓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퍼스 시내를 중심으로 8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퍼스에는 도시를 동서와 남북으로 가로질러 운행되는 3개 노선의 무료버스 'CAT(Central Area Transit)'가 있다.
 - 대중교통 안내 : <http://www.transperth.wa.gov.au>
 - 택시 : <http://www.blackandwhitecabs.com.au>, Black and White(전화 : 13-1924)
- 애들레이드에는 유료의 애들레이드 매트رو 시스템(버스, 기차, 트램을 매트رو 티켓 하나로 이용)과 Bee Line(No. 99B)과 City Loop(No. 99C) 등 두 가지의 무료버스가 있다. 매트رو 티켓은 Single Trip, Day Trip, Multi Trip 등의 종류가 있다. 택시는 전화로 콜택시를 불러서 이용한다.
 - 대중교통 안내 : <http://www.adelaidemetro.com.au>
 - 택시 : <http://www.yellowcabgroup.com.au>, Suburban Taxi(전화 : 13-1008)
- 캔버라의 대중교통 수단은 'Action' 버스이며 티켓은 Daily, Weekly, Monthly 등의 종류가 있다. 캔버라에서 택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도심이나 공항 등 주요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화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 버스 : <http://www.action.act.gov.au>
 - 택시 : <http://www.canberracabs.com.au> (전화 : 13-2227)
- 장거리 버스
 - Murray's Coaches : <http://www.murrays.com.au>
 - Grey Hound Australia : <http://www.greyhound.com.au>
- 장거리 철도
 - <http://www.countrylink.info>
 - <http://www.trainway.com.au>
 - <http://www.qr.com.au>
 - <http://www.railaustralia.com>

도로교통

- 호주의 차량은 좌측통행을 한다. 따라서 도로를 주행할 때 오른쪽을 먼저 살펴야 한다.
- 음주운전 허용치는 알코올 0.05% 이하이다. 위반 시에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 속도제한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과 함께 한국보다 훨씬 과중한 벌금이 부과된다.

기후

- 호주는 국토가 넓기 때문에 열대기후부터 온대기후까지 지역에 따라 기후 차이가 나지만 시드니, 캔버라,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대부분의 대도시 기후는 생활하기 적합하다.
-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으로 대륙 중앙부는 사막지대이다.
- 여름은 기온이 높아도 다윈 등 노던테리토리 지역 외에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지낼 만하며, 자외선이 매우 강해 선텐로션(Sun block)과 모자는 필수이다.
- 겨울은 대부분의 지역이 낮 동안 영상의 기온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산간지역이나 캔버라와 같은 고지대 도시는 일교차가 심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다.

자연재해

- 호주의 큰 자연재해 중 하나는 산불로 건조한 봄과 여름철에 산불이 자연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는다. 산불 외에 일부 해안지역에서 간혹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
- 호주인들은 약한 편을 돕는 메이트십(mateship)이 강하다. 호주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차별 금지법은 어느 누구라도 인종, 성별, 결혼 여부, 종교, 신체적 결함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비교적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는 평등한 사회이다.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에 관한 질문은 삼가는 것이 좋다.
- 호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친절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낙천적인 사고와 여행을 즐기고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 호주에서 술 구입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술은 반드시 허가된 술가게(liquor shop)에서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벌금은 물론 운전면허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 미국과는 달리 호주에서는 팁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아주 만족할 만한 음식과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간혹 식당 종업원에게 약간의 팁을 주어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 호주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스포츠 활동을 아주 열성적으로 한다. 호주는 테니스, 수영, 크리켓 분야에서 한동안 세계를 석권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는 '캐리 웹'이나 '아담 스콧'과 같은 호주 출신 골퍼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주호주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 전화 : (61-2) 6270-4100
- 영사과 : (61-2) 6270-4140
- 팩스 : (61-2) 6273-4839
- E-mail : info@korea.org.au
- 홈페이지 : <http://aus-act.mofat.go.kr>, <http://www.korea.org.au>
- 근무 시간 : 월~금 / 오전 09:00~17:00(점심시간 12:30~1:30)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Level 13, 111 Elizabeth St, NSW 2000
- 전화 : (61-2) 9210-0200
- 팩스 : (61-2) 9210-0206
- 영사과 : (61-2) 9210-0200
- E-mail : sydney@mofat.go.kr
- 홈페이지 : <http://aus-sydney.mofat.go.kr>
- 근무 시간 : 월~금요일 /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호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주 입국 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비자 발급 대상자 외에는 주한호주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된다.
- ETA 비자는 3개월 이내의 여행 혹은 업무상 호주 방문 시 받게 되며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항공권 예매 시 신청하면 된다. 또한 ETA는 전산비자이므로 여권에도 장이나 사증이 붙지 않는다.
- 호주 체류 시 4주 이상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할 경우에는 ETA 비자 발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단기 방문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호주에 3개월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방문 비자를 주한호주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 **출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 이민 목적의 입국자 이외에 단기 체류자(관광, 사업 방문, 가족 방문 등)의 취업을 금하고 있다.
 - 마약 소지자는 중범으로 간주하여 최고 중신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 **외환 신고 시 유의사항**
 - 호주 달러 \$10,000 미만의 현금 반출입 시에는 신고가 필요 없으나, 그 이상의 현금의 경우 신고해야 하며, 여행자수표는 액수에 관계없이 신고 없이 반출입이 가능하다.
- **통관 시 유의사항**
 - 동식물, 식료품을 소지하고 입국 시에는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 18세 이상인 여행자의 경우 담배 10갑, 위스키 1병까지 면세 통관되며, 호주 달러 기준 \$150 상당의 모피 제품, \$400 이내의 범위에서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 검역 관련 유의사항

- 음식물에 대한 검역과 통관 절차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음식물, 식물 혹은 동물 재료로 만든 물품 등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신고해야 한다.
- 대부분의 한국식품은 호주 내 주요 대도시에서 구입이 가능하므로 식품은 가급적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다.
- 김치 등을 포함하여 집에서 만든 음식물은 절대 반입이 불가하며 상품용으로 진공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만 통관이 가능하다.

※ 호주 농림수산부 : <http://www.daffa.gov.au/languages/korean>
호주 관세청 : <http://www.customs.gov.au>

- 호주의 의료체계는 크게 일반개업의(GP, General Practitioner), 전문의(Specialist), 병원(Hospital)으로 나누어져 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GP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GP의 의뢰에 따라 전문의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단기 방문객들은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또는 호주 시립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의료기관 이용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의사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함부로 약을 구입할 수 없다.
- 위급한 경우 전화 000번으로 구급차를 요청한다. 영어 구사에 문제가 있으면 안내원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면 통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화재, 구급차 : 000
- 전화 고장 : 1100

팁 제도

- 미국과는 달리 호주에서는 팁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대비 +1시간(서머타임 실시 기간인 10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한국보다 +2시간)

전력 사용 현황

- 240V / 50Hz
- TV, 비디오는 PAL 방식이다.

호주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Working Holiday 비자 소지자는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최장 4개월 동안 영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제한되어 있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 유학생들은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민부로부터 Work Permit(인터넷으로 신청 가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광비자로는 절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 Tax File Number(납세자 번호)는 호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된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평생 동안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호주의 세금 번호이다. 일단 신청을 하면 임시번호를 받을 수 있고 신청 후 3~4주 후에 주소지로 텍스파일 넘버가 기재되어 있는 편지가 배달된다.

※ TFN 신청 : <http://www.ato.gov.au/individuals>

- 한국운전면허증은 공식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다만 영주비자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방문 운전자로 간주되어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면허증의 영문 번역본을 소지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의 경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호주 관련 정보 사이트

- 호주 이민부 : <http://www.immi.gov.au> / 전화 131-881, 한국어 통역 131-450
- 시드니한인회 : <http://www.koreanet.org.au> / 전화 (61-2) 9798-8800
- 호주 투어리즘 : <http://www.tourism,australia.com.au>
- 오스트레일리안 투어리스트 커미션 : <http://www.aussie.net.au>
- 숙소 안내 : <http://www.yha.org.au>
- 호주관광청 : <http://www.australia.com>
- 뉴사우스웨일즈 관광 정보: <http://www.visitnsw.com>
- 퀸즐랜드 관광 정보: <http://www.queenslandholidays.com>
- 빅토리아 관광 정보 : <http://www.visitvic.com>
- 노던테리토리 관광 정보 : <http://www.tourismnt.com.au>
- 캔버라 관광정보 : <http://www.canberratourism.com>
- 남부호주 관광정보 : <http://www.southaustralia.com>
- 서부호주 관광정보 : <http://www.westernaustralia.com>
- 타즈마니아 관광정보 : <http://www.discovertasmania.com>